

2022 **G**IST 연구환경 실태조사

GIST 대학원총학생회

연구활동 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조사방식	Google 문서도구 양식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
설문기간	2022.12.19. – 2022.12.31.
설문대상	GIST 대학원생
응답자수	330명
설문주최	GIST 대학원총학생회

목 차

1부: 연구환경실태조사(일반사안)

1	<u>인적사항</u> 6	6	<u>인권 문제</u> 76
2	<u>경제적 환경</u> 17	7	<u>대학원 진학 이유</u> 87
3	<u>연구 수행 환경</u> 25	8	<u>기타 사항</u> 91
4	<u>연구실 안전</u> 66		- <u>교육 지원</u> 92
5	<u>연구 및 진로 지도</u> 69		- <u>체육시설 지원</u> 95
			- <u>생활관 지원</u> 99
			- <u>소프트웨어 지원</u> 102
			- <u>중안연구기기센터</u> 105
			- <u>연구환경실태조사</u> 108

목 차

2부: 연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안

1 연구 및 생활환경 개선 객관식 응답 113

2 연구 및 생활환경 개선 주관식 응답

2.1 복수 응답 114

2.2 Stipend 및 장학금 인상 125

2.3 학생식당 개선 130

2.4 기숙사 개선 132

2.5 해외교류프로그램 확보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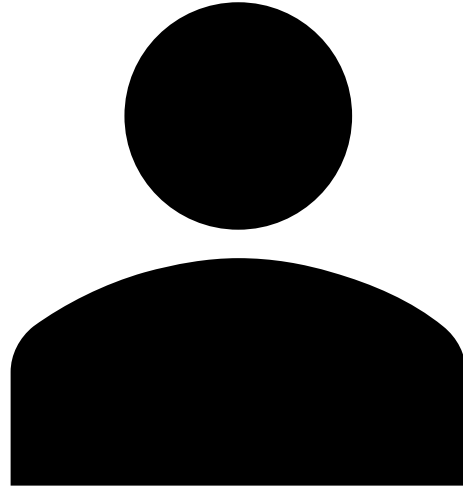
2.6 지스트 클리닉 도입 136

2.7 기타 137

2022 GIST

연구환경 실태조사 1부

(일반사안)



1. 인적사항

성별, 나이, 학위과정 등 응답자의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응답자 인적사항

1. 성별

2. 나이

3. 전문연구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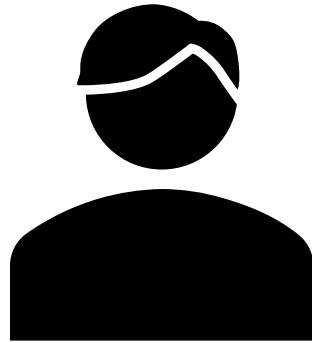
4. 결혼여부

5. 주거 형태

6. 재학기간

7. 학위과정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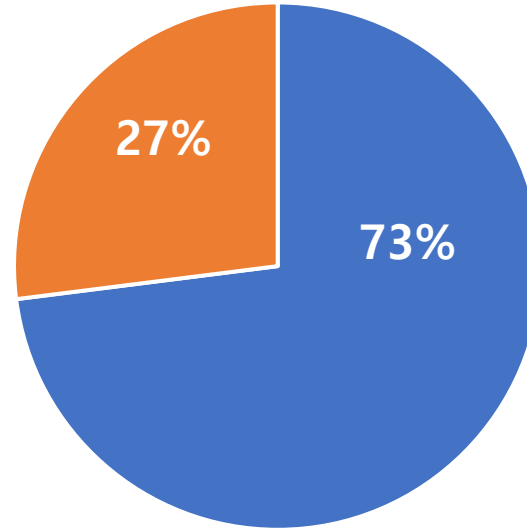


241명
(73%)

여



89명
(27%)



■ 남자 ■ 여자

석사과정 —●———— 27%

박사과정 —●———— 39%

통합과정 —●———— 34%

석사과정 —●———— 44%

박사과정 —●———— 30%

통합과정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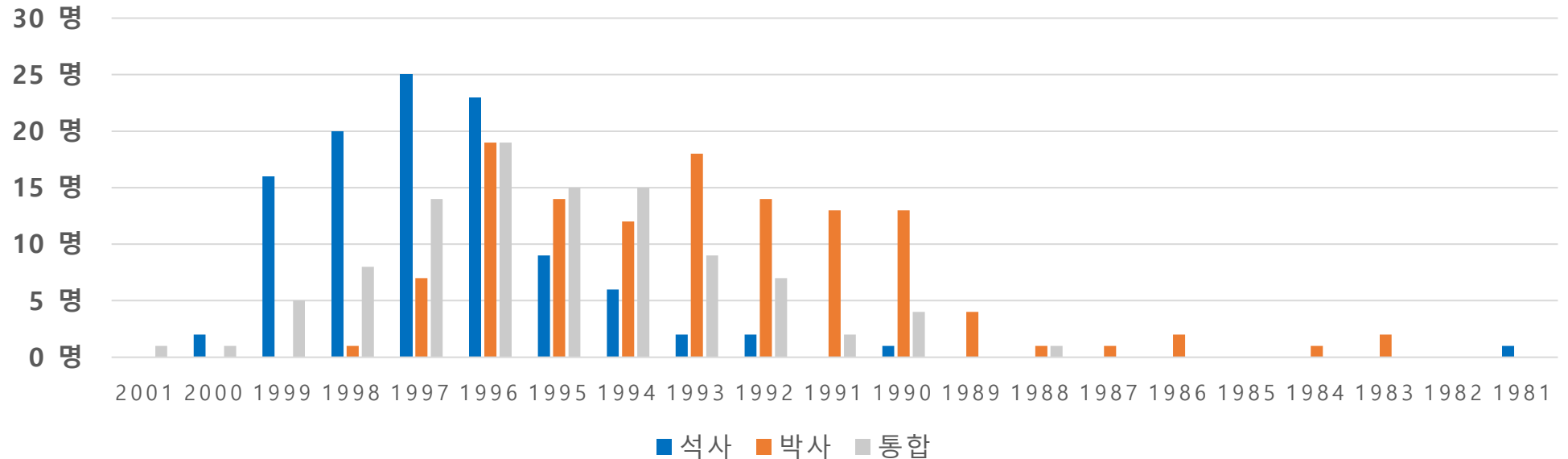
응답자 인적사항

1. 성별
2. 나이
3. 전문연구요원
4. 결혼여부
5. 주거 형태
6. 재학기간
7. 학위과정

학위과정에 따른 나이 분포

(전체 평균 나이: 29.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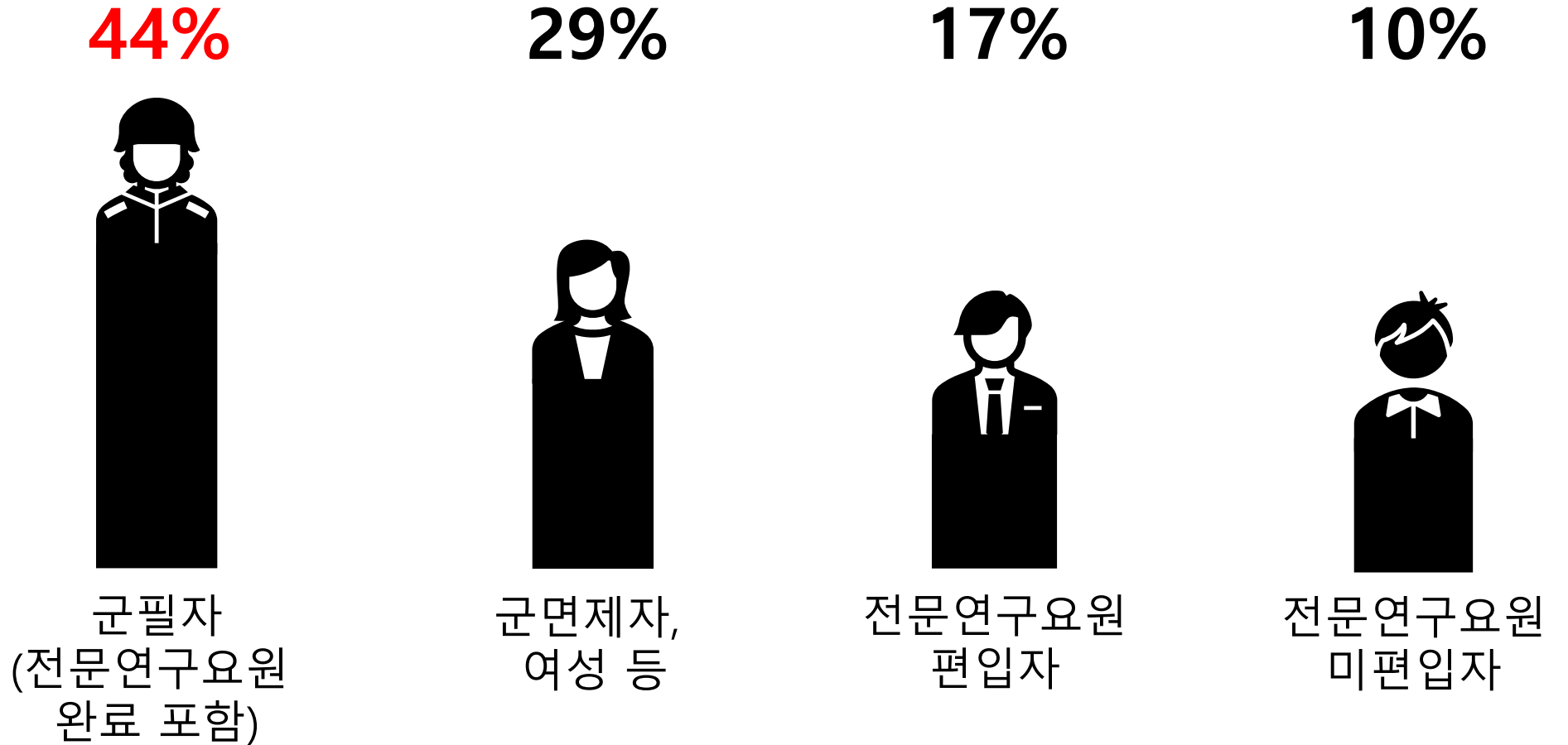
학위 과정	최대	최소	평균
석사 과정	43	24	27.4
박사 과정	41	26	31.2
통합 과정	36	23	28.9



응답자 인적사항

- 1. 성별
- 2. 나이
- 3. 전문연구요원
- 4. 결혼여부
- 5. 주거 형태
- 6. 재학기간
- 7. 학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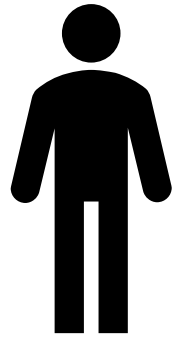
전문연구요원 편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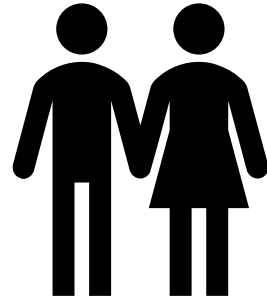
응답자 인적사항

- 1. 성별
- 2. 나이
- 3. 전문연구요원
- 4. 결혼여부**
- 5. 주거 형태
- 6. 재학기간
- 7. 학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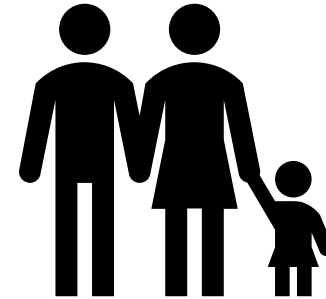
결혼 및 자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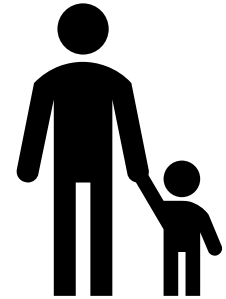
미혼



기혼
자녀 없음



기혼
자녀 있음



미혼
자녀 있음

296명
(89.7%)

26명
(7.9%)

7명
(2.1%)

1명
(0.3%)

응답자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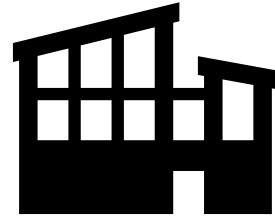
1. 성별
2. 나이
3. 전문연구요원
4. 결혼여부
5. 주거 형태
6. 재학기간
7. 학위과정

주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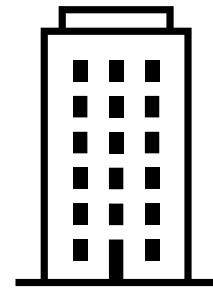
기숙사

217명
(65.8%)



자취

90명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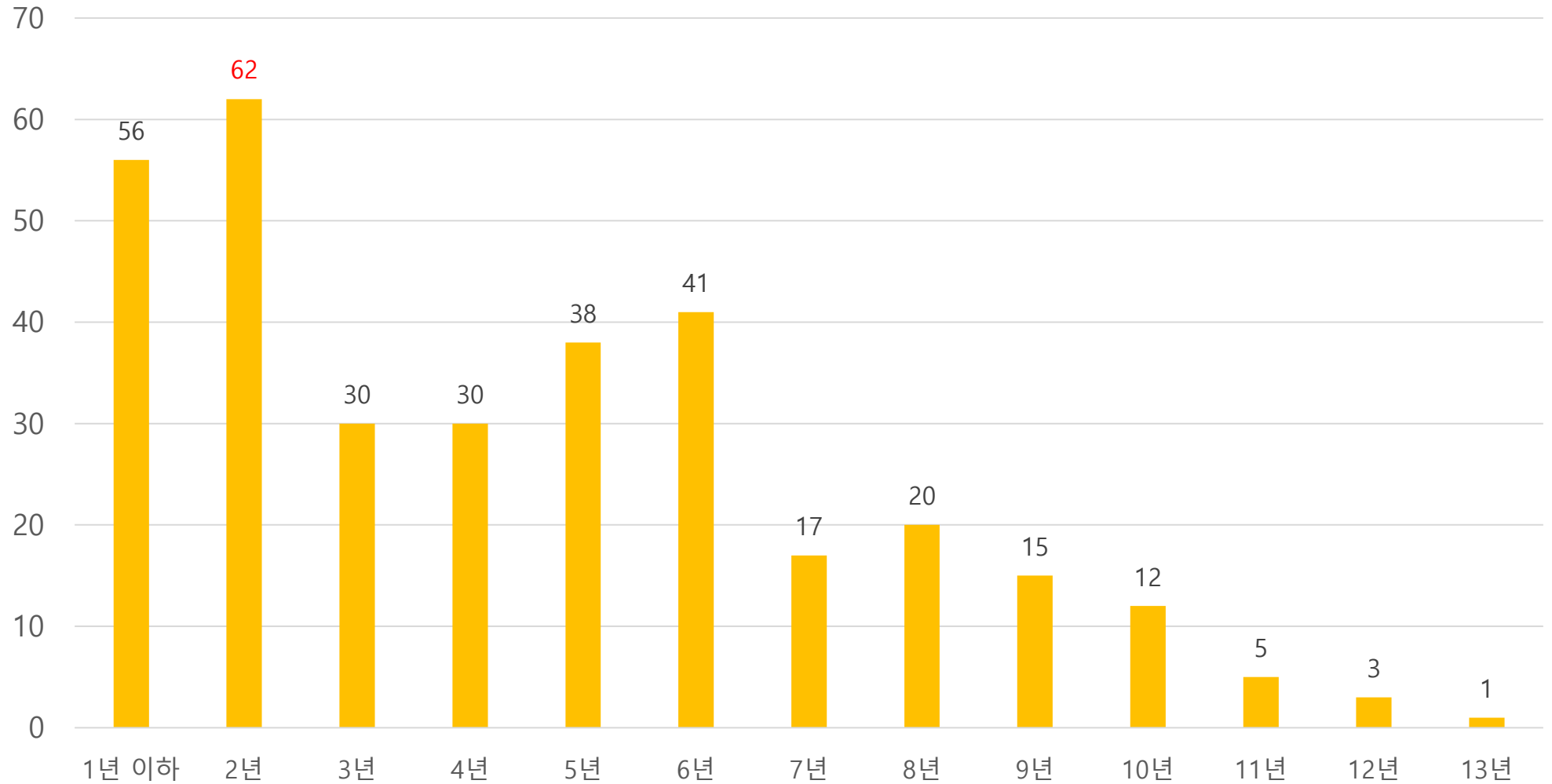
기혼자아파트

23명
(7.0%)

응답자 인적사항

1. 성별
2. 나이
3. 전문연구요원
4. 결혼여부
5. 주거 형태
- 6. 재학기간**
7. 학위과정

재학기간 (학부, 대학원 과정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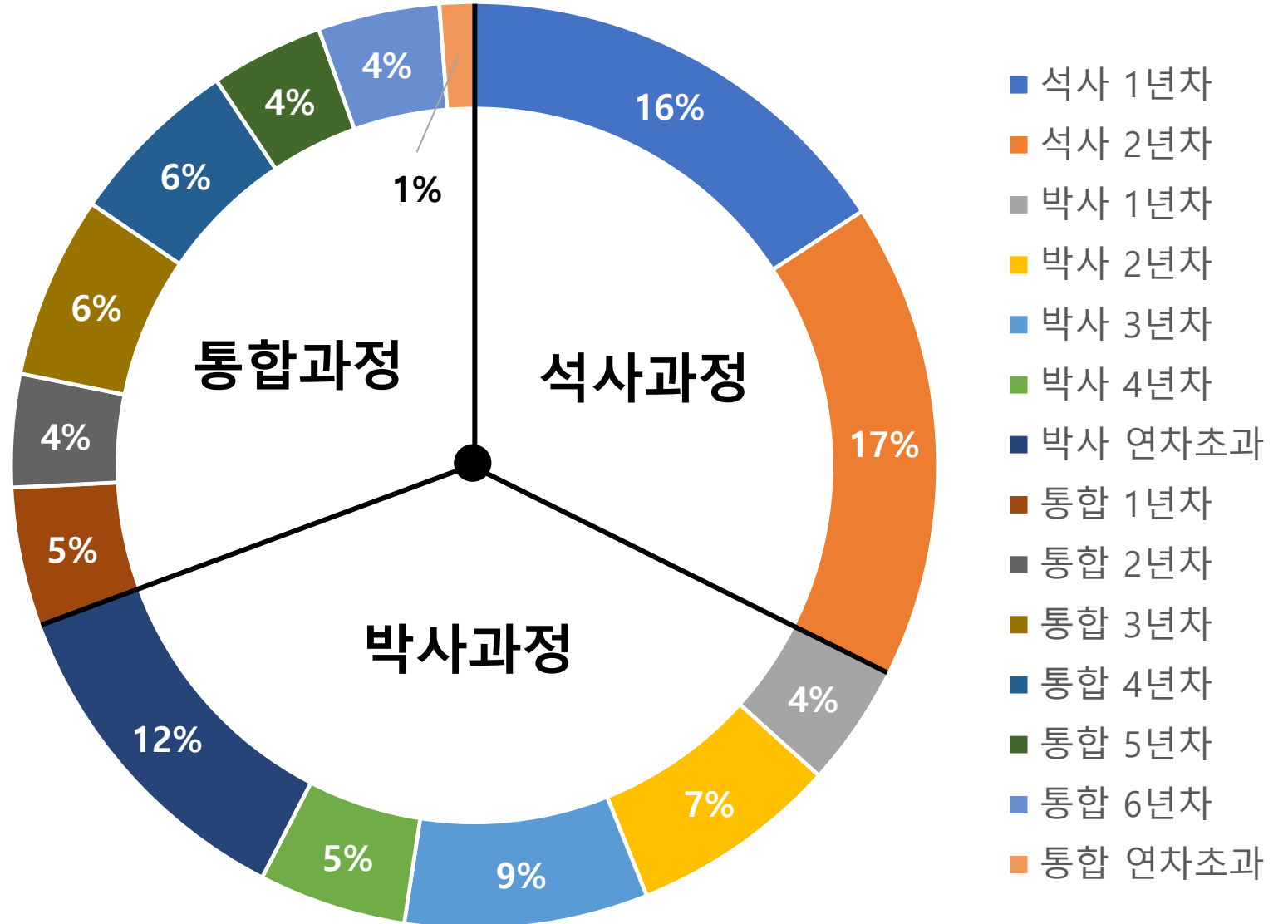


전체 평균 재학 기간 4년

응답자 인적사항

1. 성별
2. 나이
3. 전문연구요원
4. 결혼여부
5. 주거 형태
6. 재학기간
7. 학위과정

응답자 학위과정 및 연차



응답자 학위과정 및 연차

과정	연차	인원 (명)	퍼센트(%)
석사과정	1년차	52	15.7
	2년차	55	16.7
박사과정	1년차	14	4.2
	2년차	24	7.3
	3년차	28	8.5
	4년차	17	5.2
	연차초과	39	11.8
통합과정	1년차	16	4.9
	2년차	13	3.9
	3년차	21	6.4
	4년차	20	6.1
	5년차	13	3.9
	6년차	14	4.2
	연차초과	4	1.2
전체		330	100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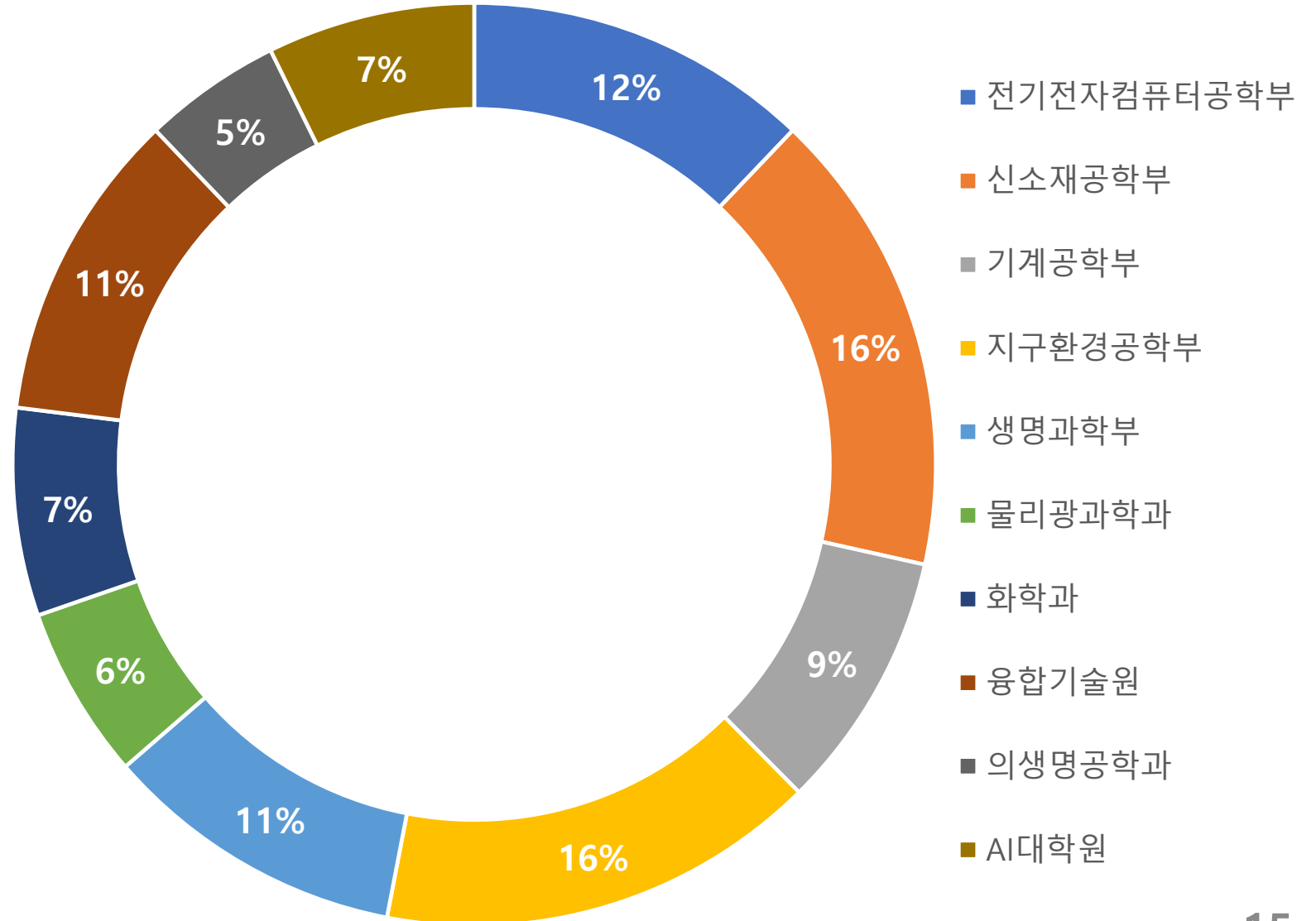
최소

1. 성별
2. 나이
3. 전문연구요원
4. 결혼여부
5. 주거 형태
6. 재학기간
7. 학위과정

응답자 인적사항

1. 성별
2. 나이
3. 전문연구요원
4. 결혼여부
5. 주거 형태
6. 재학기간
7. 학위과정

응답자 소속학부(과)



응답자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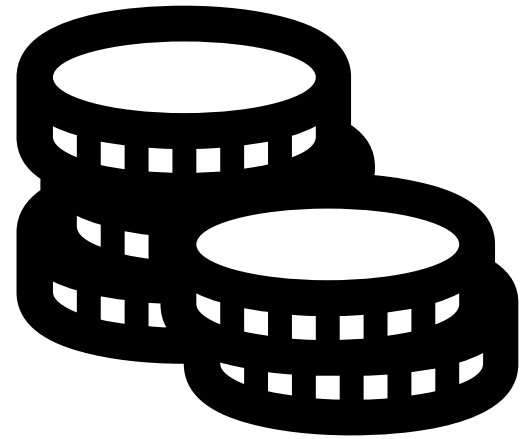
1. 성별
2. 나이
3. 전문연구요원
4. 결혼여부
5. 주거 형태
6. 재학기간
7. 학위과정

응답자 소속학부(과)

학부(과)	인원(명)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40
신소재공학부	54
기계공학부	30
지구환경공학부	51
생명과학부	35
물리광학과	20
화학과	24
융합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 에너지융합대학원)	36
의생명공학과	16
AI대학원	24
전체	330

최대

최소



2. 경제적 환경

대학원생들의 수입 및 지출 분석에 관한 항목입니다.

- 학위과정 별 월 평균 전체 수입
(만원 단위 국비보조비 포함, 생활관비 공제 전 금액)

1. 생활비

2. 지출

3. 생활 만족도

4. 생활비 보충

구 분	최 소	최 대	중 앙 값	평균	
석사과정	10	220	97.3	97.8	최소
박사과정	0	400	158.4	150	최대
통합과정	49	260	120	128.8	
전 체	0	400	120	132.9	

1. 생활비

2. 지출

3. 생활 만족도

4. 생활비 보충

• 전공 별 월 평균 전체 수입

(만원 단위 국비보조비 포함, 생활관비 공제 전 금액, 세전 금액)

학부(과)	최소	최대	중앙값	평균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0	260	118	134.6	
신소재공학부	49	250	102.5	121.4	
융합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 에너지융합대학원)	17	290	151	171.7	평균 최대
지구환경공학부	50	220	120	121.9	
생명과학부	10	250	100	108.3	최소
화학과	50	200	111.5	118.5	
기계공학부	65	400	130	139.5	
물리광과학과	80	230	111.5	122.7	
의생명공학과	70	357	113.1	141.2	
AI대학원	100	300	155	168.1	중앙값 최대
전체	0	400	120	132.9	

경제적 환경

1.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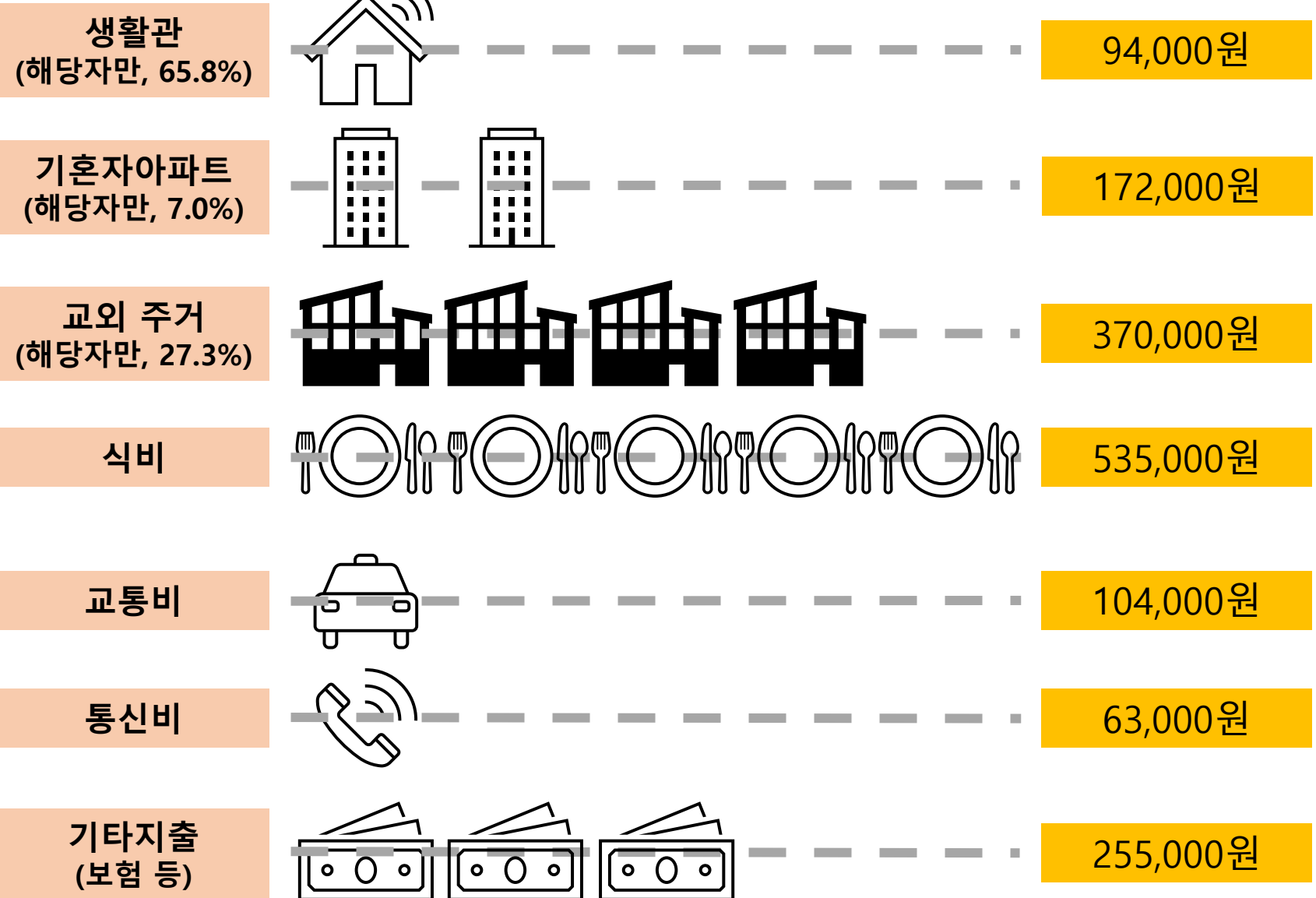
2. 지출

3. 생활 만족도

4. 생활비 보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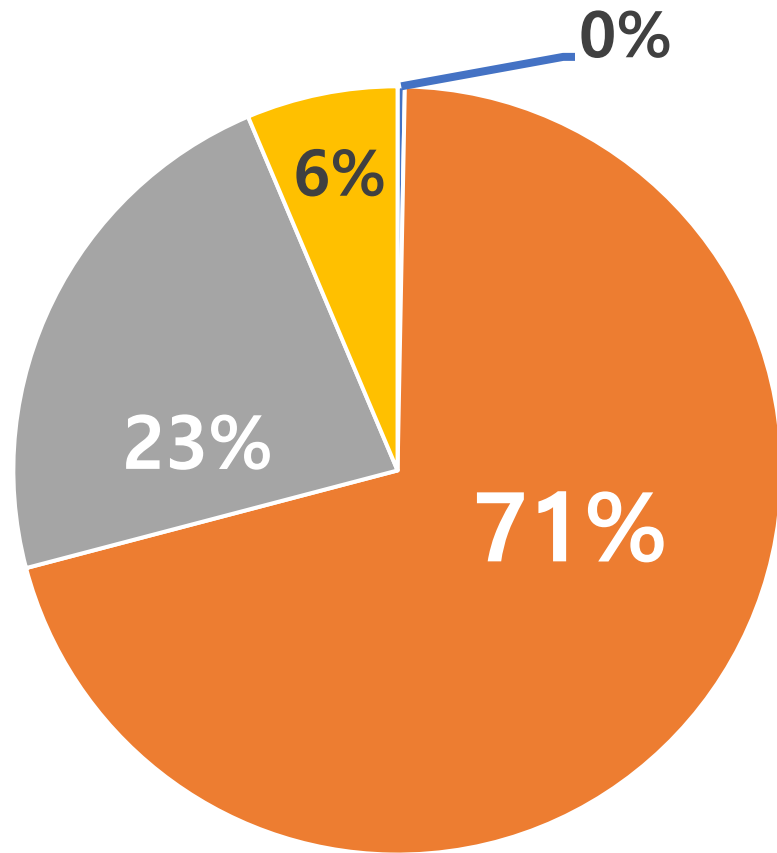
항목별 생활비 평균 지출



경제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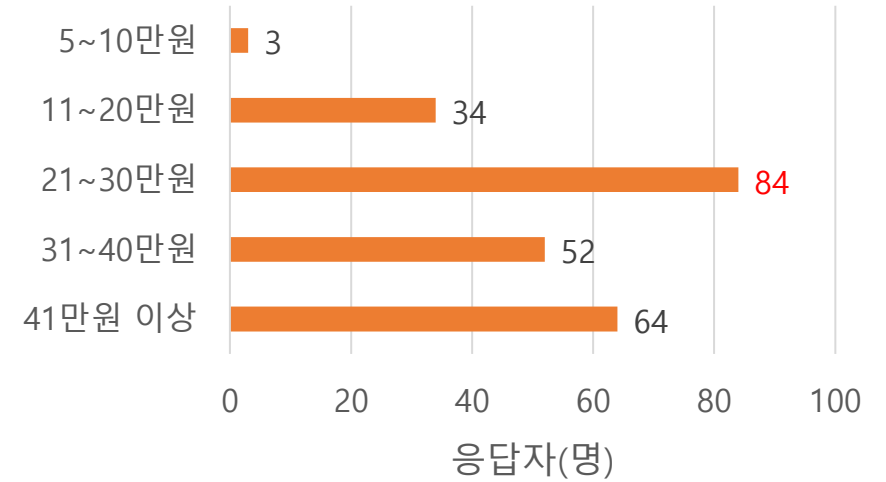
- 1. 생활비
- 2. 지출
- 3. 생활 만족도
- 4. 생활비 보충

• 현재 생활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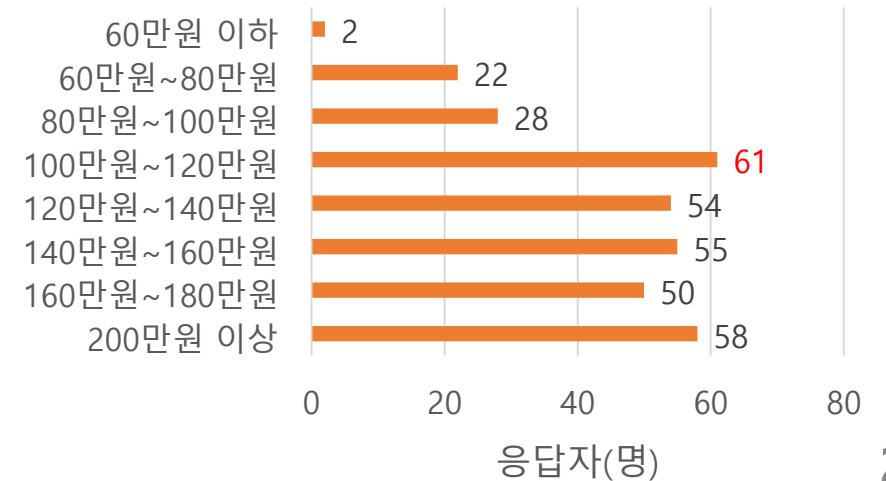


■ 과다하다 ■ 부족하다 ■ 적당하다 ■ 충분하다

• 부족한 금액은 어느정도입니까?



• 대학원생에게 적절한 생활비는? (기숙사비 제외 순수 생활비)



경제적 환경

• 부족한 생활비 보충 방법

1. 생활비

2. 지출

3. 생활 만족도

4. 생활비 보충



부족하지 않음

28.0%
(92명 응답)



조교 활동

4.5%
(15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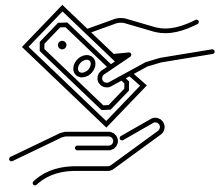
개인 과외

0.9%
(3명 응답)



아르바이트

1.2%
(4명 응답)



부모님 도움, 용돈

22.2%
(73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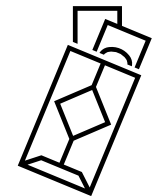
대출

4.6%
(15명 응답)



미리 저축한 예금

35.6%
(117명 응답)



방법 없음
(절약 등)

3.0%
(10명 응답)

스타이펜드 기준을 맞춰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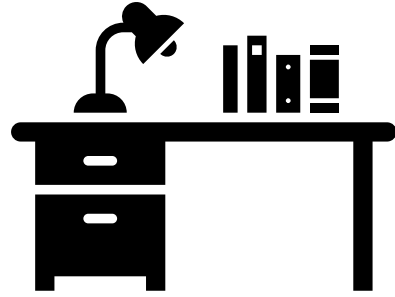
※ 스타이펜드 제도: 매월 최저 학생지원금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원생이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석사 1년차: 60만원 이상, 석사 2년차: 70만원 이상, 박사과정: 100만원 이상)
(지급 받고 있음, 모름, 없음, 무응답 제외)

- 기준에는 충족되지만 생활 어려움 (7명)
 - 애초에 기준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음 (2명)
 - 기혼자
 - 연차초과자: 학비 납부
 - 박사과정 대학원생 인건비 지급 금액 세금 공제 후 100만원 미만
 - 물가 고려 시 석사과정 1년차 60만원이 낮음
 - 학생식당 한 끼 5천원 씩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면 15,000원, 커피 한 잔 마시면 1일 2만원으로 월 30일 기준 60만원 정도입니다만, 사실 국내 물가가 너무 상승해서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건비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특히 생활비가 아무래도 여유롭지 못한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 정말 최저 생활비인 주거 및 식비만 보장되는 것 같음.
- 지급받지 못함 (7명)
 - 본인을 포함한 연구실 전원
 - 연차초과자: 박사과정 5년차 부터 월 지급 금액이 10-30만원 경우를 보았음
 - 신소재공학부 (사실확인 필요)
 - 스타이펜드 기준보다 적게 받아도 괜찮다는 서류에 학생의 서명을 받는 일이 타 연구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 타 연구실에서 스타이펜드 보다 더 적게 받는것에 동의한다는 계약서 서명하고 적게 받는다고 들음
 - I am a doctoral student, but I don't receive that minimum stipend of 1 million won.
 - 기준 금액 지급 보장 안되는 연구실이 있다고 들음

스타이펜드 기준을 맞춰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스타이펜드 제도: 매월 최저 학생지원금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원생이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석사 1년차: 60만원 이상, 석사 2년차: 70만원 이상, 박사과정: 100만원 이상)
(지급 받고 있음, 모름, 없음, 무응답 제외)

-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이 스타이펜드 기준을 맞춰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함 (3명)
 - 연차초과자 (2명)
 - 낮은 성적으로 인해 1학기동안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동시에 지도교수님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제대로 인건비를 받지 못함 (영어 답변)
- 현재 기준에 맞춰 지급받고 있음 (3명)
 - 석사 1년 차 기준 60만원 이상 지급 받음
- 과학기술원 대학원생은 세금 공제 전 기준 스타이펜드 이상 인건비를 지급 받지만 대부분이 최저 기준으로 지급받음 (2명)
- 인건비 회수 사례 (2명)
 - 타 연구실에서 지급된 인건비에서 일정 금액을 공용비용 목적으로 회수한다고 들음
 - 어떤 연구실에서 스타이펜드 기준에 맞게 학생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음. 현재 본인 연구실에서는 국비지원금과 월급 총합이 스타이펜드 기준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음. 스타이펜드 제도의 정확한 기준을 몰라 이것이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만임. 스타이펜드 제도와 별개로, 학생이 조교수당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버는 추가 수당을 반환하도록 종용하는 연구실도 있음. 소문 아니고 정말임.
- 스타이펜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저질 학생들이 있음. 지도교수가 허위신고 등을 우려하여,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악질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이 스타이펜드 제도에 의거한 인건비 지급함. 이 제도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
- 스타이펜드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되 조교수당을 안주는 경우가 있음
-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포함 스타이펜드 기준 설정은 문제 있음



3. 연구 수행 환경

연구 활동 시간과 휴가, 연구 기반 시설 및 연구실 조직 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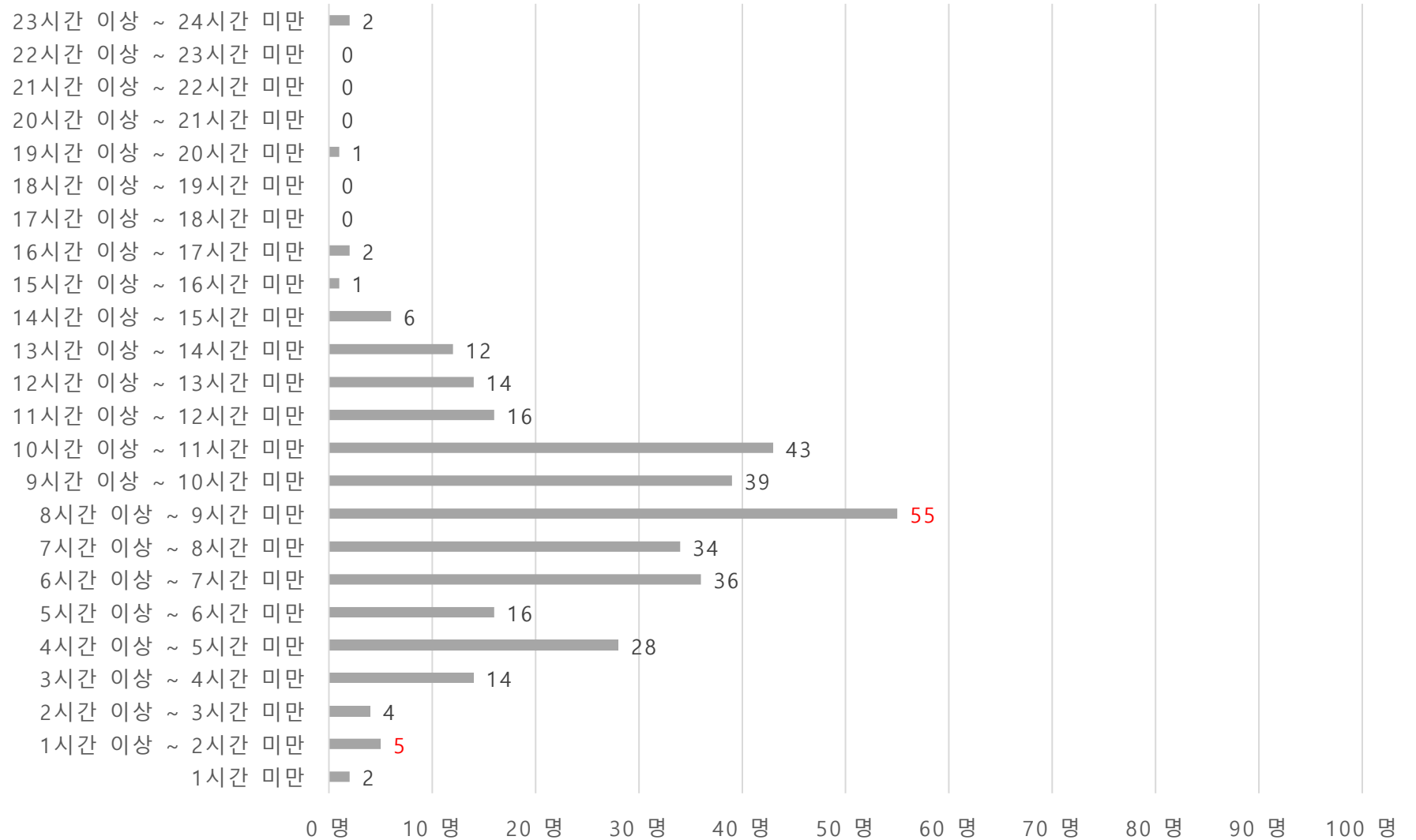
- '주중(월~금)' 기준 하루 평균 "학위 연구"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1시간]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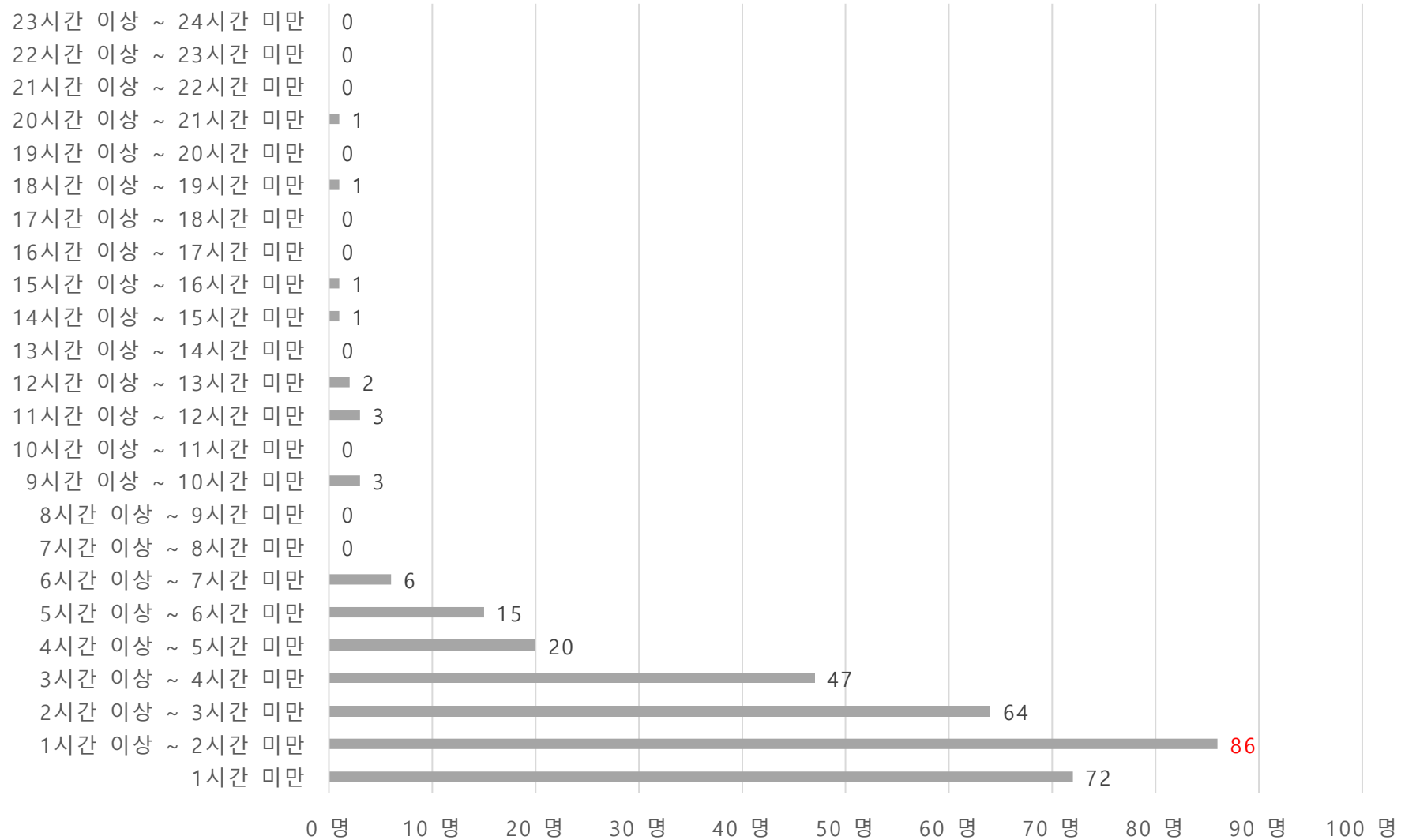
- '주중(월~금)' 기준 하루 평균 "학위 연구 외 업무 수행"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1시간]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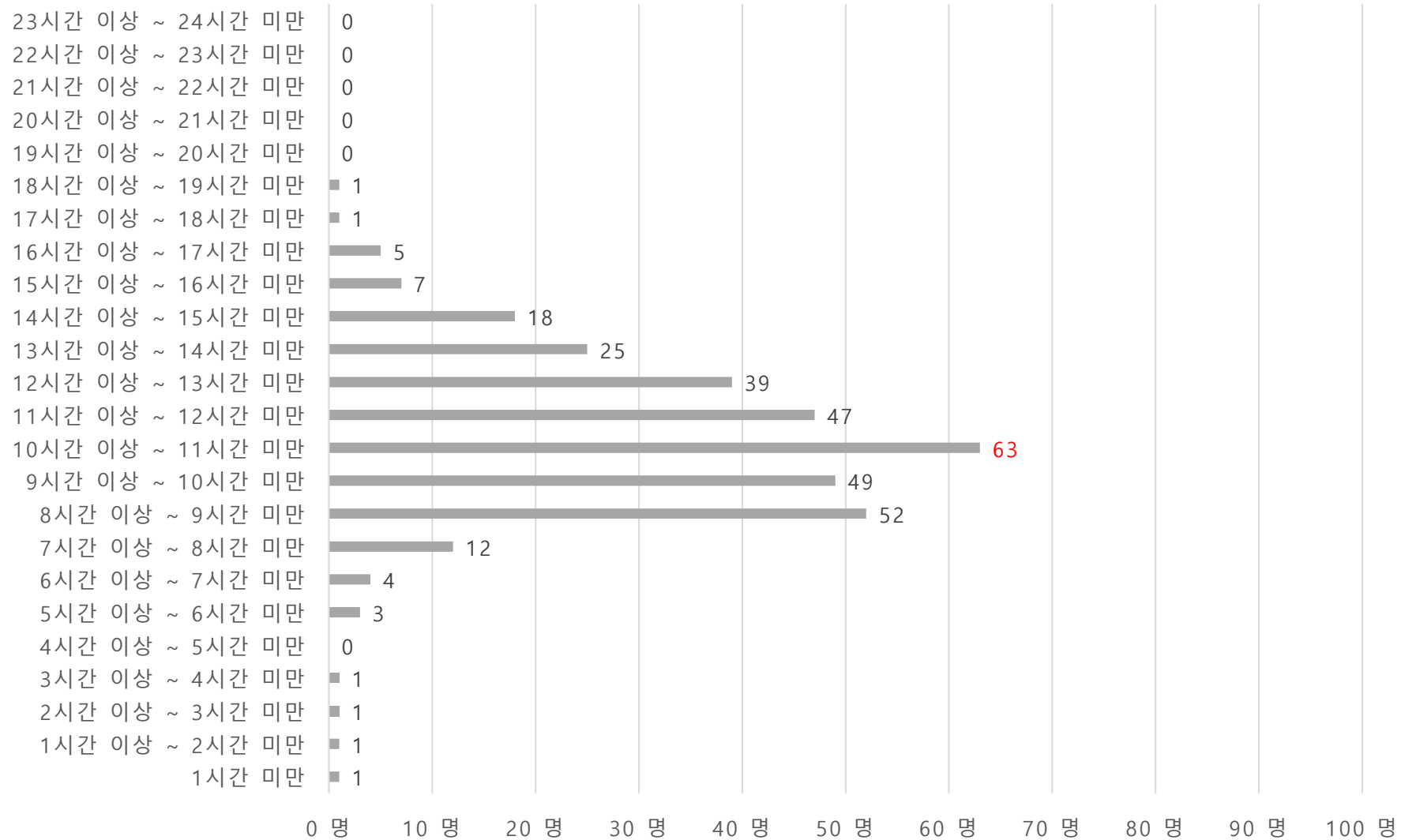
- '주중(월~금)' 기준 하루 평균 연구실에 머무는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1시간]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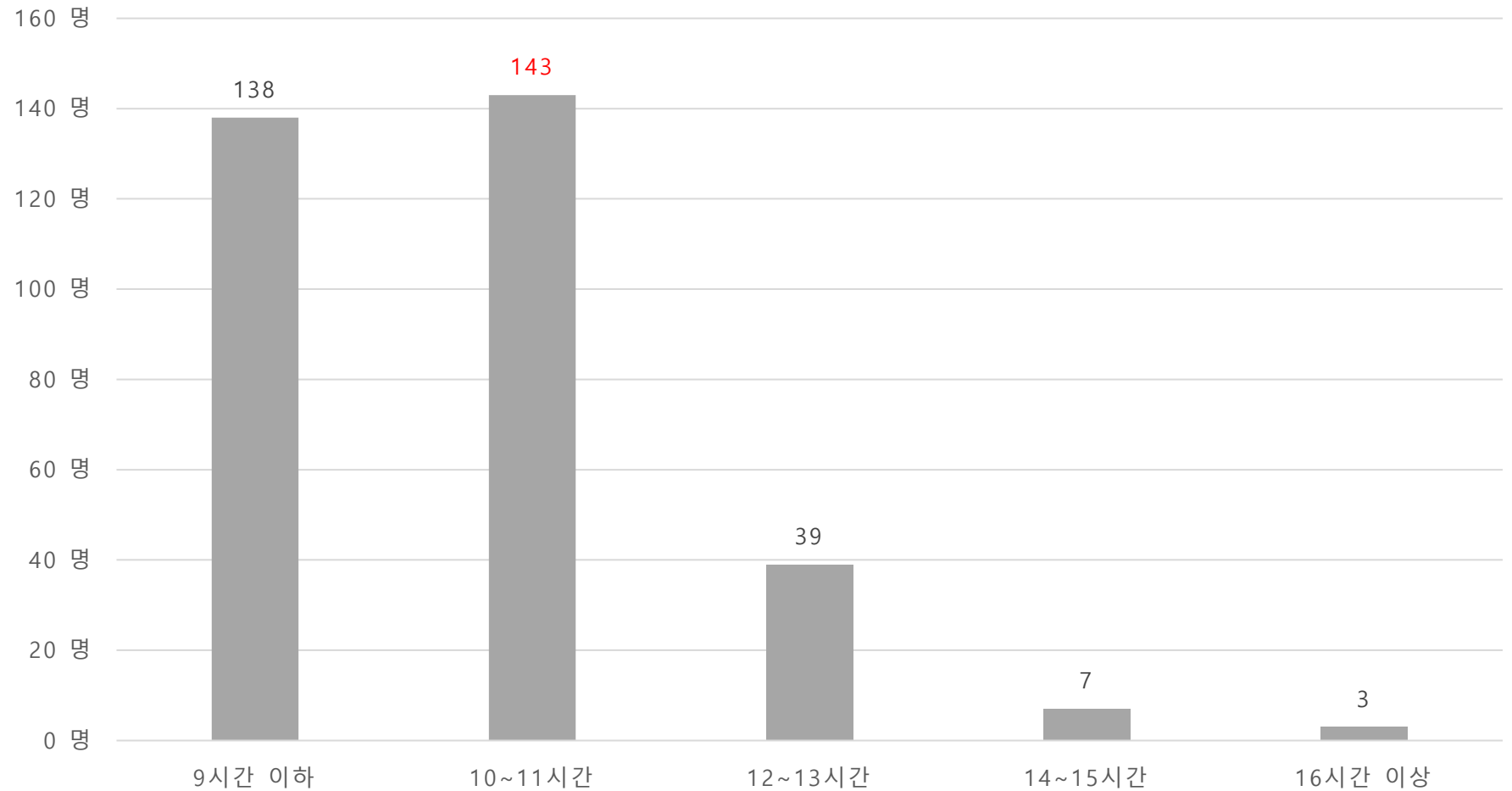
- '주중(월~금)' 기준 하루 평균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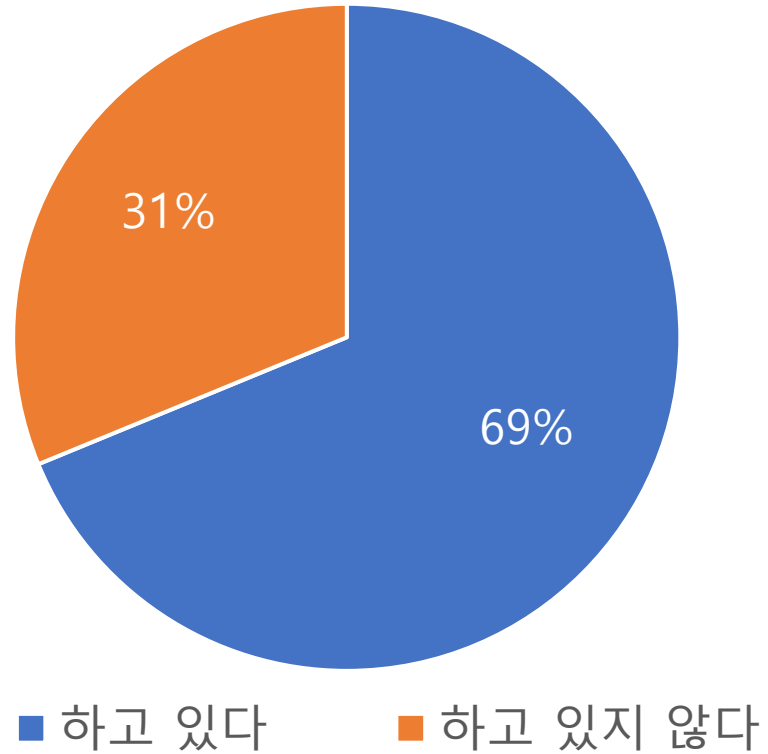
- 현재 주말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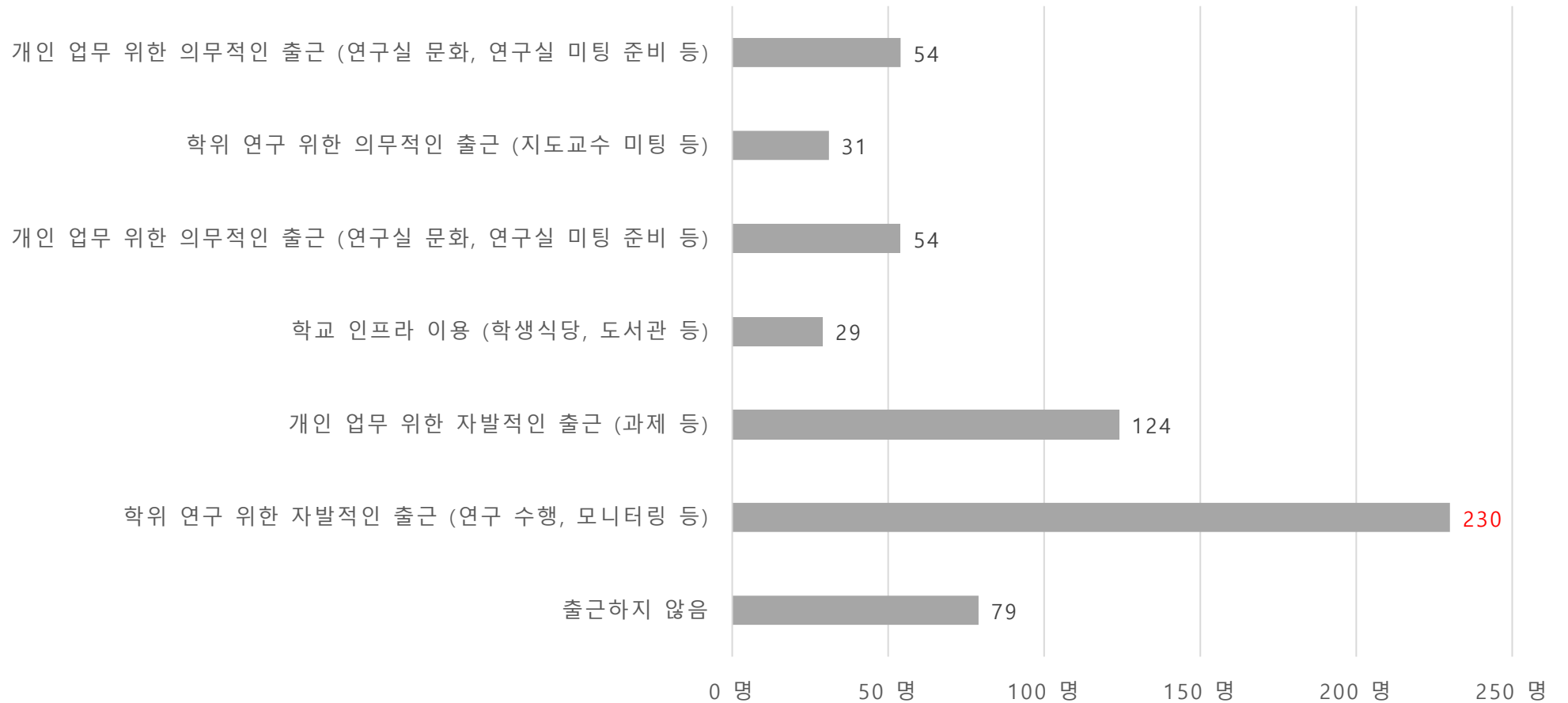
- '주말(토~일) 및 공휴일'에 연구실로 출근을 한다면, 주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능]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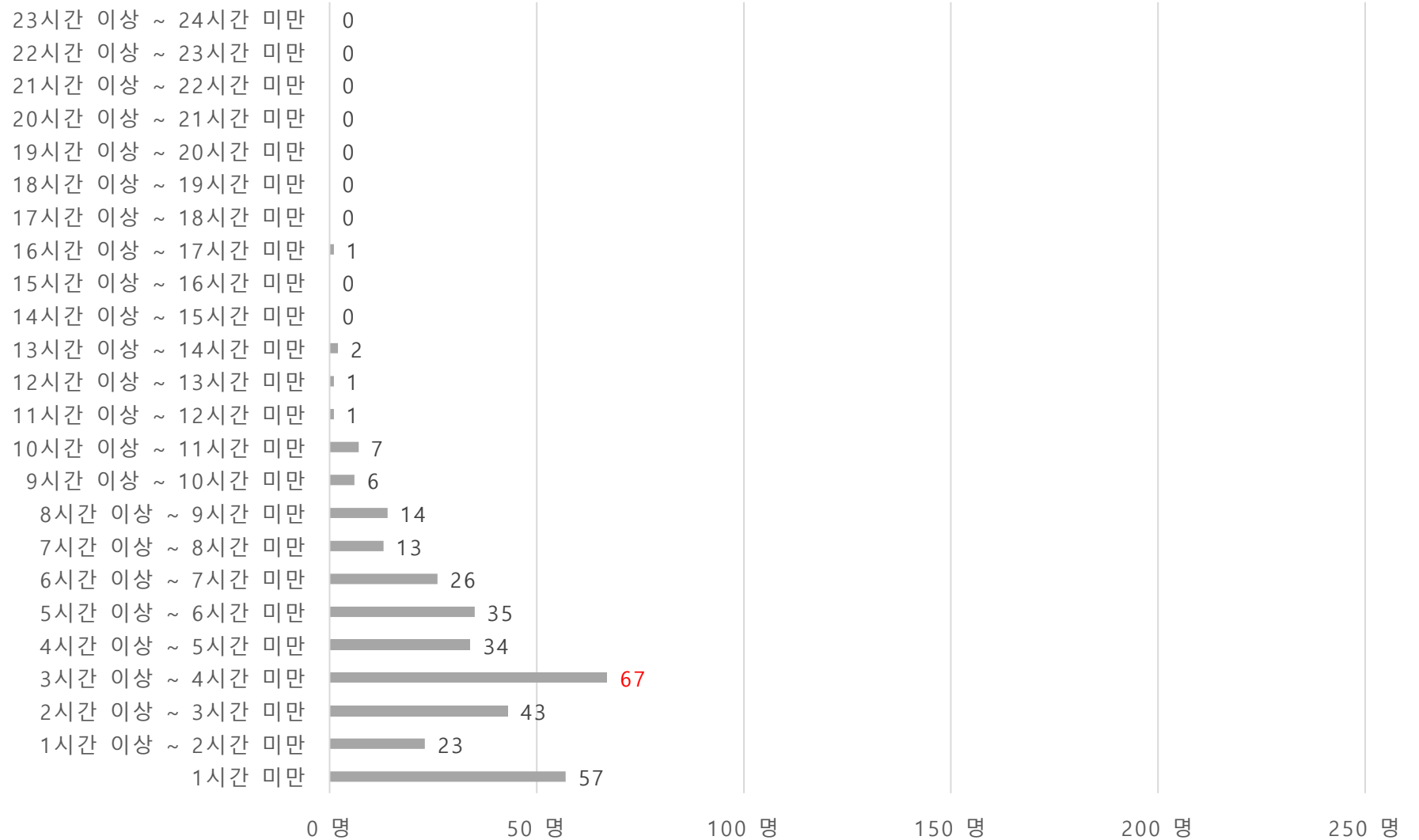
- '주말(토~일) 및 공휴일' 기준 하루 평균 "학위 연구"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1시간]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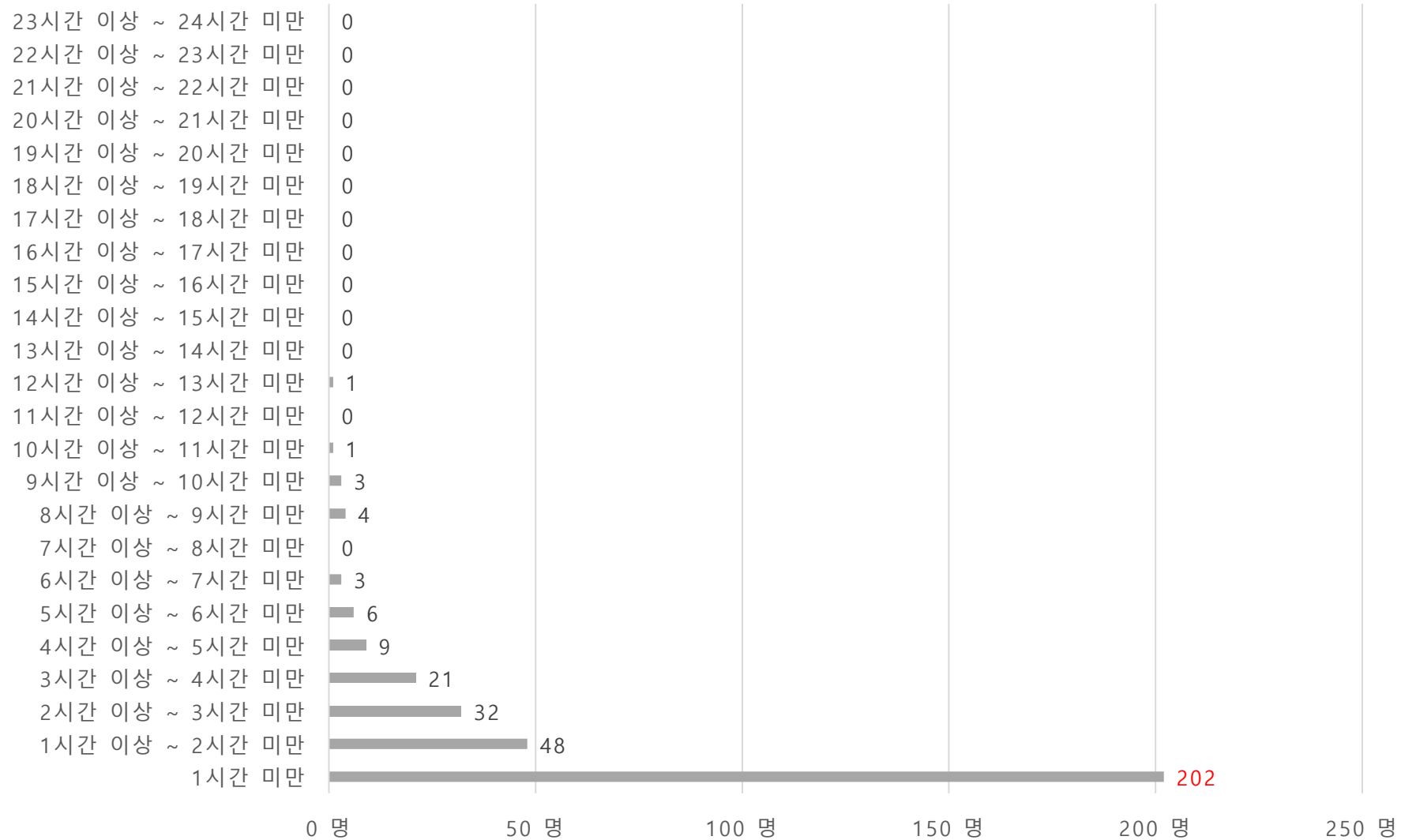
- '주말(토~일) 및 공휴일' 기준 하루 평균 "학위 연구 외 업무 수행"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1시간]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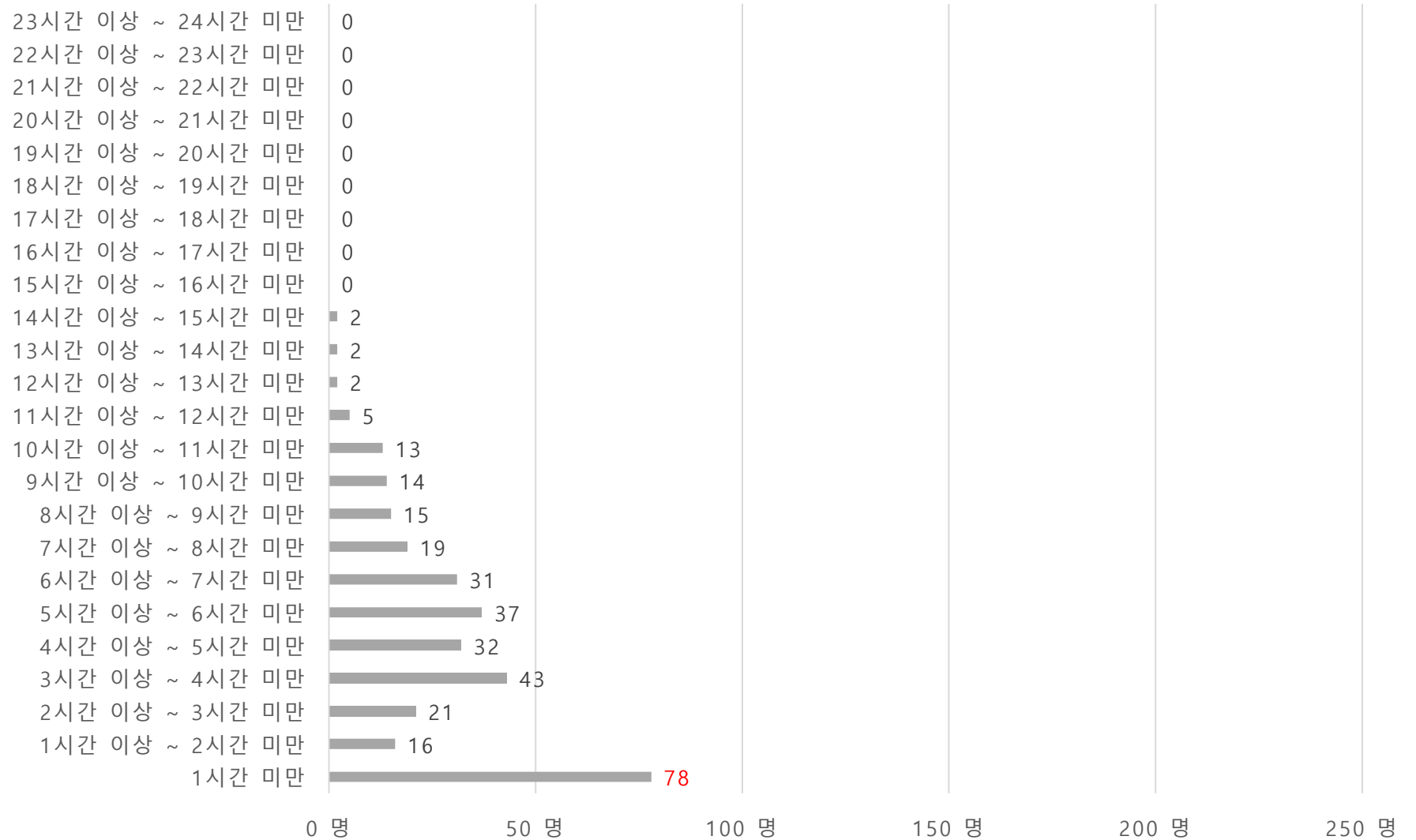
- '주말(토~일) 및 공휴일' 기준 하루 평균 연구실에 머무는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1시간]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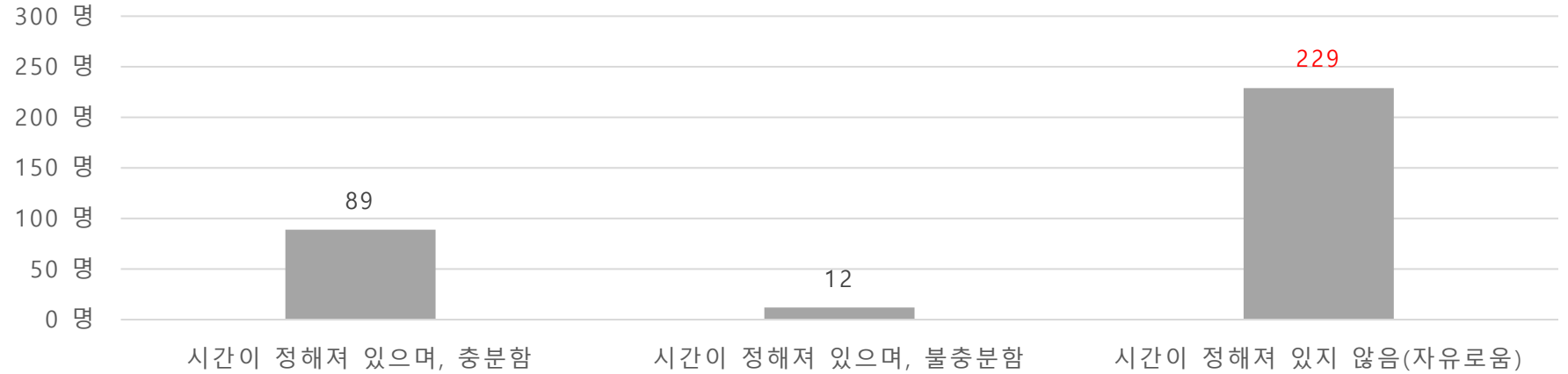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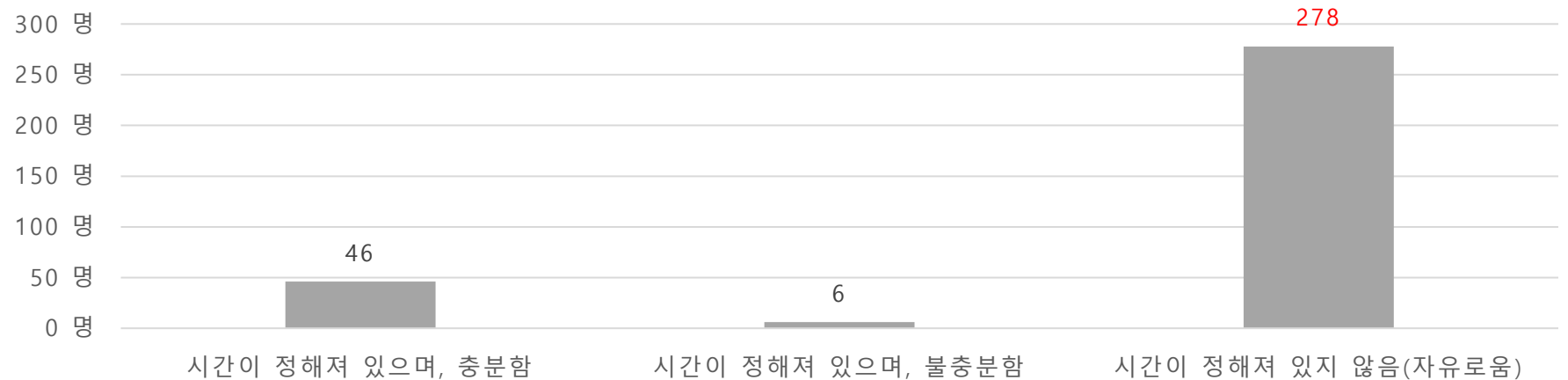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연구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다면, 시간은 충분한가요? [점심 식사]



- 연구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다면, 시간은 충분한가요? [저녁 식사]



연구 활동 시간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선택 사항, 주관식 응답]

-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및 학위 연구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불만 없음 (7명)
- 자유로운 출근시간 희망 (5명)
 - 본인 연구에 한함
 - 자율적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방식 선호
-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4명)
 - 과제 종료일 시즌, 연말 서류 처리 기간에는 개인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행정 업무가 많음. 개인 연구를 진행하려면 행정 업무를 강제로 쉴 수밖에 없는 주말에 출근할 수밖에 없음.
 - 특히 학과사무실에서 랩 매니저에게 업무요청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학위 연구 외 업무수행 시간이 과중함.
 - 연구 외 업무가 생각보다 많아, 행정실 직원을 늘리거나 각 연구실 별로 보조 인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행정작업 관련하여 물품 구매 시 서류를 종이로 인쇄하고 검수 받는 작업들이 매우 번거로움. 검수 받으러 행정동 이동 시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함. 1차 검수 완료 후 2차 검수자 서명, 최종적으로 교수님 서명을 받고 학부 행정실에 제출하러 가는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집중을 매우 분산시킴. 중앙기기연구센터에 서류를 처리하러 갈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낭비가 더 증가함.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시급해 보임.
- 과도한 연구 업무 부담 (4명)
 - 주말에 출근하고 있지 않으나, 교수에 의한 업무 강요로 인해 자택에서 업무를 하는 시간이 과다함
 - 12시간 일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문화가 피곤함
 -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 토요일 오후 랩미팅을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부분을 만류해 주면 좋겠음
 - Although I am spending a lot of time in the research, I feel I still cannot fulfill the requirements.

연구 활동 시간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선택 사항, 주관식 응답]

- 본인 연구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 (3명)
 - 연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만큼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에게 결과가 돌아옴.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전부 수행했다면 연구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연구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만큼 매일 새로운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실에 더 오래 있는 사람이 성공하며, 연구시간을 정해서 채운 시간만큼 연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됨.
- 학위논문 연구보다 연구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는 환경 변화 필요 (3명)
 - 과제 수행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함. 학생들의 연구 집중을 위해서라도 연구담당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교수님들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업무를 위임함
 - 학위연구를 위한 연구하기가 쉽지 않음. 아무래도 과제가 우선하여 진행됨.
 - 하고 싶은 연구와 연구실에서 수행중인 과제들에 의한 압(pressure)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힘듦.
-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활동비가 있었으면 좋겠음. 기본 생활비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활동하기 어려움
- 연구실 별 교수님의 재량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구실 사정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오히려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음
- 설문을 묻기만 묻고 대답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
- 사람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준도 모르겠고 예전엔 이게 맞다고 해서 따랐는데 지났더니 이건 불합리하다 하고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돈도 그에 합당하게 지급하면 좋을 것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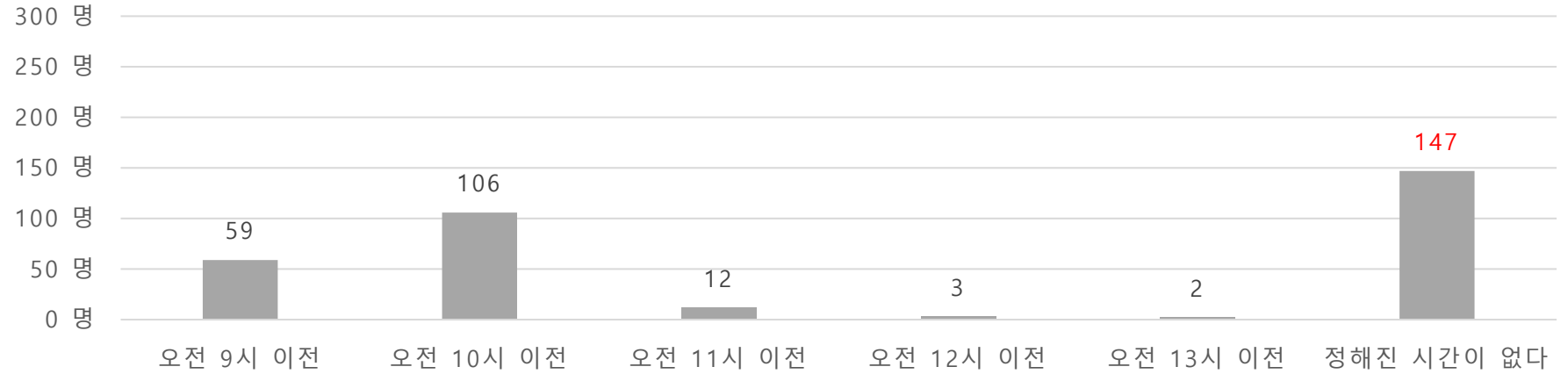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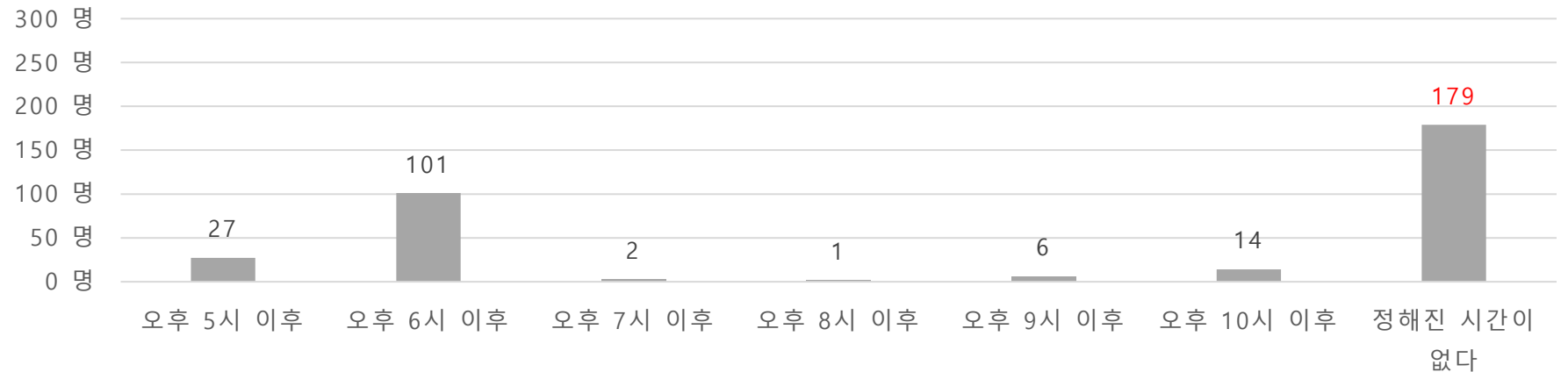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정해진 연구실 입실시간이 있습니까?



• 정해진 연구실 퇴실시간이 있습니까?



기타 연구실 입실/퇴실 시간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관식)

- 자율 입/퇴실 희망 (24명)
 - 업무 능률 향상 (4명)
 - 연구와 업무와 같은 일이 항상 일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 (2명)
 - 하루 할당시간 내 주어진 연구 수행 희망
 - 점심 이후 출근, 저녁 이후 퇴근
 - At least 8 hours/day
 -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 조성
 - 연구실 분위기가 흐으려 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에 입/퇴실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도 중요함.
 - 최저시급이 없다면, 연구실 입실/퇴실 시간 또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현재 대학원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개념으로 취급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4대 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으며 수익 또한 기타소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노동자로서 각종 혜택과 보호를 받고 있지 않으니,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함.
- 현재 입/퇴실 자유로움 (2명)
- 규칙적 입 / 퇴실 시간 선호 (2명)
- 현 상황에 만족함 (2명)
 - 입/퇴실 시간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출퇴근 가능
 -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서 30분 정도 유동성 있게 출퇴근 가능함.
- 학생 연구 노동 시간 보호 요청

기타 연구실 입실/퇴실 시간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관식)

- 정해져 있지만 개인적인 긴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가능
- 규정해도 연구실 구성원이 눈치주면 쓸데없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쓸모없음.
- 최저시급 기준으로 인건비 이상의 연구실 의무 근무 시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엄격하게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자율에 맡기되 일반적인 수준의 입실 퇴실 시간이 지켜지기 선호. 예시 9~10시사이 자유로운 출근, 6~7시 자유로운 퇴근
- 대학원생을 연구원처럼 대할지 학생처럼 대할지 규정 희망
- 정해져 있는 입/퇴실 시간이 실제와 다름
- 각 연구실의 문화, 사정 등에 의존적인 문제라서 큰 의식이 없음
- 연구분야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야 하나, 대학원생은 연구실 업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
- 일찍 와서 늦게 갈수록 본인에게 이득 됨
- 현 연구실이 13시~18시 정도 시간은 나와있음.
- 근무시간 감소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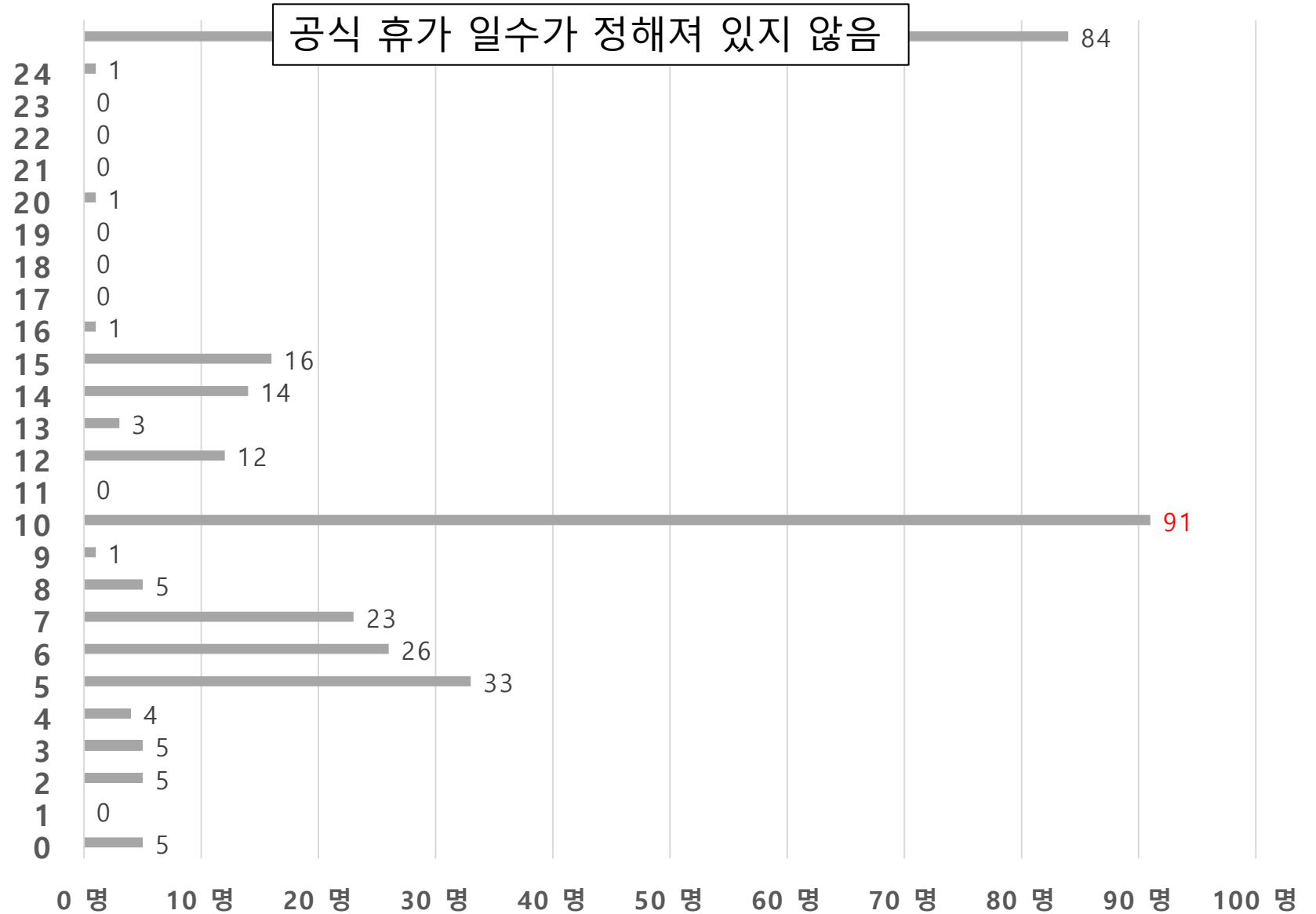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연구실에서 1년 기준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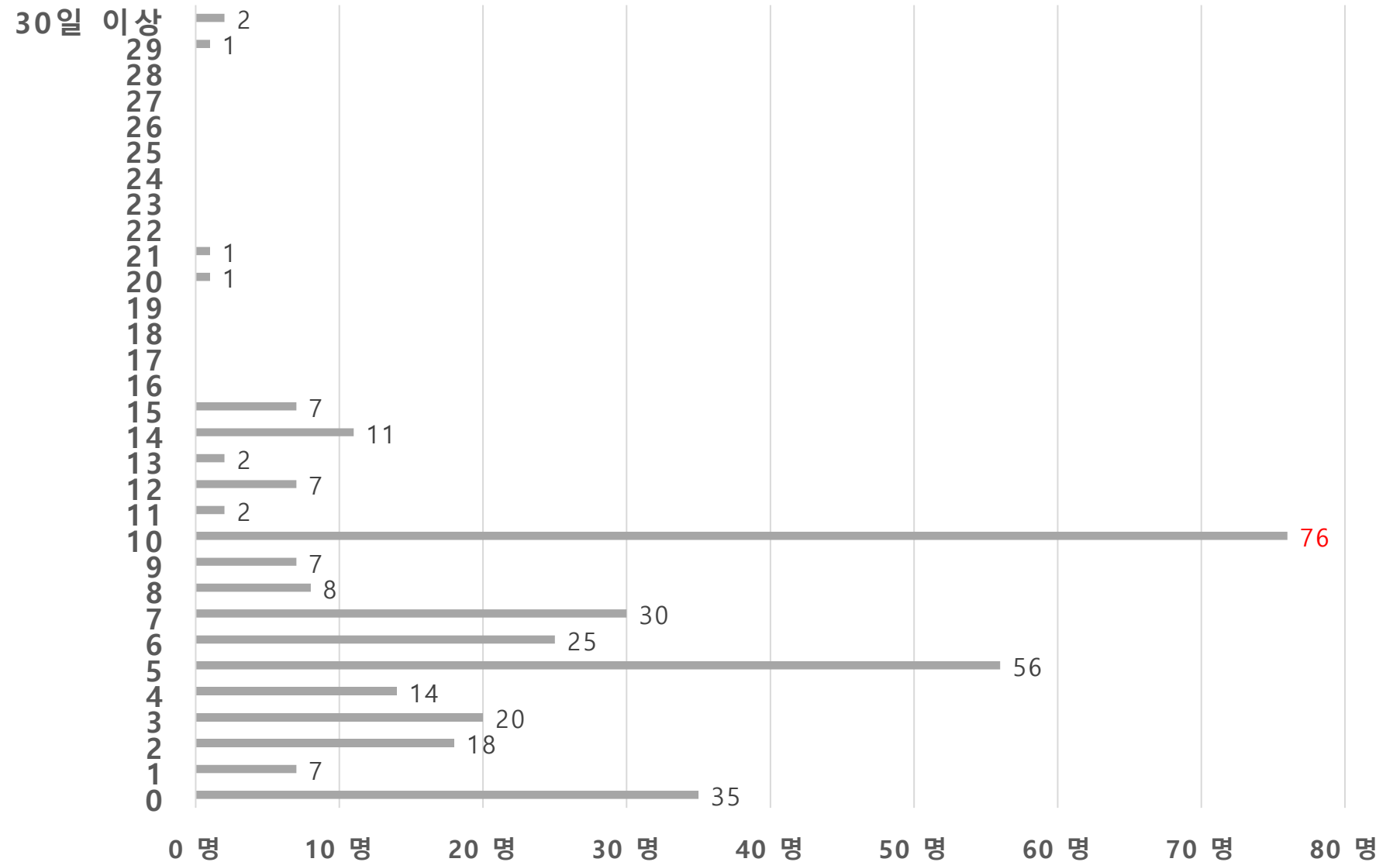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사용하신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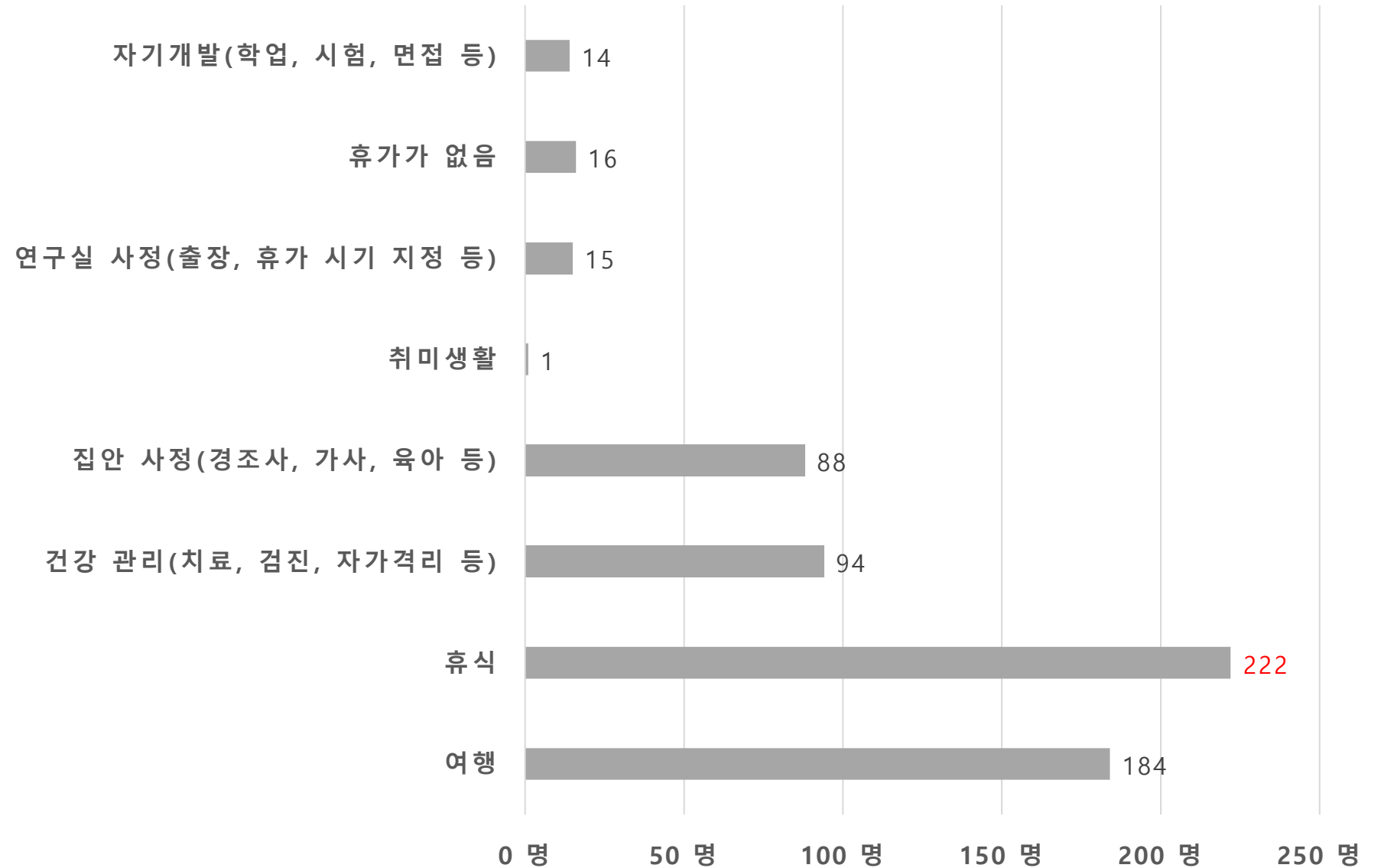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휴가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나요?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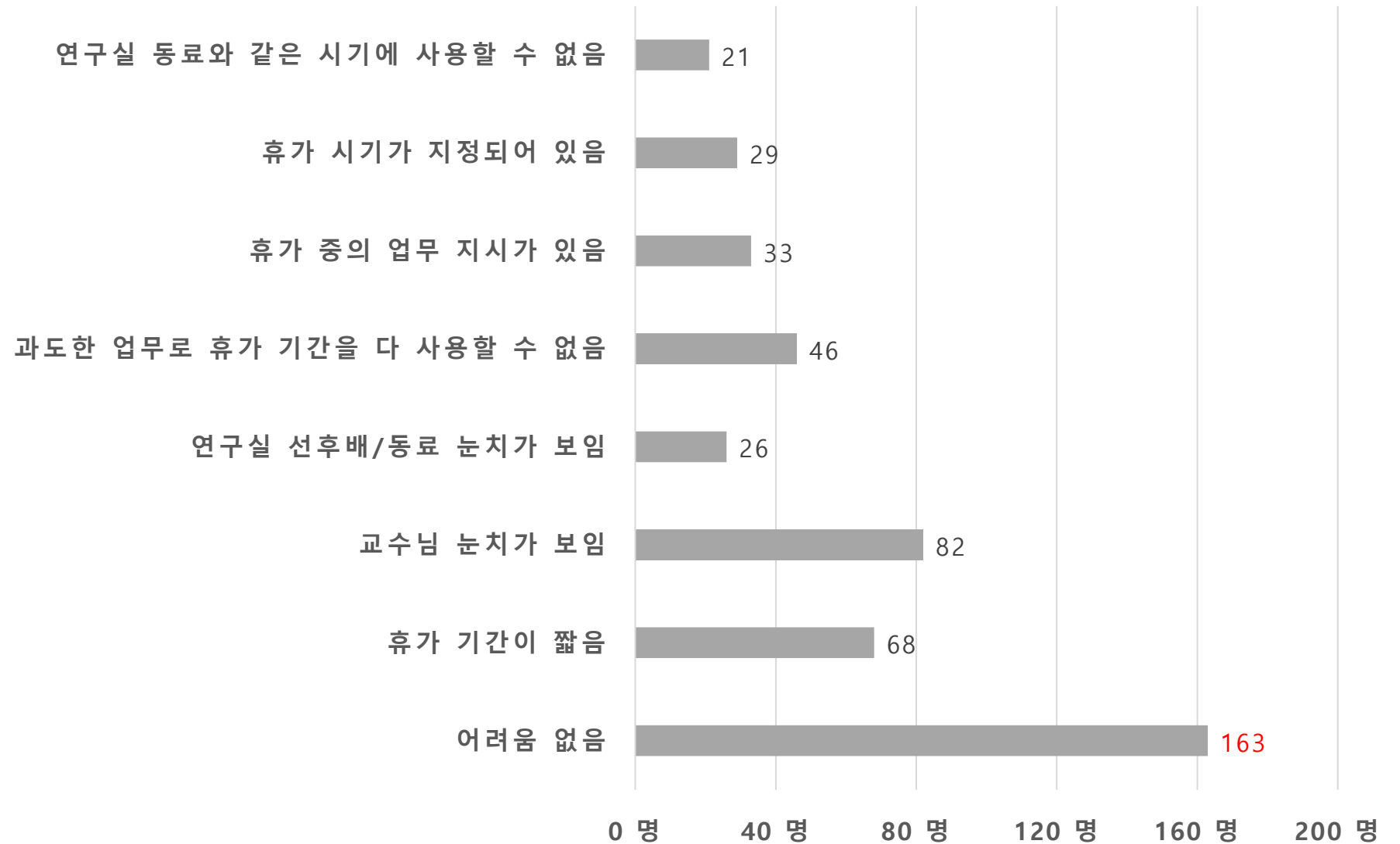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휴가를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능]



연구수행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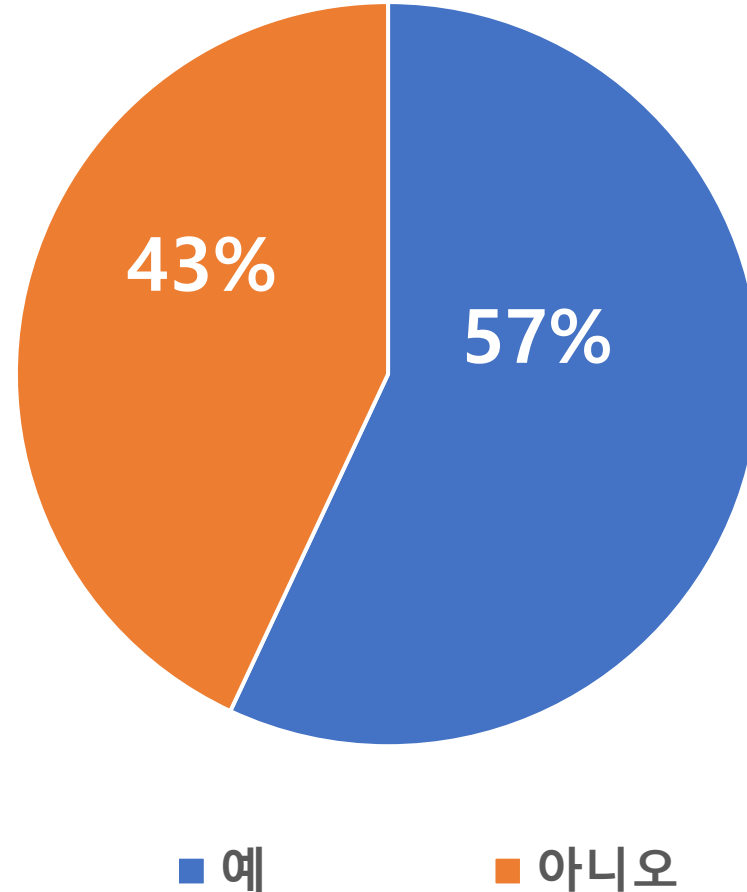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현재 휴가일수에 만족하시나요?



- 희망하는 휴가 일수는 며칠입니까?
 - 평균: 13.3일

연구수행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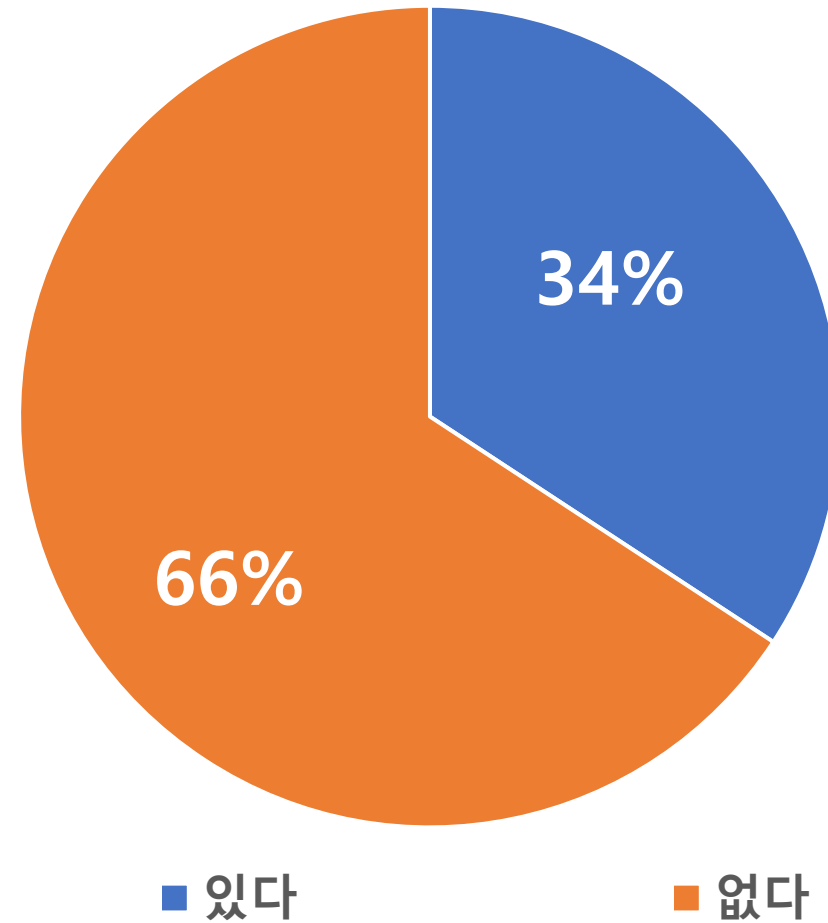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휴가 중에 업무 지시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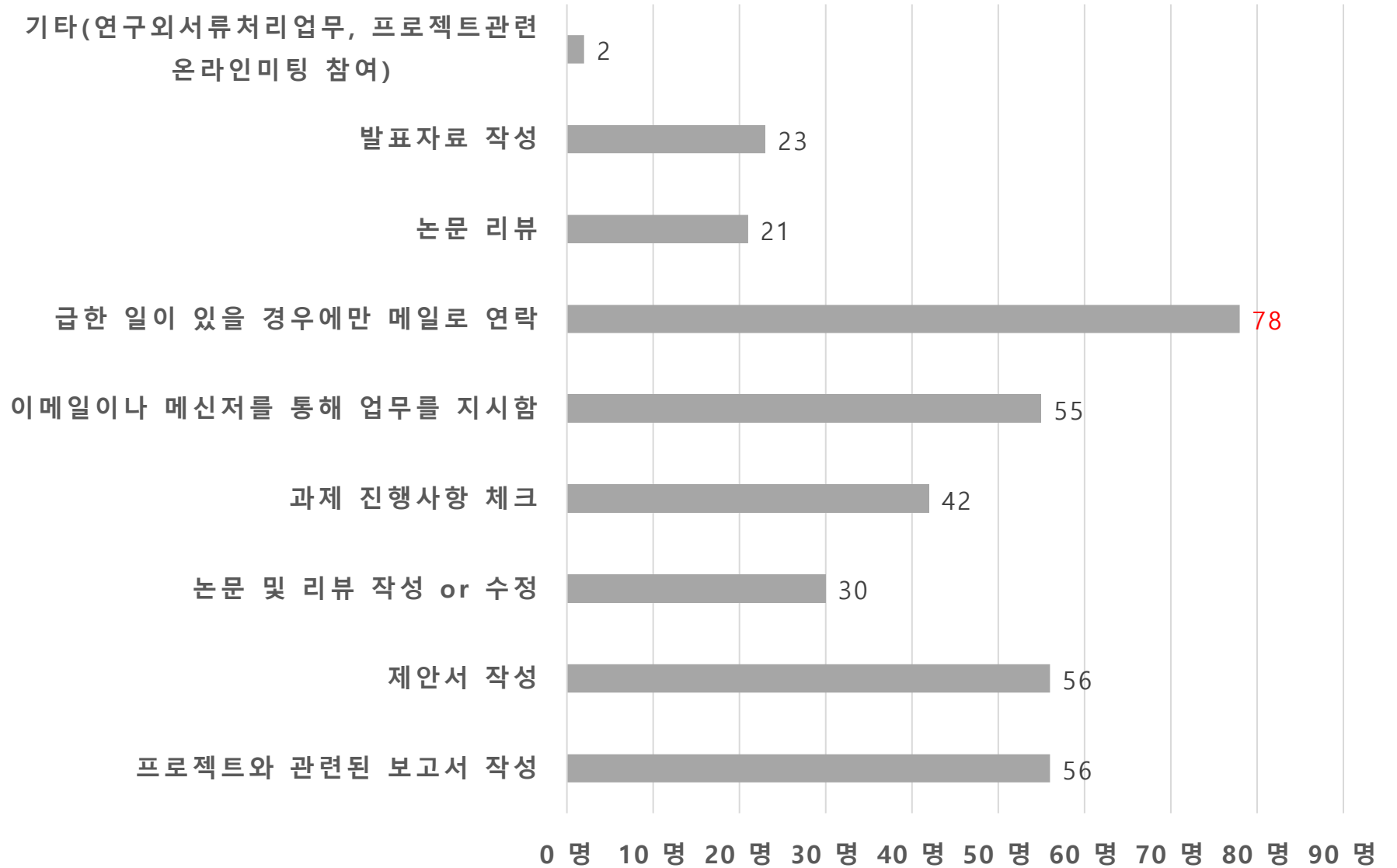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업무지시가 있다면) 어떠한 사례인지 작성해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휴가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만족, 좋음, 없음, 무응답 제외)

- GIST 대학원생 휴가일수 규칙 제정 (52명)
 - 연 15일 (6명)
 - 연 10일 (4명)
 - 연구실 교수님 재량 아님 (2명)
 - 연 14일 (2명)
- 휴가 사용 분위기 조성 및 장려제도 도입 (24명)
 - 눈치 안보는 휴가 사용 (9명)
 - 지도교수님의 인식 개선 필요 (5명)
 - 교수님은 본인 연구실의 휴가 일수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함. 실제 조사결과는 평균 이하이지만 납득하지 않으심. 학교 차원에서 최소 휴가 일수에 대한 강력한 권고 필요
 - 미사용 휴가 환급 제도 (3명)
 - 교수님 승인 없는 휴가 사용 (2명)
 - 이유를 묻지 않는 휴가사용 (2명)
 - 수직적인 연구실 문화 개선
- 휴가 시스템 전산화 (16명)
 - 교직원, 연구원과 비슷한 형태로 포털 이용
 - 휴가 기간 타인에게 비공개
 - 지도교수님이 아닌 학교에 신청

휴가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만족, 좋음, 없음, 무응답 제외)

- 자율적 휴가 기간 설정 (10명)
 - 지정된 날짜가 아닌 원하는 날짜 (7명)
 - 한 번에 길게 갈 수 있는 휴가
 - 학기 중 (봄, 가을) 휴가 사용
- 휴가 의무 사용제도 도입 (9명)
 - 교수님들이 제도 미 준수 시 페널티 부여.
- 충분한 휴가 일수 보장 요청 (9명)
 - 주말 제외 휴가 일수 보장 요청 (2명)
 - 외국인 학생 충분한 휴가 일수 보장 요청 (2명)
 - 연 4주
 - 일반 학생도 휴가 기간을 전문요원연구원 수준으로 늘려 주길 희망
- 휴가 중 업무지시 금지 (4명)
- 휴가가 없으며 휴가 희망 (3명)
-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함 (2명)
-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
- 특정 기간을 휴가 주로 만들어 기간 내 사용 가능 환경 조성. 예시 7월 2주 ~ 8월 3째 주
- 휴가는 자유롭게 눈치는 봐야 함
- 중요한 문제가 아님.

연구 수행 환경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선택 사항, 주관식 응답] (만족, 좋음, 없음, 무응답 제외)

- 휴가 및 휴식 보장 (7명)
 - 군인과 같은 최소 15일
 - 주말 동안 업무 강요 금지
 - 대학원생 최저 월급이 정해진 것처럼 학교 제도 차원에서 최소 휴가가 보장 필요
- 외국인이 많은 연구실은 한국인 학생 행정일 과다함.
- 지도교수의 감정을 살피 생활해야 함.
- 노동시간 보장
- 더 많은 트레이닝 필요 (영어 답변)
- 연구 수행 환경은 연구실 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 의미 없음. 설문조사에서는 연구 수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가 시설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의미 있음. 연구 수행 환경을 방해하는 것이 학생들의 과도한 연구 외적인 업무부담, 식당과 기숙사 등 개인 공간이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데 있음. 특히 기숙사는 개인공간임에도 간헐적으로 강제 개방으로 스트레스를 줌. 학교는 학생들의 인간 존엄성보다 교직원들의 편한 일처리를 훨씬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정말로 학생들이 연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편한 일처리를 위해 일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태도부터 고쳐야 함. 학생 한 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순간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줄고 연구 수행 환경이 자연스럽게 개선됨.

연구수행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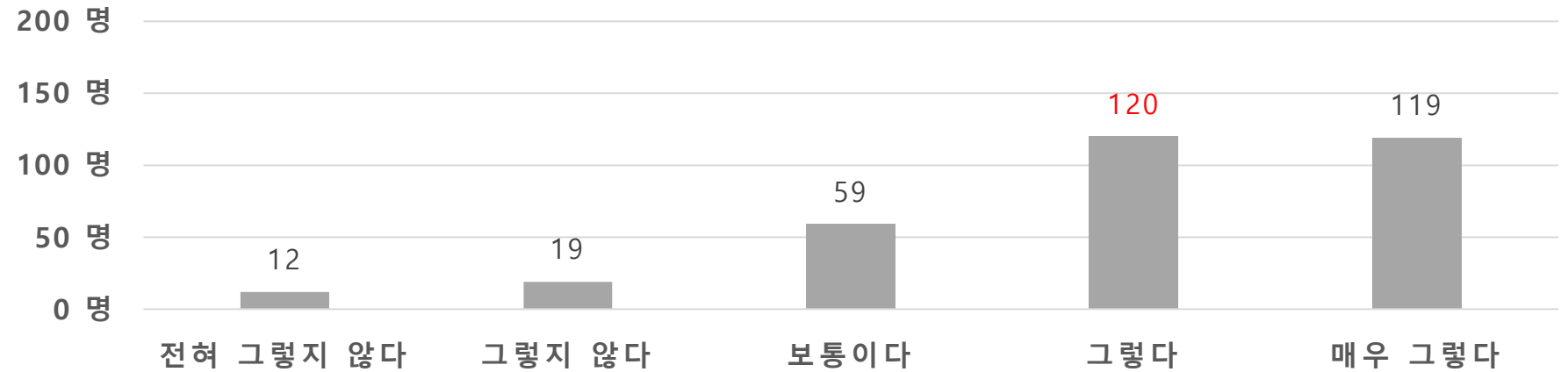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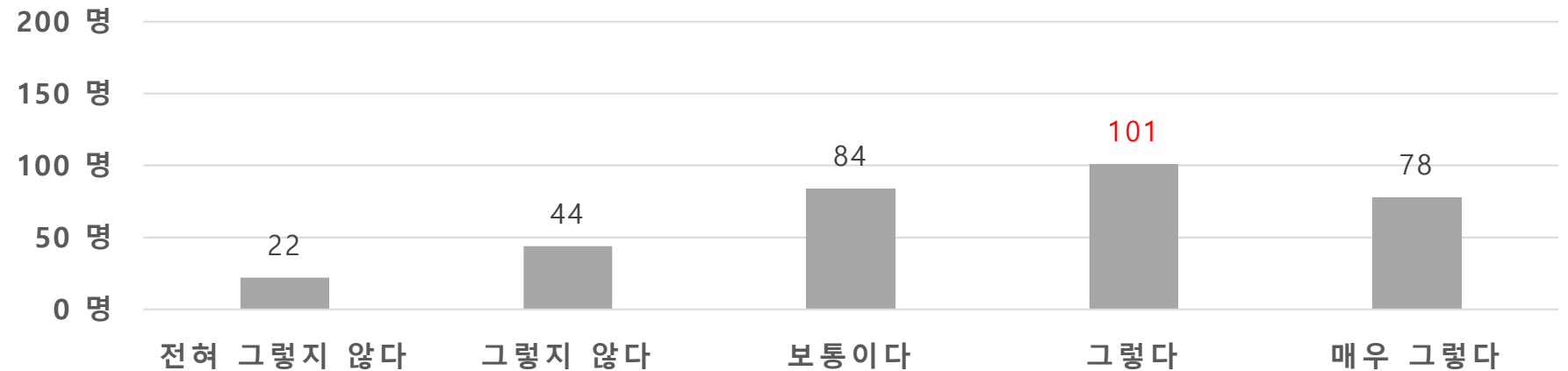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다음의 연구실 건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냉난방]



• 다음의 연구실 건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환기]



연구수행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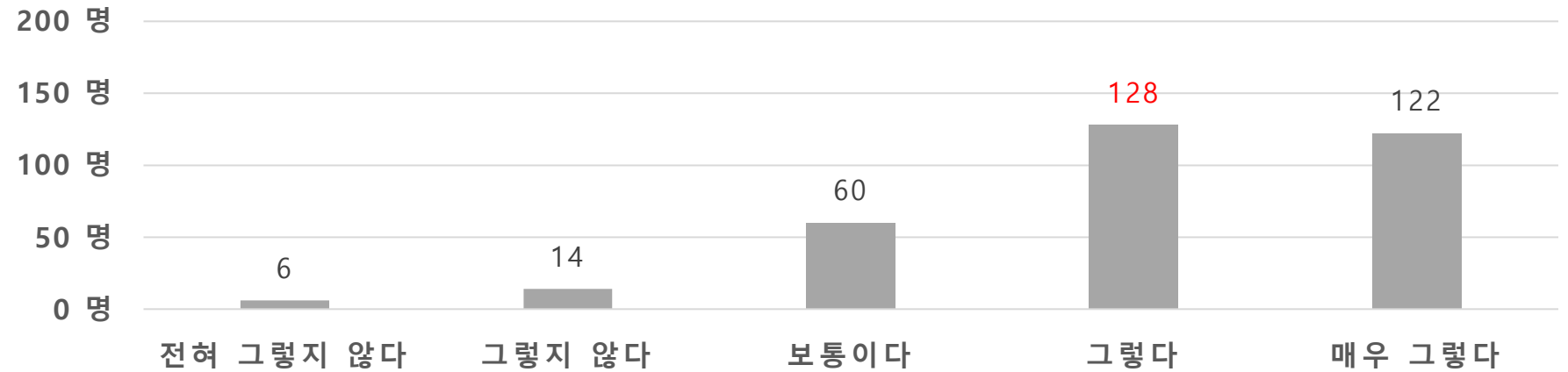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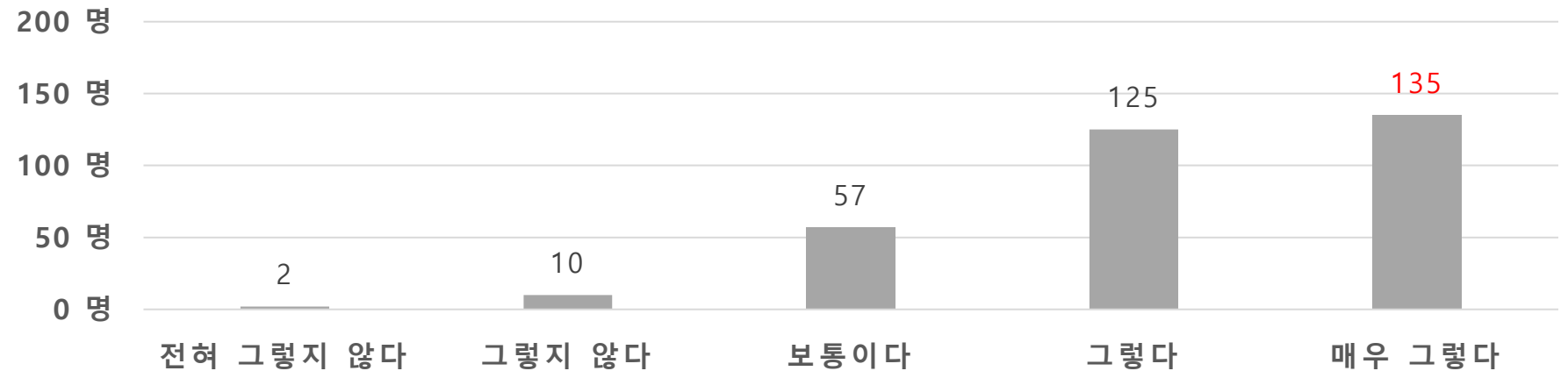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다음의 연구실 건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조명]



• 다음의 연구실 건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안전/치안]



연구수행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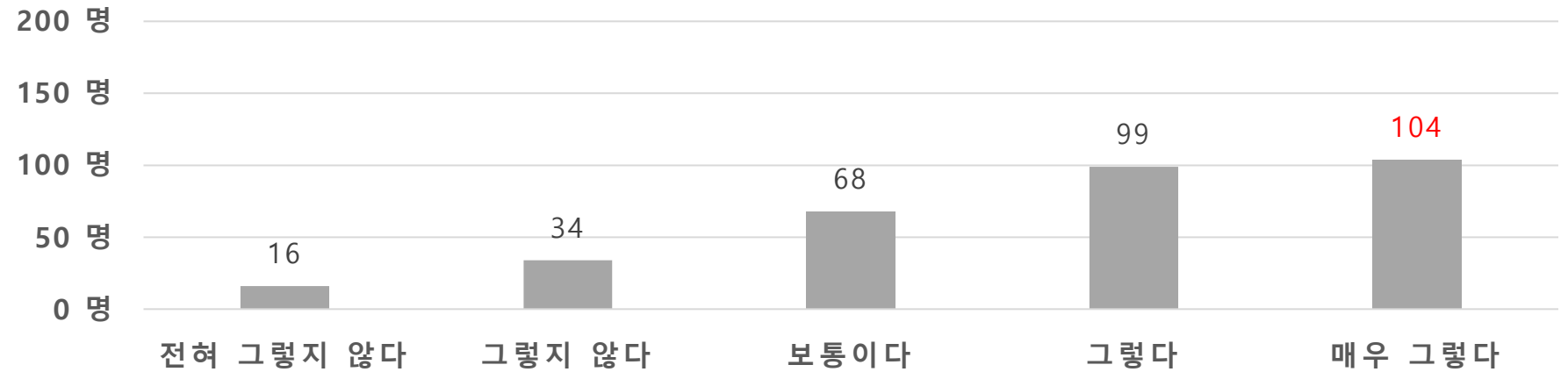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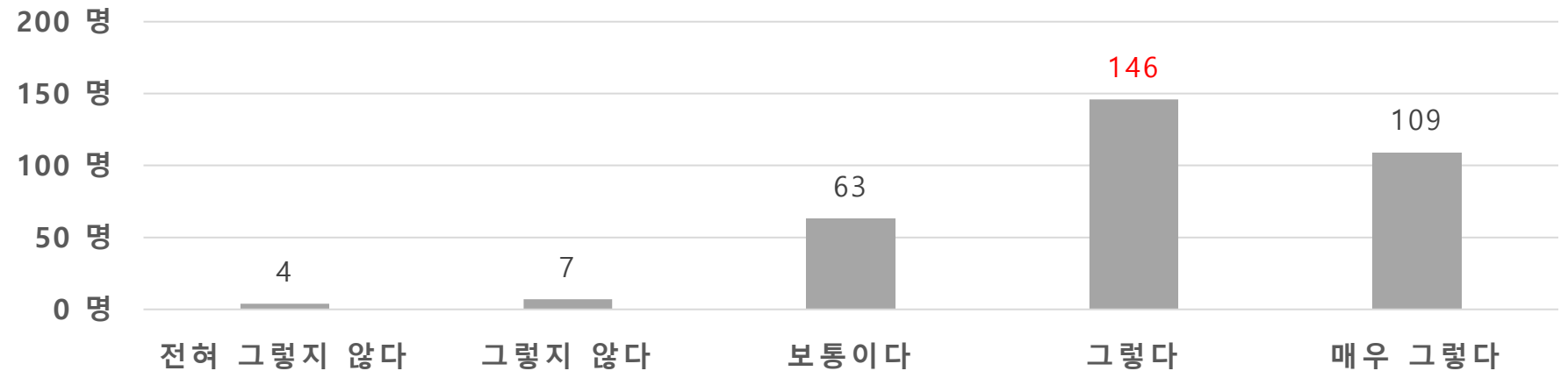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다음의 연구실 건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주차 공간]



• 다음의 연구실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실험 장비]



연구수행 환경

1. 연구 및 업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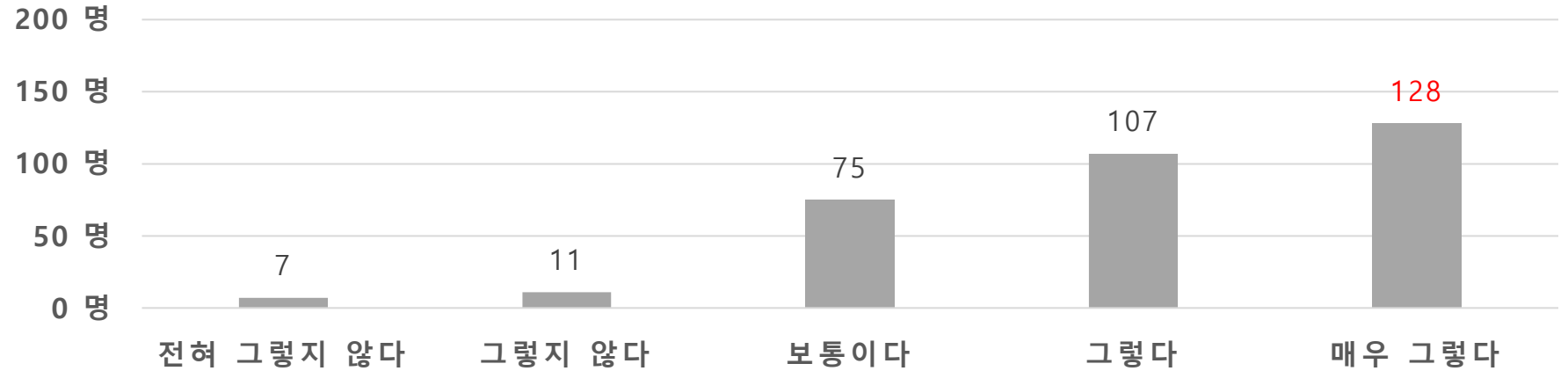
2. 휴가

3. 기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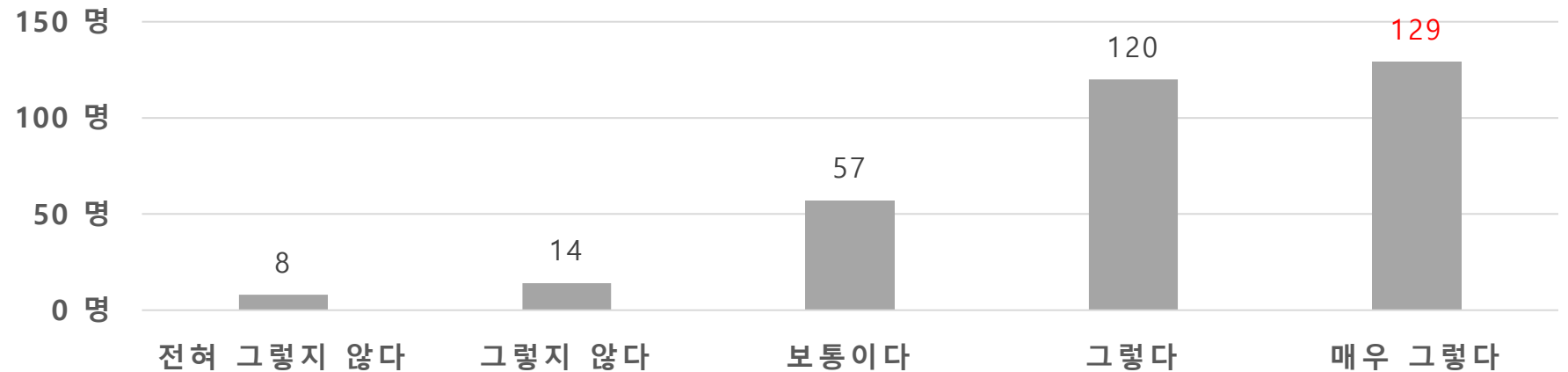
4. 조직문화

• 다음의 연구실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사무용 전자 기기(컴퓨터, 프린터기 등)]



• 다음의 연구실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사무 기구(책상, 의자 등)]



연구수행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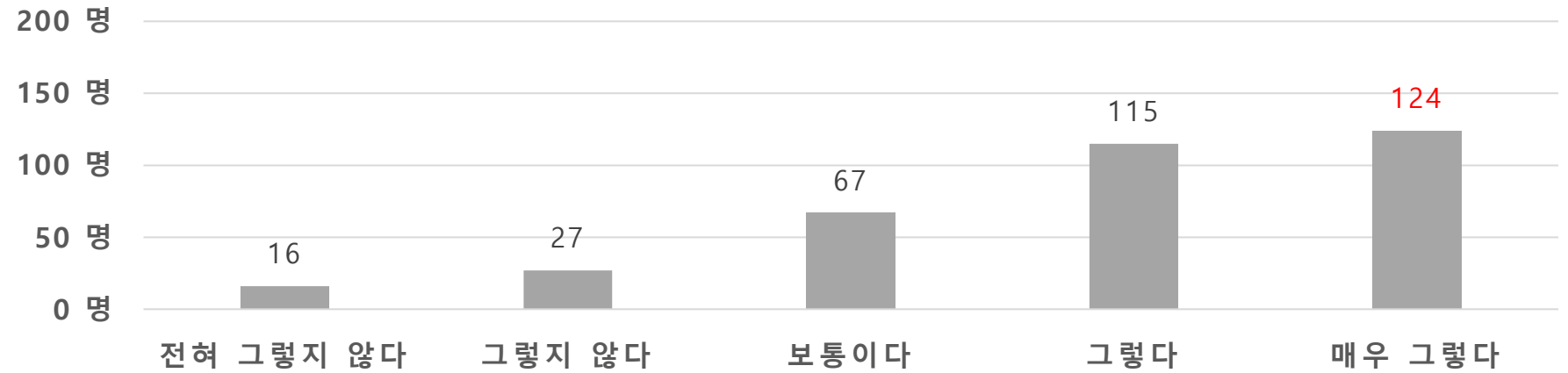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다음의 연구실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개인 활용 공간(크기 등)]



연구 기반 시설에 관련된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만족, 좋음, 없음, 무응답 제외)

- 연구실(실험실, 사무실) 공간 부족 (15명)
 - 학생들이 비좁게 배치 되어 있음. 리모델링 비용은 10년이 지나야 지급하는데, 유동성 필요. 건물 설립은 오래되었는데 리모델링을 10년 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됨. 10 후 리모델링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전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음.
 - 실험하는 연구실 공간이 좁음. 학생 수용 공간 부족. 내년 신입생 및 포닥이 이용할 공동연구실도 현재 공간이 없어 어려움
 - 연구실 공간 부족. 가상현실(VR) 공간의 경우 장비를 채우는 공간이 아닌 실내의 공터 같은 빈 공간이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항상 빈 공간을 찾아 돌아다녀야 함.
 - 7명 당 몇 평과 같이 연구실 내 학부연구생 포함 인원 규모가 일정 이상이 되면 공간을 더 많이 배정하길 희망함. 현재 연구실에는 좁은 공간에 학생 책상 여러 개가 비좁게 붙어있어서 공기가 쾌적하지 않고 덥고 불편함.
 - 실험실 공간과 오피스 공간을 구분하여 교수님들께 공간을 할당 필요. 인원이 많아지면 오피스와 실험실 공간을 합쳐서 배정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 부족함
 - 연구실 내 개인 공간 영역 확보 필요.
 - 보행 실험 가능한 넓고 긴 장소 필요
 - 학생 개인당 작은 전용면적 책정 개선 필요
 - 교수님께 배정되는 연구실 공간 크기는 실험실만 결정하고 대학원생 개인 연구공간은 인원수 비례해서 지급되었으면 함. 인원수 증가 시 연구실 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 공간 부족 발생
 - 어떤 연구실은 공간이 남고 다른 연구실은 부족함. 합리적 공간조율 여건 마련 요청.

연구 기반 시설에 관련된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만족, 좋음, 없음, 무응답 제외)

- 학생 개인 모니터 및 pc지원 필요 (6명)
 - 연구실 입학 시 사비로 구매
 - 사무용 전자기기의 경우 전체 학생이 개인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음. 업무에 필요한 전자기기는 학교 혹은 연구실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연구를 위한 전자기기 제공 희망
- 건물 노후화 개선 요청 (4명)
 - 신소재공학동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여름에 실험실 냉방이 힘들며, 천장 누수 발생.
 - 개별 연구실 차원이 아닌 GIST 차원의 점진적 리모델링 필요. 신축 건물 건설 등 사업으로 외실을 다지기 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함. 신축 건물 굿즈 샵과 용도를 모르는 현재 건축 예정인 건물은 내부인 활용도가 낮음. 그 예산으로 점진적 리모델링 부탁.
 - 다산빌딩 수준 건물 요청
- 지하주차장 혹은 차양 막 설치 요청(3명)
 - 비나 눈,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천막이나 가림막 시설 요청
 - 폭설이 내리는 등 도로가 얼어서 위험할 것 같은 경우 학생들이 출퇴근이 힘들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차 위에 눈이 쌓이지 않아서 치우는 시간도 단축되고 학생 출퇴근이 용이함.
- 실험실과 사무실 분리 필요 (3명)
- 주차공간 부족 해결 (2명)
 - 다산빌딩 인원 대비 주차공간 협소함. 차세대에너지연구동 주변 건물의 후문이 가깝다는 이유로 다산빌딩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 다산빌딩에 근무인원들은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해야함.

연구 기반 시설에 관련된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만족, 좋음, 없음, 무응답 제외)

- 휴게실 공간 확대 필요 (2명)
- 건물의 환기(후드) 시스템을 강화 (2명)
 - 연구실 창문 바로 앞에 실외기가 있어 환기가 원활하지 않음
- 공용 장비 규모 및 성능 부족에 따른 타 학교의 장비를 활용.
- LabVIEW, Matlab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지원
- 자유로운 주제 선정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실험 장비를 다른 장소에서 사용해야 경우가 빈번함
- 중앙연구기기센터 활용 빈도 높은 장비 구축
-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 필요
- 신재생에너지연구동 냉난방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단일 창 설계로 인해 외풍이 들어와 냉난방 효율이 낮음
- 연구비가 없어서 필요한 물품 구매 어려움.
- 냉난방기 수리 필요.
- 건물 천장 석고보드인 것이 학생들 건강에 좋지 않음
- 공간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수 전용 주차장 대신 교수 이름 지정제 도입 희망.
- 외국인 학생들의 시설 청결 사용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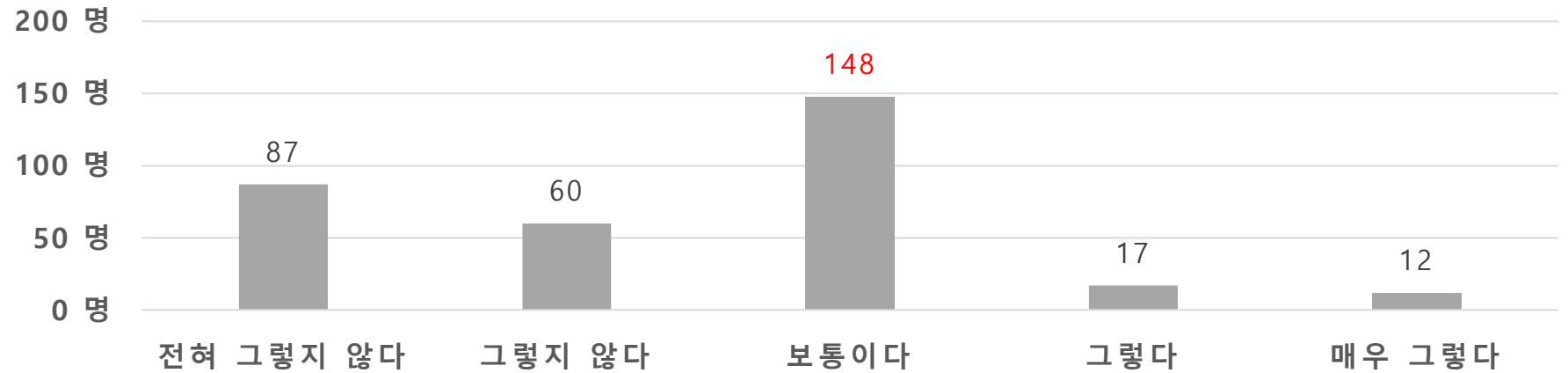
연구 기반 시설에 관련된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만족, 좋음, 없음, 무응답 제외)

- 냉방 온도 제한의 효용성이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음. 연구를 수행하는 학교에서 연구실이나 기숙사의 냉방을 우선적으로 쾌적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다른 곳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순서인데 여기는 반대로 되었다고 생각함.
- 서버실 증설 필요
- 여름철 실외기와 에어컨 거리가 멀어서 효율이 낮기 때문에 더움. 건물 외관 실외기 설치가 가능하다면 효율 상승가능 하지만, 외관때문에 한쪽에만 실외기 놓아 두어서 더움.
- 교수님과 상관없이 GIST에서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연구기반 시설 지원 필요
- 장비가 노후화 교체 필요
- 복도 CCTV 설치 희망
- 정부기관 제약으로 연구 기반 시설 조성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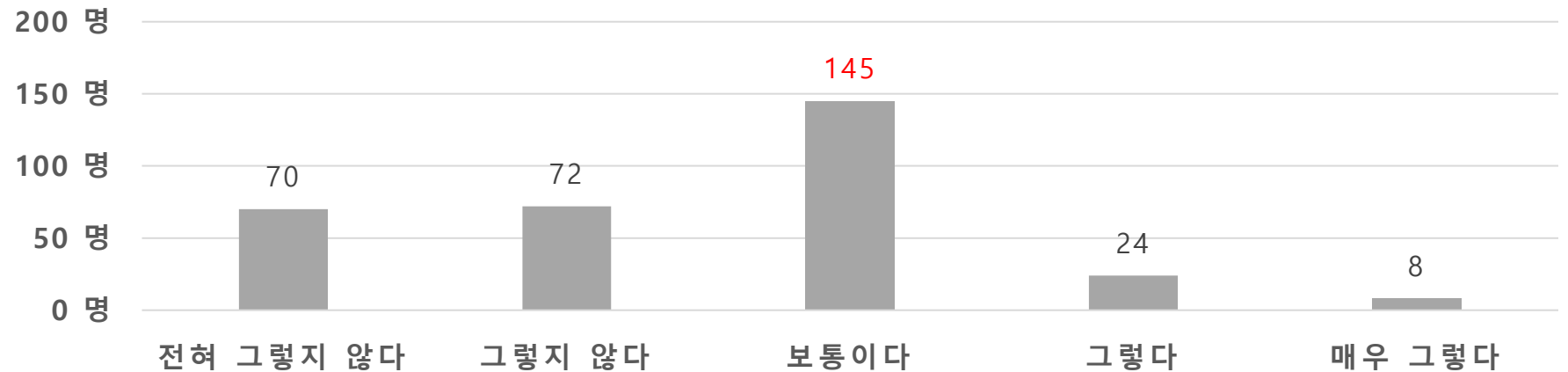
연구수행 환경

- 1. 연구 및 업무 시간
- 2. 휴가
- 3. 기반 시설
- 4. 조직문화

• 소속된 연구실의 일상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나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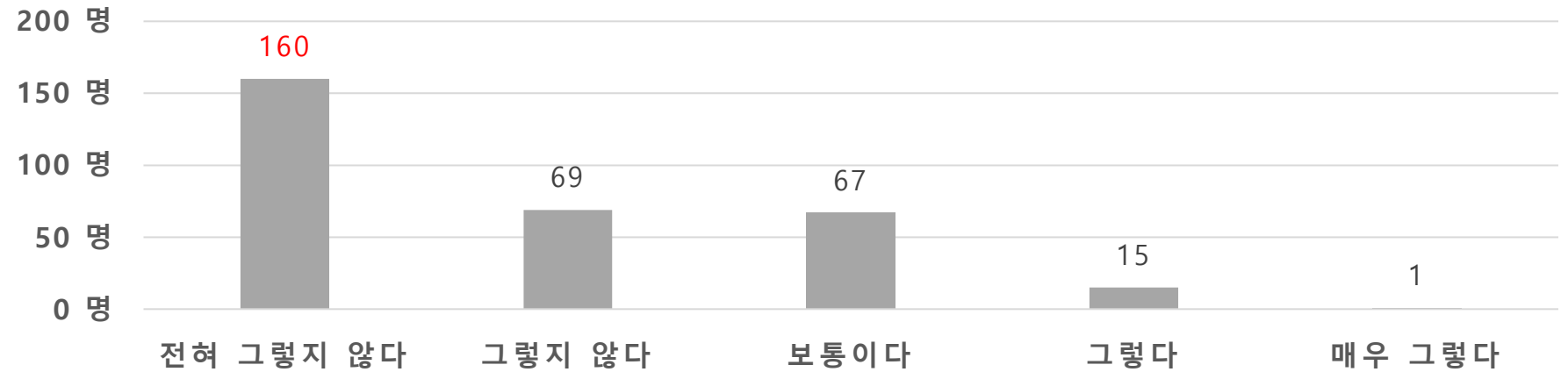
• 소속된 연구실의 일상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나친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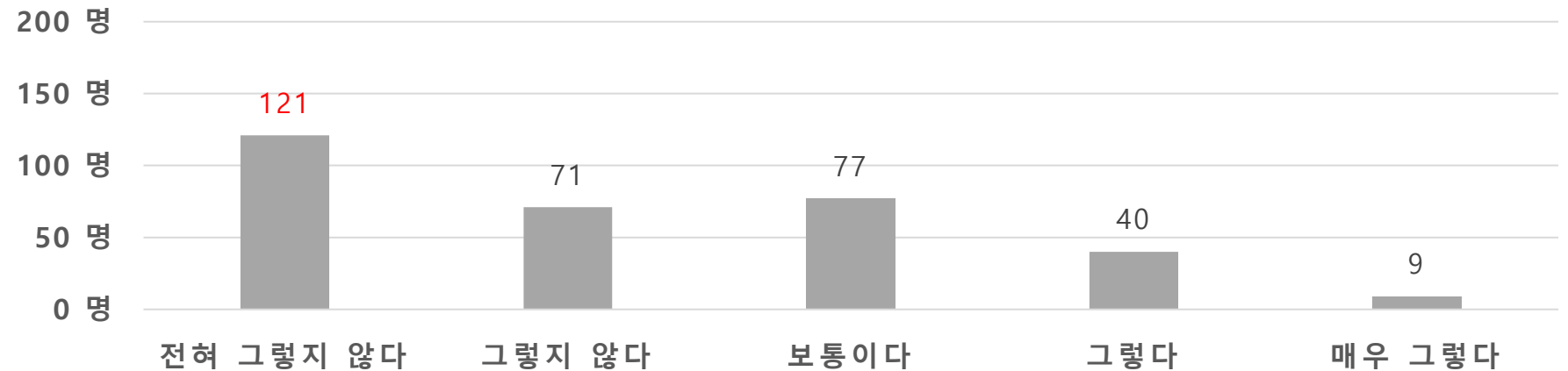
연구수행 환경

1. 연구 및 업무 시간
2. 휴가
3. 기반 시설
4. 조직문화

• 소속된 연구실의 일상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적인 업무 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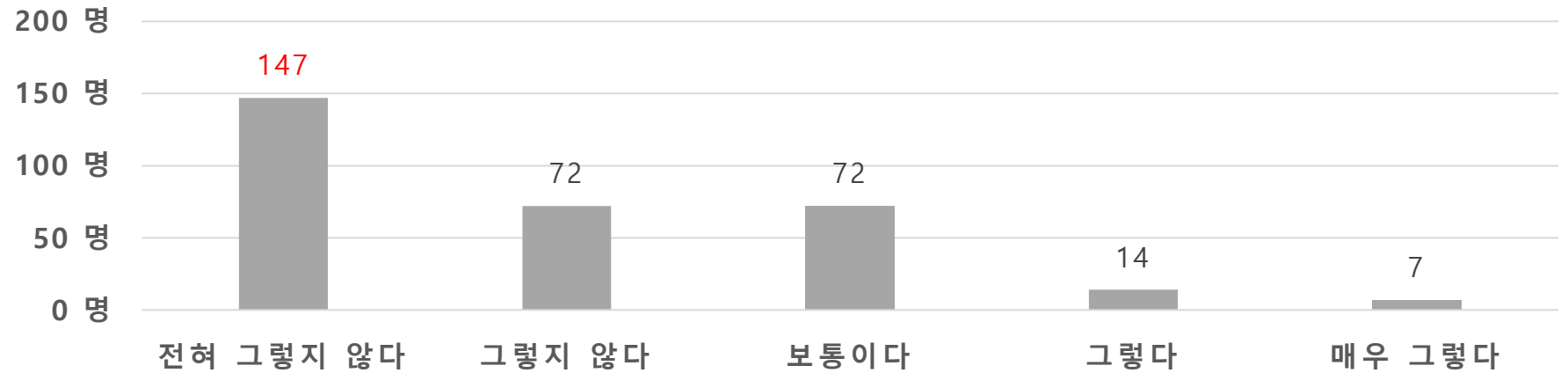
• . 소속된 연구실의 일상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과 후 업무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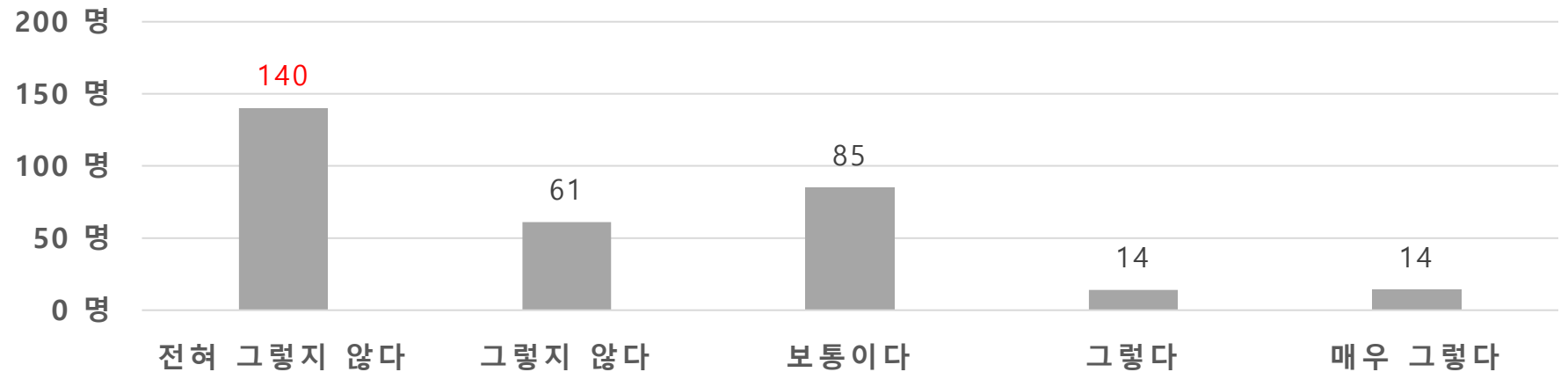
연구수행 환경

- 1. 연구 및 업무 시간
- 2. 휴가
- 3. 기반 시설
- 4. 조직문화

• 소속된 연구실의 일상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잡은 회식 등 친목 행사]



• 소속된 연구실의 일상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수직적 자세/태도]



연구실 조직 문화와 관련된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만족, 좋음, 없음, 무응답 제외)

- 건전한 연구 문화 조성 필요 (8명)
 - 사적 업무 지시가 당연시되는 분위기 탈피
 - 당연하지만 교수님이 갑임. 연구를 할 때 교수님의 주관적 생각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려 할 때가 있음.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고, 내 일정은 생각치 않고 빨리 안 하면 재촉함
 - 까라면 까 하는 식의 수직적 군 문화 있음
 - 친목보다 연구에 집중해야 함.
 - 실험 기간 동안 밤 새서 실험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교수의 인식 개선
 - 공과 사 기준 확립 필요
 - 회식에 눈치 주며 참여시키는 것은 부당함.
 - 지도교수님이 학생에게 술 강요. 그리고 회식 때 막내부터 자기소개와 건배사를 시키는 문화가 있음
- 연구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교수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 (2명)
 - 교수님이 감정적이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함
- 지도교수님의 적절한 연구 지도 희망 (2명)
- 실험실 내 수평적 조직문화에 따른 만족 (2명)
 - 자유로운 의견제시 가능
- 관심과 갈등, 무관심과 외로움 둘 중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대해 덧붙일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선택 사항, 주관식 응답]

(만족, 좋음, 없음, 무응답 제외)

- 지도교수님께서 연구하기 적합한 조직 문화를 조성함. 예를 들어 학생들 간 수평적 관계, 자유로운 출퇴근, 적당한 관심, 만족스러운 인건비, 사수/부사수 관계, 자유로운 회식 불참 등이 있음
- 적당한 관심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 연구실단위 여러 행사 개최 희망
- 서로 간섭 안 하는 개인적인 문화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연구를 한다면 본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배려하는 문화 필요
- 각자도생
- 타 대학원분들의 설문 응답 결과 공유 희망.
-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와 과제 수행을 위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
- 학교 또는 학과에서 각 연구실에 매월 10만원 (연구실 규모에 따라 금액 증감)으로 회식 비용 지원 희망. 교수님이 연구실 친목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바쁘실 경우 연구실 사람들이 서로 이름도 모를 정도로 단합이 전혀 안 되고 서로 무엇을 연구 하는지도 몰라서 연구 토론이 전혀 안됨. 교수님과 같이하는 회식은 과제 사정에 따라 회식 비용 지원이 없을 때도 있기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회식 비용을 지원해주면 각 연구실 단합에 도움됨.
- 학교 교육이나 연구환경 개선 등 희망
- 중앙연구센터 분석료 감축 필요
- 재택 근무를 허용하거나 연구실 출퇴근 시간 기준이 없는 연구실은 서로 간 교류가 없어서 서로 무관심해짐. 연구실 사람 이름도 모를 정도.
- 개인차 심함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에 대해 덧붙일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선택 사항, 주관식 응답] (만족, 좋음, 없음, 무응답 제외)

- 연구실 내 소음 문제: GIST내 단일 연구실, 공동 연구실 등 다양한 연구실이 있으며, 동료 연구자들과 소통과 토론은 필요한 활동이자 덕목임. 그렇지만 자유롭게 연구실에서 소통하는 것이 연구에 큰 방해가 되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함. 연구 주제 관련 소통 하다가 어느새 업무 외 대화를 할 때가 많으며,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를 방해하는 소음을 낼 때가 종종 있음. 연구실은 소통보다 연구 활동 수행이 우선되는 공간임. 연구 활동에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원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연구 환경 확보 및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해서 연구실 내 소음 제재가 필요함.
- 시약 사용 실험실 환기 후드 시스템 부실
- 실험실 공간과 오피스 공간을 구분하여 교수님들께 공간 할당 요청. 인원이 많아지면 오피스와 실험실 공간을 합쳐서 배정하는 탓에 물리적 공간이 많이 부족함.
- 물가 상승에 따른 석사 인건비 상향 요청. 기숙사비 제외 한달 70만원으로 생활하기 버거움. 또한 휴가를 5에서 10일로, 여름 5일 겨울 5일 휴가 사용을 요청.
- 연구실은 다수 컴퓨터와 장비들이 작은 공간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관리자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온도상승이 빠르며 잘 냉각 되지 않음. 그럼에도 의미 없는 에어컨 냉방 온도 제한은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함. 또한 에어컨 표기온도는 실제 연구실의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짐. 더불어 소수 실외기가 다수의 연구실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 출력 또한 문제 있음. 연구실 에어컨 효율이 낮기 때문에 온도제한은 말이 안됨. 따라서 에어컨 온도 제한 전면 해제 필요. 학생 연구실 자리에서 3일 직접 체험 부탁.
- 개인 사생활 보장 희망



4. 연구실 안전

연구실 안전관리 등에 관련된 설문입니다.

- 연구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나요?

있다 **80.9%** **19.1%** 없다

-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실험실인 경우, 연구실과 실험실이 분리되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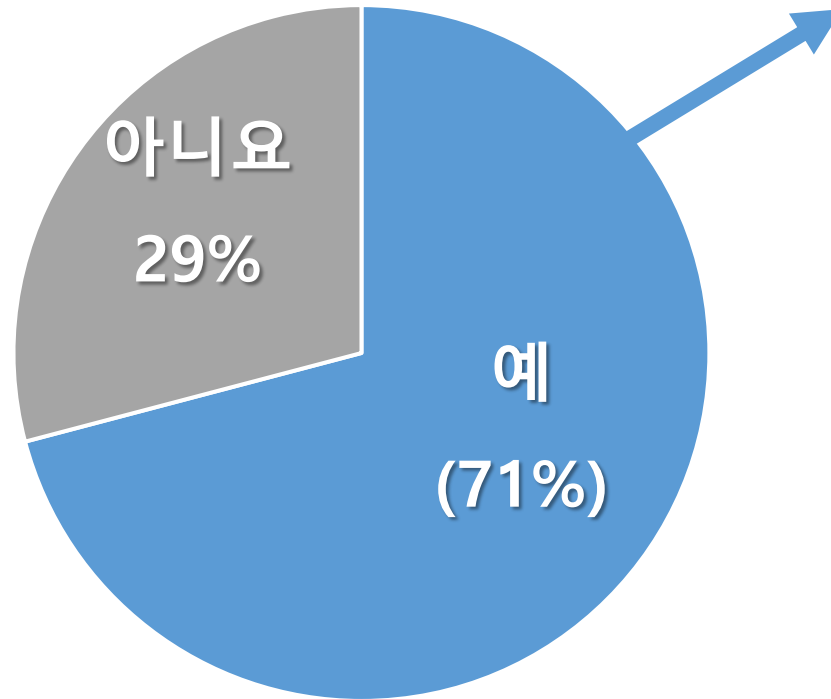
예 **86.7%** **13.3%** 아니요

- 연구실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면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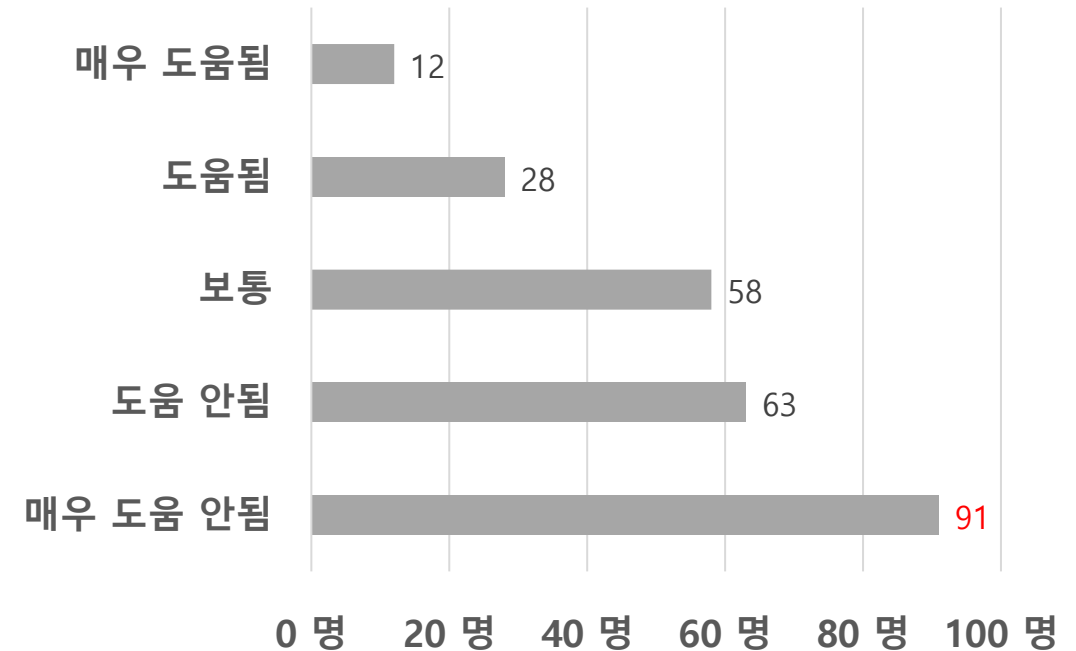
구분	비율(%)
예,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69.7
아니오, 실험자의 부주의	3.6
아니오,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	3.9
아니오, 안전 장비의 부재	0.9
아니오, 연구책임자(지도교수)의 무관심	4.8
기타(연구실 실험실 분리X, 안전 인식 하고 있음, 잘 모름)	0.9
해당 없음(안전관리가 필요한 연구장비가 없음 등)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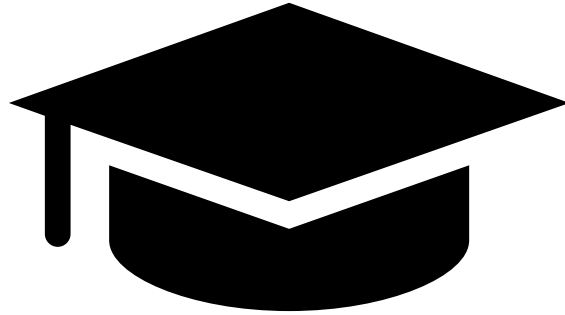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점검을 위해서 일상점검체크 리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나요?

1. 안전 관리



- 위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일상점검 체크리스트가 연구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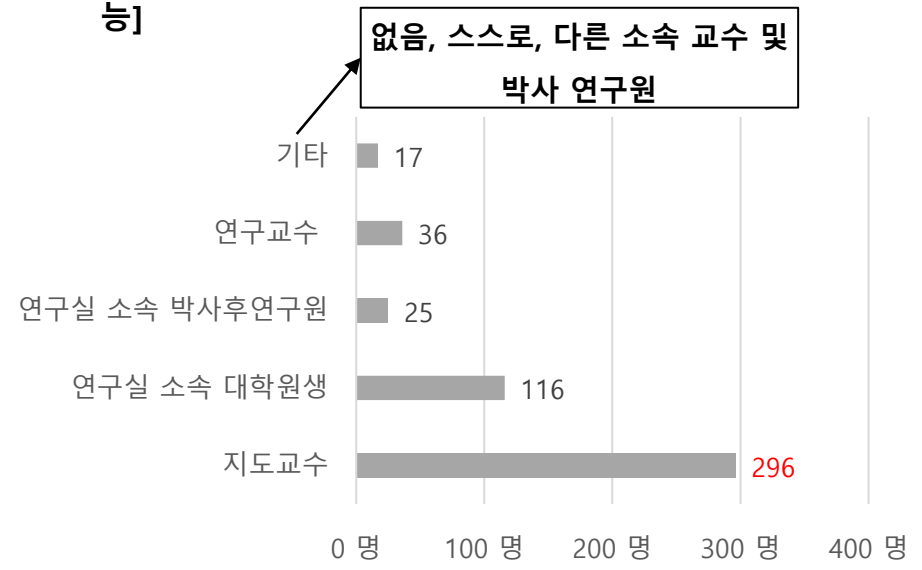


5. 연구 및 진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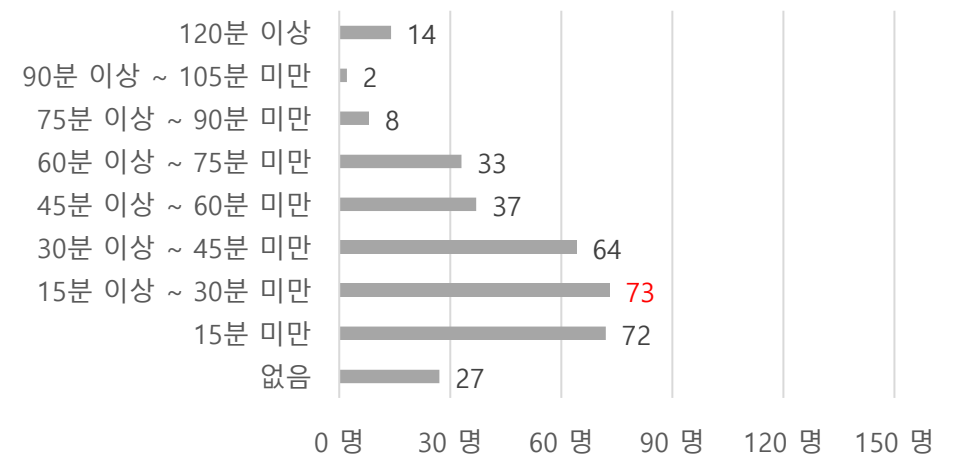
대학원생들의 연구지도에 관련된 설문입니다.

1. 연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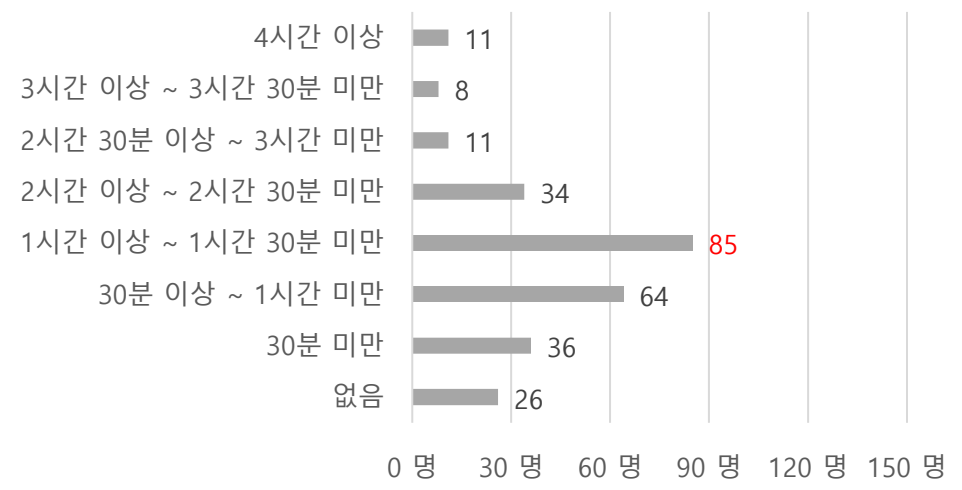
- 주로 누구에게 연구 지도를 받고 있나요?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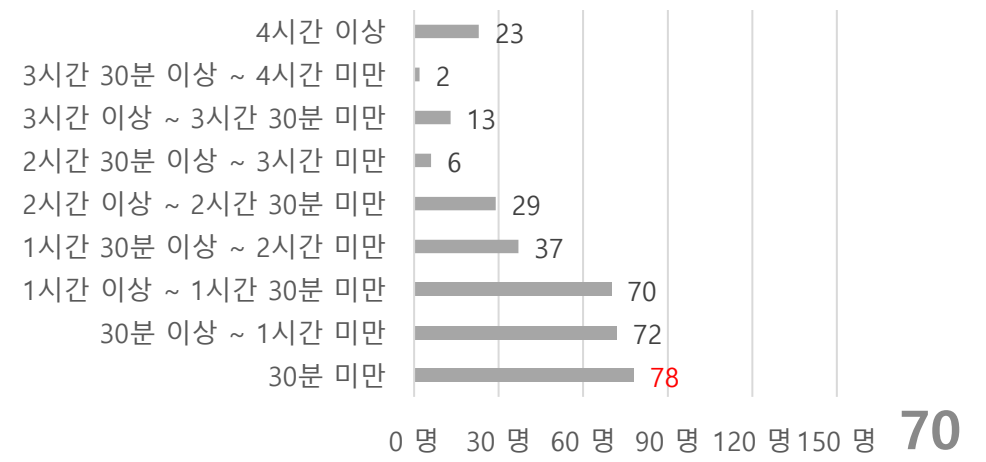
- 연구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와 한 주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15분]



- 연구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와 한 주에 "그룹으로" 만나는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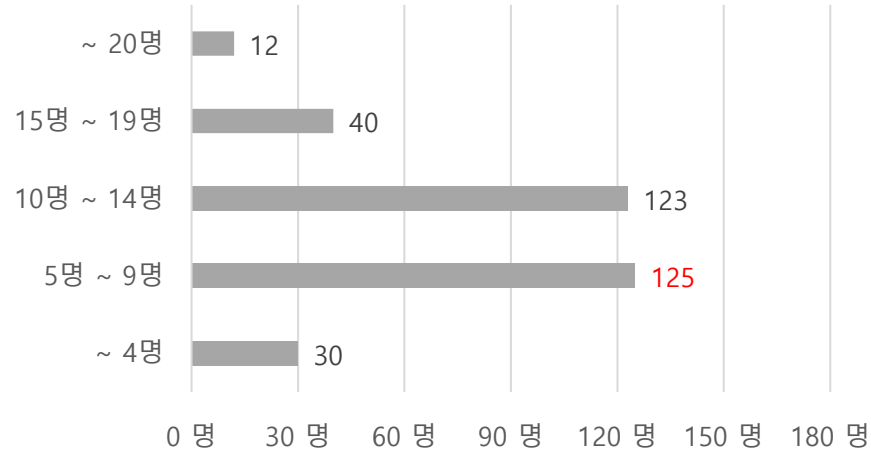


- 귀하가 짐작할 때, 귀하의 연구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가 한 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단위: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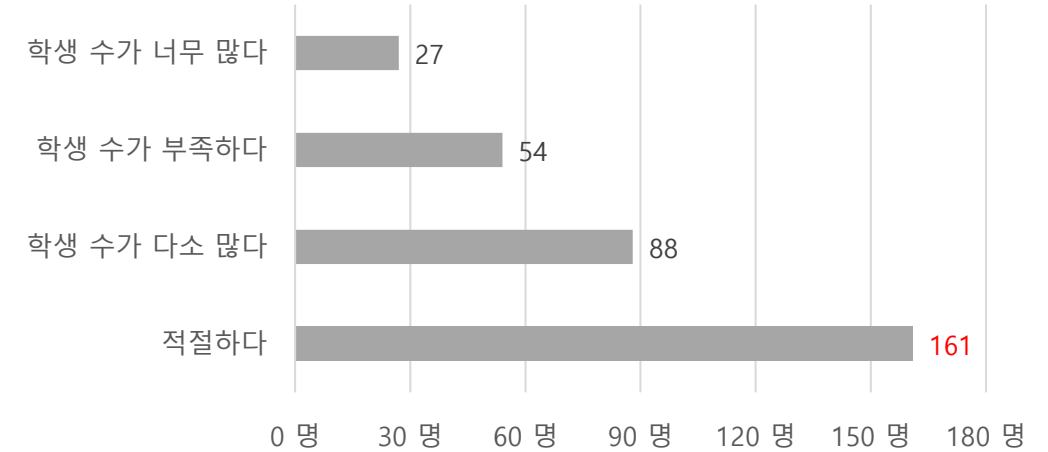


1. 연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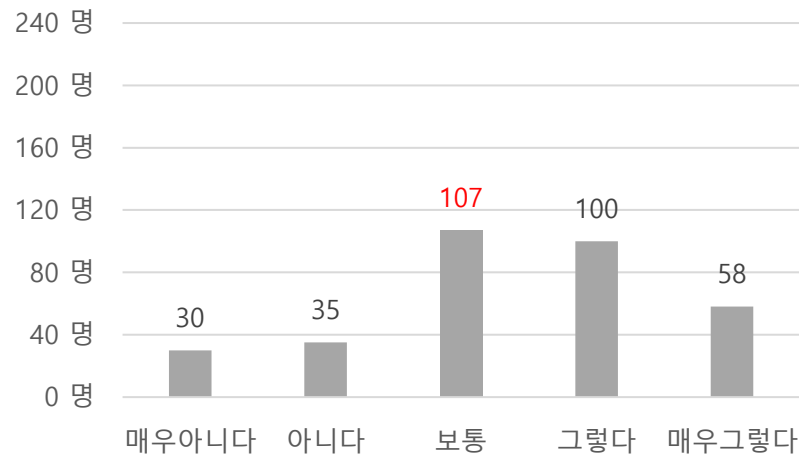
• 지도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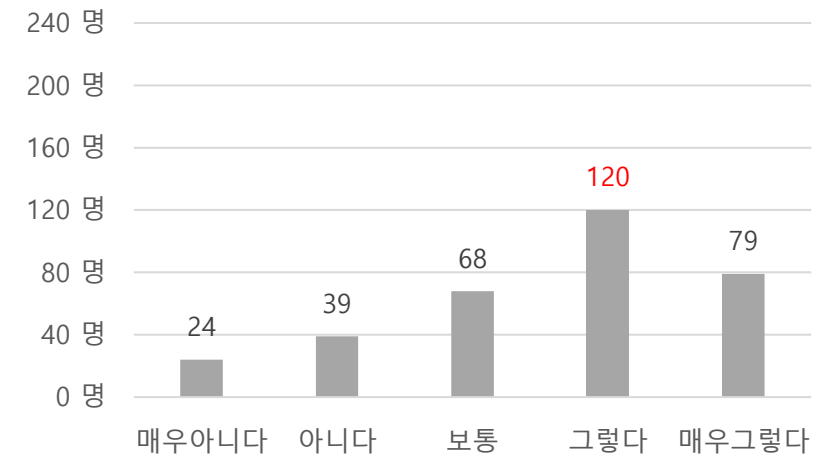
• 지도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나를 지도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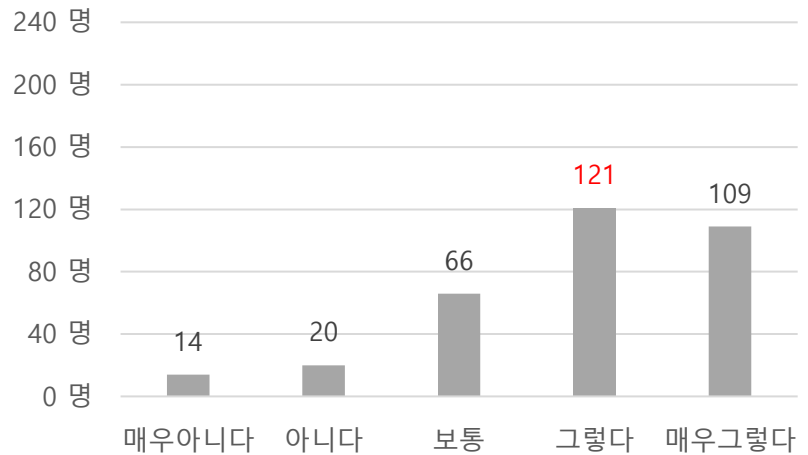


• 나의 학위 연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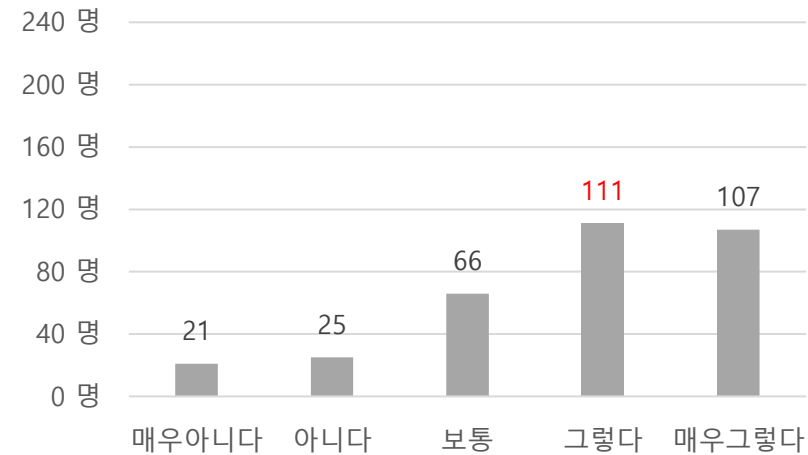


1. 연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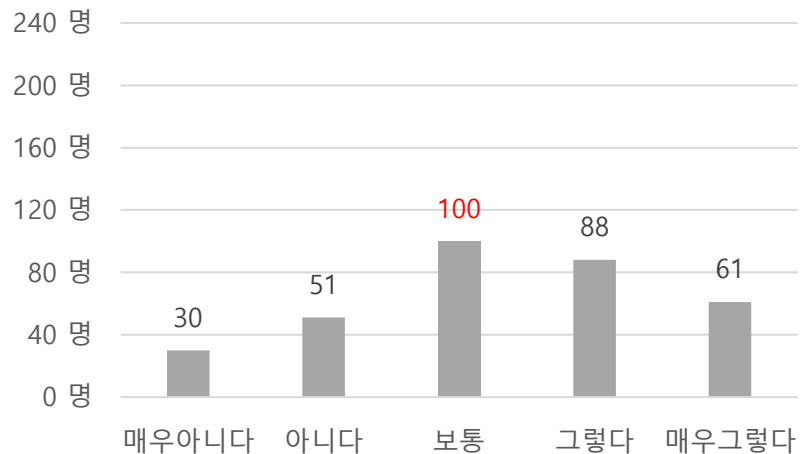
• 학위 연구 방향에 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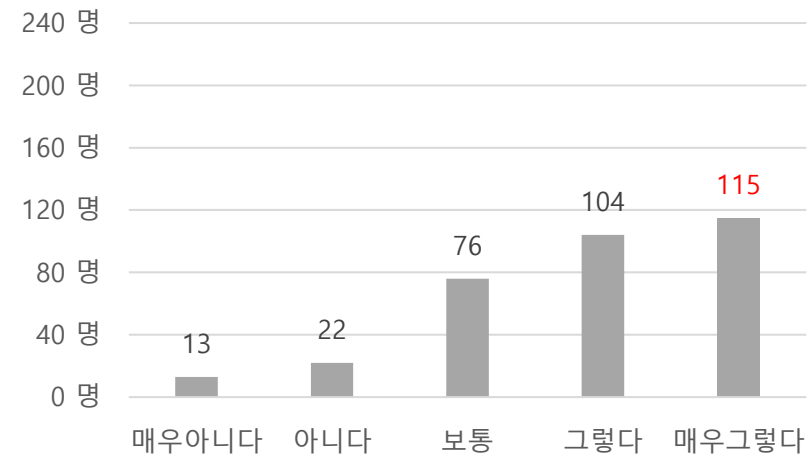
• 학계 트렌드를 잘 알고 있다.



• 나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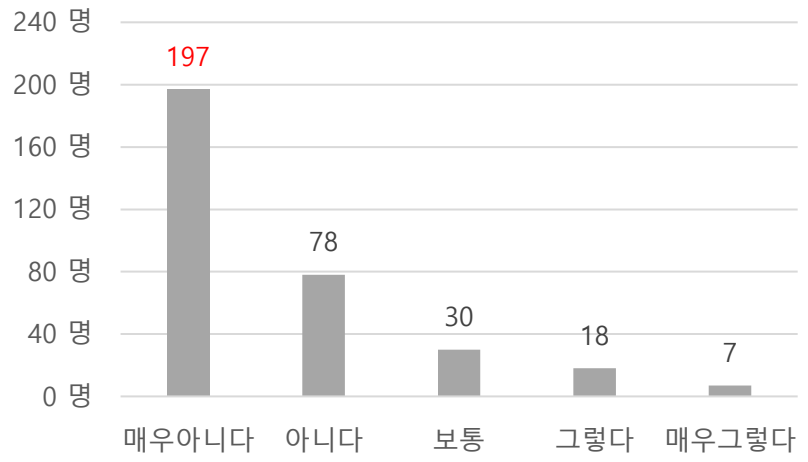


• 진로 방향에 대한 나의 의사를 존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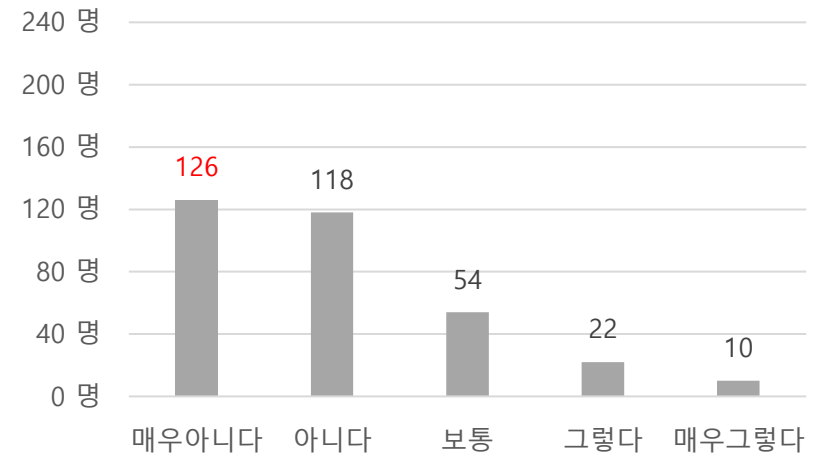


1. 연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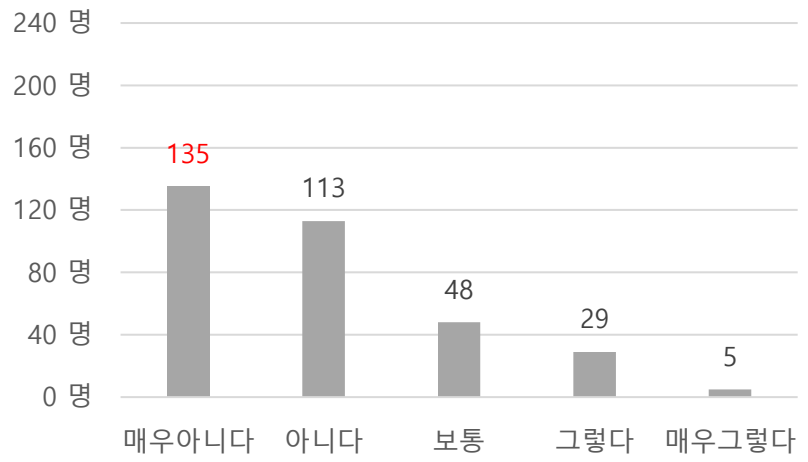
• 연구 윤리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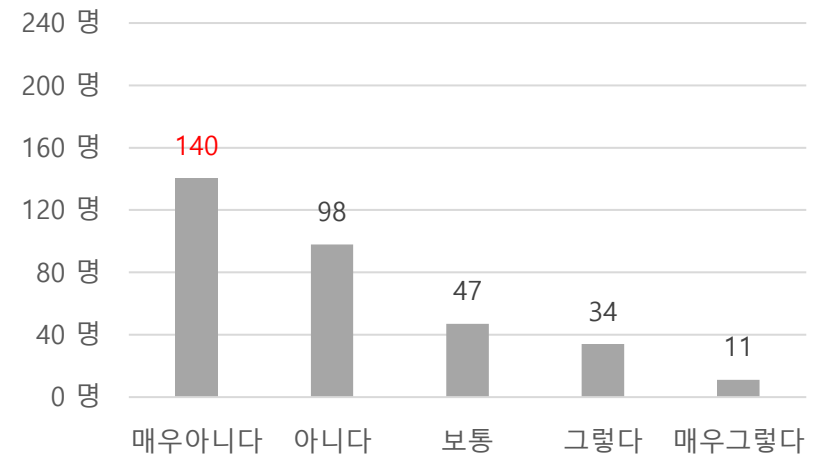
• 연구실 실적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한다.



• 연구실 실적에 필요 이하로 무관심하다.



• 학생에 따라 차별적인 지도를 한다.



연구 및 진로 지도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단답형 만족, 없음, 무응답 제외)

- 지도교수님 연구 및 진로 지도에 만족하고 있음 (3건)
 - 표본으로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역량과 인품을 함께 갖고 계시기 때문에 딱히 불만 없음.
- 지도교수님 연구 지도도 부족하고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하니 연구 의욕이 저하됨. 배우려고 왔는데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 답답함.
- 하루 평균 미팅 시간이 2-3시간, 어떨 때는 4-5시간 인 경우도 있음. 교수님의 간섭이 너무 지나침.
- 교수님이 학생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었으면 좋겠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실험 결과를 가져오면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했으면 함
- 지도교수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지도에 참여 희망. 물론 학생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만큼 지도교수님도 학생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어야 함. 모든 교수님이 주 5일제를 유지하면서 학생들 연구에는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현저히 적다고 생각함.
- 지도교수님께서 졸업을 나의 의지에 맞춰 주신다고 하신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음.
- 지도교수가 학생 교육인 연구 및 진로 지도에 힘쓰지 않음
- 각 연구실의 학부연구생 수에 제한을 두어야 함. 대학원생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면 적당히 받으면 되지만, 일부 연구실은 학부연구생을 10명 이상 대량으로 뽑아서 연구실 분위기만 해치고 서바이벌 식으로 일부만 대학원생으로 뽑아주는 제도도 학부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거 같지 않음
- 제대로 된 연구 지도를 받아보고 싶음.

연구 및 진로 지도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단답형 만족, 없음, 무응답 제외)

- 주말에 랩 미팅을 진행하여 시간을 빼앗아 가는 연구실이 있었음. 토요일 오전에 랩미팅을 진행하게 되면 당일 오전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기본이고, 미팅 종료 후 집에 왕복하는 시간까지 고려하게 되면 명절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을 뵈 수 있는 시간이 없음. 특별히 바쁜 기간이 아닐 때에는 지도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연구자로서 지도교수님 존중함. 다만 학생 진로는 교수님도 잘 모르실 수밖에 없음. 국내 연구직은 티오가 작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움. 지도교수님께 배당된 학생들이 너무 많으며, 교수님도 바쁘심. 학교에서 교수님께 업무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음. 교수님께서 업무를 감당할 정도만 주셨으면 함.
- 지도 교수를 슬기롭게 잘 괴롭혀야 졸업이 빠름.
- 교수님들의 연구 외 할당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들 것 같음. 따라서 교수님들의 업무들을 다른 직원들이 할당해서 처리하고 교수님들은 연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수님 업무가 바빠셔서 학생들을 지도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함



6. 인권 문제

연구실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설문입니다.

- 지도교수의 사적인 일에 부당하게 동원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요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있다 **3.6%** **96.4%** 없다

1. 사적 인력동원

2. 독립계좌

3. 청탁

4. 폭언 및 폭행

5. 성희롱/성추행

6. 인권센터

< 부당하게 요구된 사례 리스트 >

대리 운전	이사
대리 수업	청소
장례식 참여	개인 심부름
컴퓨터 수리	

인권 문제

1. 사적 인력동원

2. 독립계좌

3. 청탁

4. 폭언 및 폭행

5. 성희롱/성추행

6. 인권센터

- 연구실에서 해당되는 독립 계좌(랩비)를 운영하고 있나요?

예 8.8%

91.2%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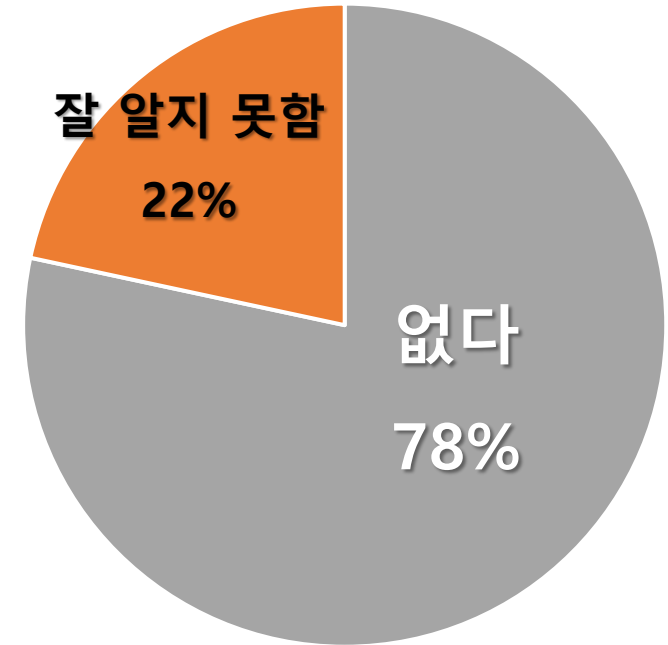
- 독립 계좌의 규모

구분	비율(%)
운영하지 않음	90
0~50만원	3.6
50~100만원	2.4
100~500만원	0.2
잘 알지 못함	4.8

- 독립 계좌의 조성 방식 (복수응답)
[이전 질문 '있다' 응답자 대상]

구분	비율(%)
인건비를 통해	19.2
명목상 자발적 벌금 및 회비를 통해	69.2
출장비를 통해	7.7
기타(친목 등)	3.8

- 독립 계좌의 금액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적 있나요?



기타 독립 계좌로 운영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모른다, 무응답, 없음 제외)

- 문제가 많으나 말 못함.
- 사적인 사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장부는 카카오톡, 구글 스프레드시트, 원드라이브 등과 같이 개인 통장이 아닌 랩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게 업데이트 되면 좋겠음.

인권 문제

- 청탁금지법 이후, 연구실 내에서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까?

1. 사적 인력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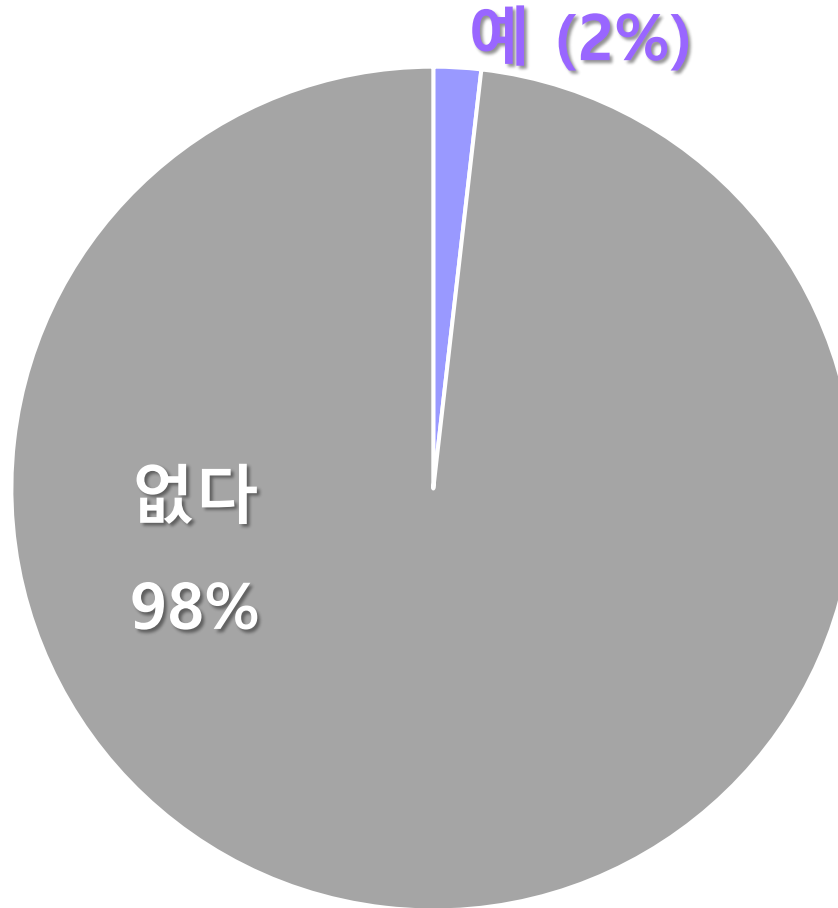
2. 독립계좌

3. 청탁

4. 폭언 및 폭행

5. 성희롱/성추행

6. 인권센터



학교내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덧붙일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주관식) (모른다 혹은 무응답 제외)

- 대학원생 신분상 신고가 어려움 (3명)
 - 위반 사례가 많음
 - 졸업 및 연구에 대해 학생의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 같음.
- 과도한 규칙임 (3명)
 - 바람직한 의도지만 정말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기도 함.
 - 어느정도 감사함 표시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싶음
 - 선물 좀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것까지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 같음
- 청탁은 금지되어야 함.
- 교육 필요
- 인건비 100만원 받는 대학원생들이 청탁금지법 걸릴 일 없음. 행정업무 수행하는 분들에게 청탁금지법 교육 시키고 주의시켜야 함.
- 교수님께 선물 드리는 것으로 돈을 모으는 일이 너무 빈번함

인권 문제

- 1. 사적 인력동원
- 2. 독립계좌
- 3. 청탁
- 4. 폭언 및 폭행**
- 5. 성희롱/성추행
- 6. 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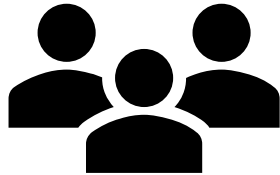
• 연구실 내에서 폭언 및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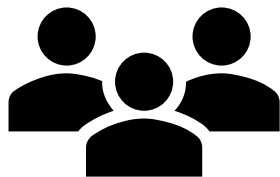
• 누구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경험했나요?
(복수응답)



지도교수
(1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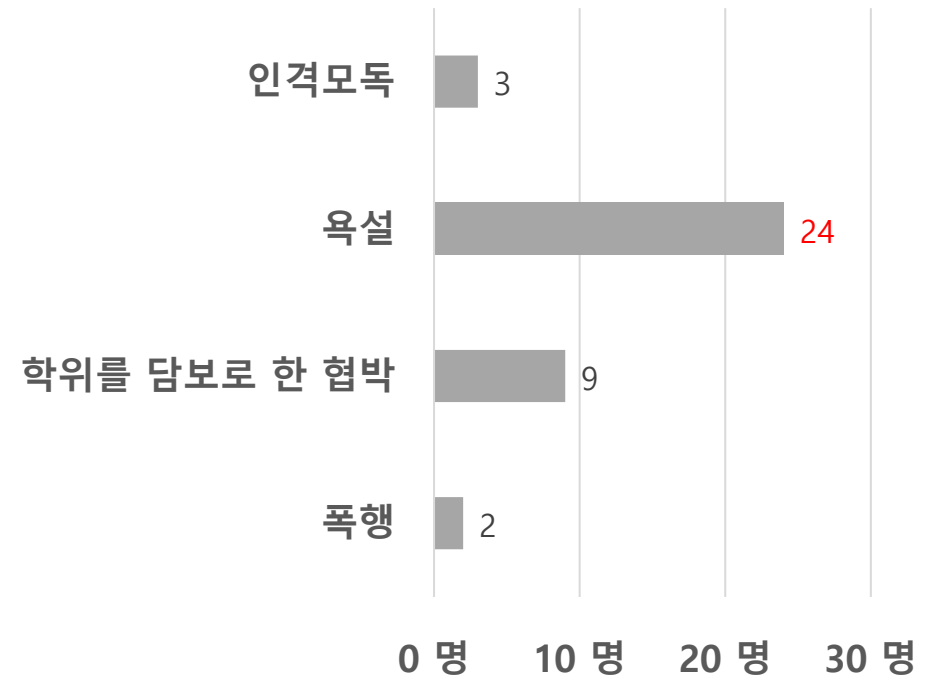


연구실 동료
(19건)



졸업생, 타 연구실
박사들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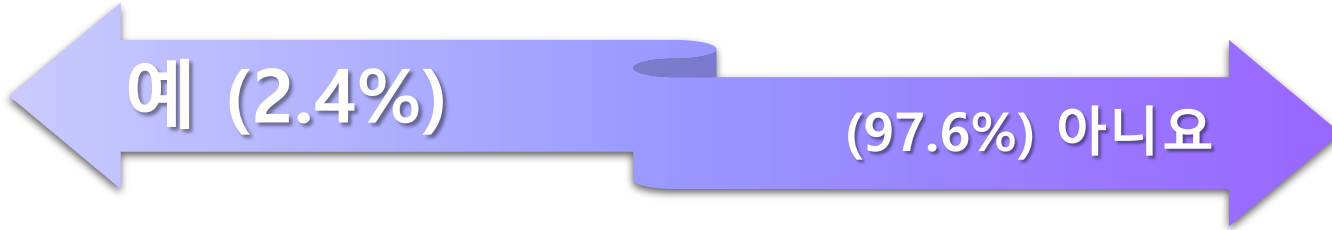
• 어떤 종류의 폭언을 경험했나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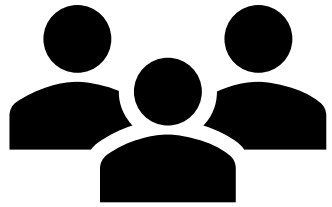
인권 문제

1. 사적 인력동원
2. 독립계좌
3. 청탁
4. 폭언 및 폭행
5. 성희롱/성추행
6. 인권센터

• 연구실 내에서 성희롱·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누구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경험했나요?
(복수응답)



연구실 동료
(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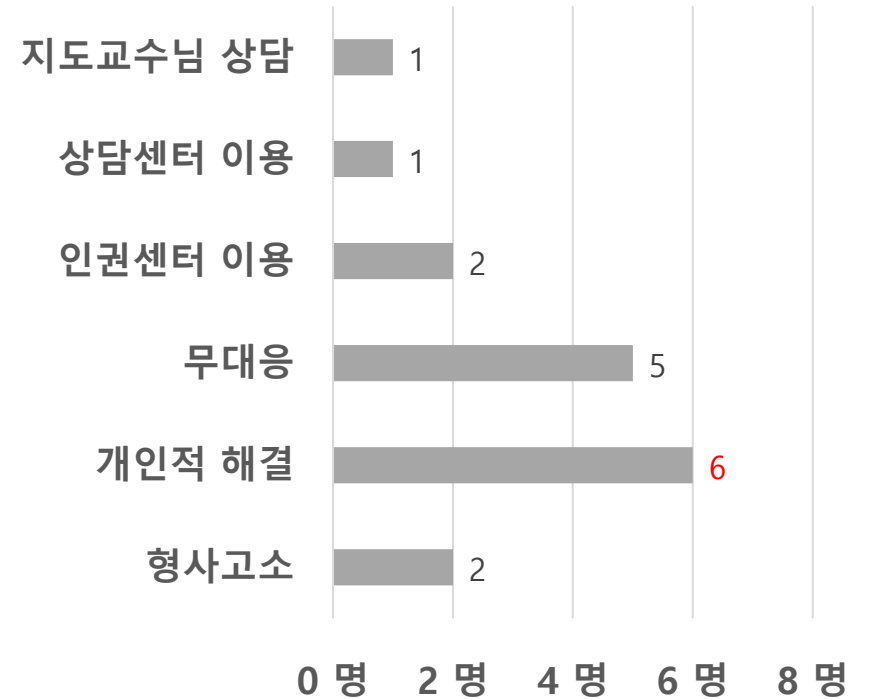


타 연구실 연구원
(1건)



학부시절 예체능 교사
(1건)

• 성희롱·성추행을 경험했다면,
이후 어떻게 대처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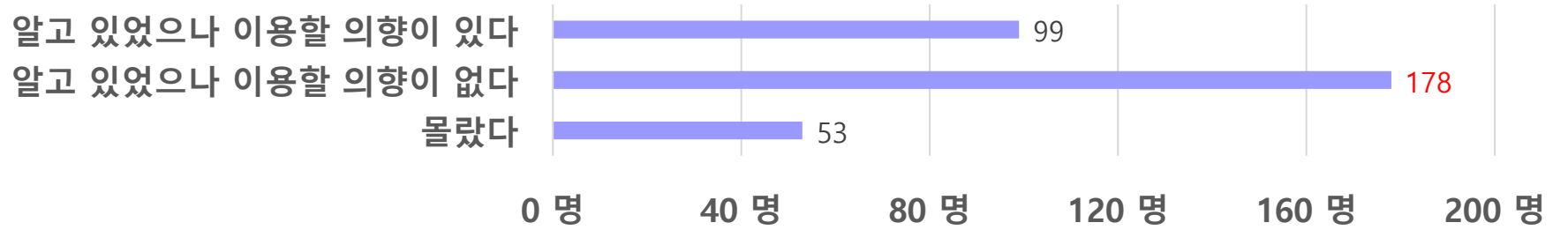
위 선택지 이외에 기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우를 받은 적이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면 상세히 적어주세요.

- 논문 저자 문제 (3명)
- 내국인 차별 (2명)
 -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참여율 대비 과도하게 높은 인건비 지급, 행정업무 불평등 존재
- 프로젝트 기여도와 무관한 인건비 지급 (2명)
 - 프로젝트 참여에 연구 시간을 모두 쏟았지만 연구과제 참여율은 훨씬 낮게 계상됨. 논문 저자를 참여연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지도교수가 정함.
 - 다른 사람은 하는 일에 비해 인건비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음
- 인건비가 1년에 1,500만원이 남았는데 학생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다 받으며 학생들은 한달에 60만원 안되는 인건비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
- 연구실 수직적 분위기에 따른 사적인 심부름, 과도한 사생활 침해
- 과제 업무 및 연구실 잡다한 업무 떠넘김.
- 프로젝트 참여율에 따른 급여 불평등 (영어 답변)

인권 문제

- 1. 사적 인력동원
- 2. 독립계좌
- 3. 청탁
- 4. 폭언 및 폭행
- 5. 성희롱/성추행
- 6. 인권센터

• 인권센터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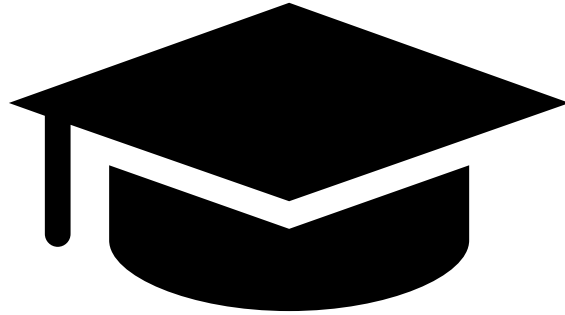


• 이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비율(%)
인권센터를 이용할 일이 없어서	52.7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4.2
신뢰가 가지 않아서	13.3
말을 꺼내기가 두려워서	9.7

인권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선택 사항, 주관식 응답] (무응답, 없음 등 제외)

- 인권센터 상담 효과 의문 (4명)
 - 상담을 받아봤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음. 고민 상담에 불과했음.
 - 교수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도 실제 처벌이 행해질지 의문이 듦. 설사 처벌이 이루어 지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학생에게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 인권센터를 지인이 이용한 적 있었는데 진짜 쓸모 없는 조직 이라는 것을 느꼈음. 전혀 도움 안될 뿐더러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욱 피해를 주었음
 - 특히 교수님과 관련되었을 때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묻히고 넘어간 사례가 종종 있다고 들음
- 인권센터 상담 내용이 교수님께 유출 (2명)
 - 유출 문제로 소수 학생들만 이용함
 - 학부시절 인권센터 상담 내용을 상담사가 지도교수에게 유출함.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다고 느꼈고, 그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음
- 인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신뢰를 우선 보장해야 이용이 있을 것 같음
- 학생을 위한 것인지, 학교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음
- GIST는 기본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들 집단이라서 각자 인권, 윤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잡혀 있는 것 같음. 불필요한 페미니즘 사상을 의무 교육으로 넣지 않았으면 함.
- 성격검사, mbti 검사 잘 이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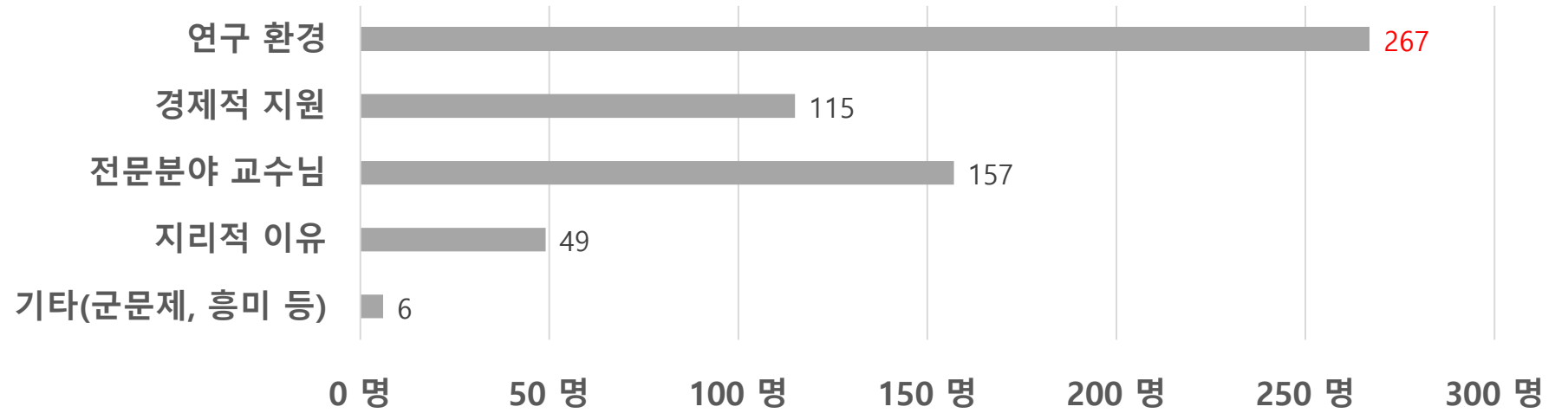


7. 대학원 진학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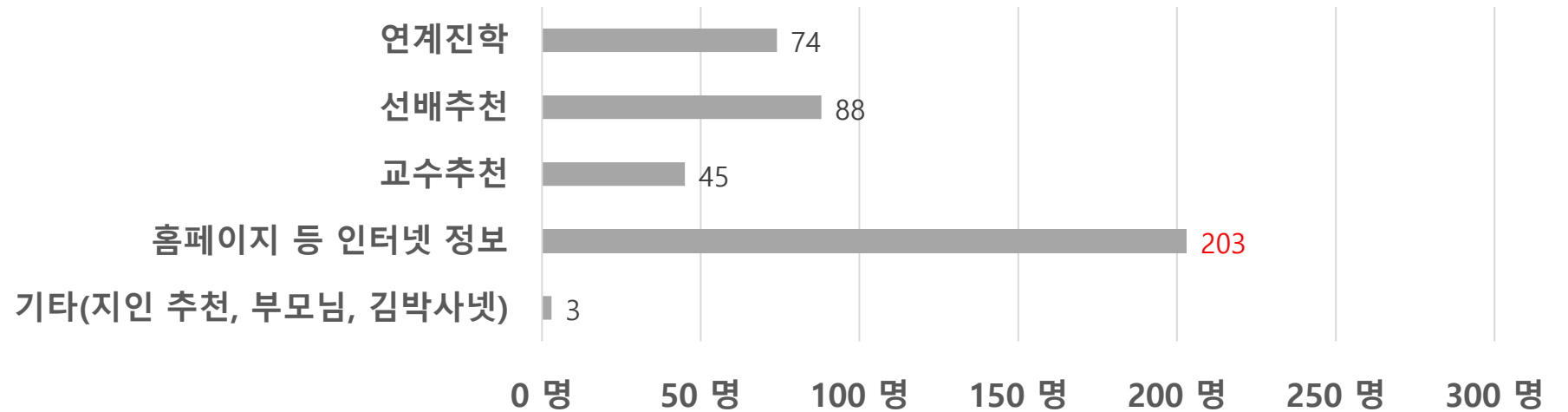
지스트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 등에 대한 설문입니다.

1. 대학원 진학

• 지스트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 지스트 대학원 진학 시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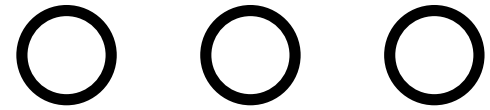


대학원 진학 및 프로세스 관련하여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선택 사항, 주관식 응답] (무응답, 없음 등 제외)

- 지스트 홍보 증가 필요 (4명)
 - 대학원 진학 및 프로세스 각종 홍보 필요
 - 성과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여 외부에 덜 알려지는 것 같음
- 연구실 정보 공개 필요 (2명)
 -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연구실을 잘 모른 채 입학함
 - 지스트 소속 교수님 중 일부는 김박사넷 등 대학원 진학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대학교에서도 지스트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혀 연구실에 대해 알 수 없음. 교수님이 연구실 홈페이지 관리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라면 특히나 더욱 정보를 얻을 수 없음. 따라서 학교에서 특히 신입 교수님들이 김박사넷 등에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
- 진학 및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음
 - 인턴 및 오픈 랩제도 등
- 대학원 진학이 연구 위주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 강화가 중요함.
- 대학원 진학 전 이 길이 본인에게 적합한 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학원 진학 이후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여럿 보았음.
- 파키스탄, 인도 등 특정 외국인 유치 전략 그만두어야 함.
- 현재 상황은 제가 지원할 때와 같지 않음. 지금은 지원자가 없으니 미국 방식이 아닌 유럽 방식 도입 필요. 유럽 방식에서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대학생과 비슷하게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인턴으로 업무를 수행함. 박사과정은 본인이 연구비나 지원프로그램을 잘 선택을 해야 하며 월급은 거의 500-600만원 이상 받음. 지금은 연구를 해야 할 사람에게 인건비를 챙겨 줘야 하는 시대임. 시대를 잘 따라가야 지스트가 생존할 수 있음.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이제 지원자가 0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

대학원 진학 및 프로세스 관련하여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선택 사항, 주관식 응답] (무응답, 없음 등 제외)

- 박사과정은 뚜렷한 주관이 없다면 진학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석사과정은 지스트 대학생들이 대부분 한 번 진학해보려는 생각이 있음. 그런데 석사과정도 카이스트나 서울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을 통해 자대생 유출 방지 전략이 필요함.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 필요
-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다양한 산학연계장학제도 등 의 도입 시급함. 과학기술원 중에서 산학연계 장학제도 없는 학교 많지 않음. 이대로 라면 GIST 대학원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임. 진짜 정신차려야 함.
- 입학 할 때만 해도 학생 복지에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았는데 기숙사비 인상 등 복지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느낌. 또한 여름에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는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함. 기숙사비는 인상하면서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 함.
-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자신의 연구 과제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대학원 홍보 시 학부(과) 및 연구실 소개 는 별 의미 없음. 어차피 진학할 사람은 오게 되어 있음. 그렇다면 진학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계기는 오히려 거주 환경임. 따라서 학부(과) 소개 등을 하기보다는 기숙사나 식당 같은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들을 개선하고 홍보 및 소개하는 것이 진학을 결정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됨.



8.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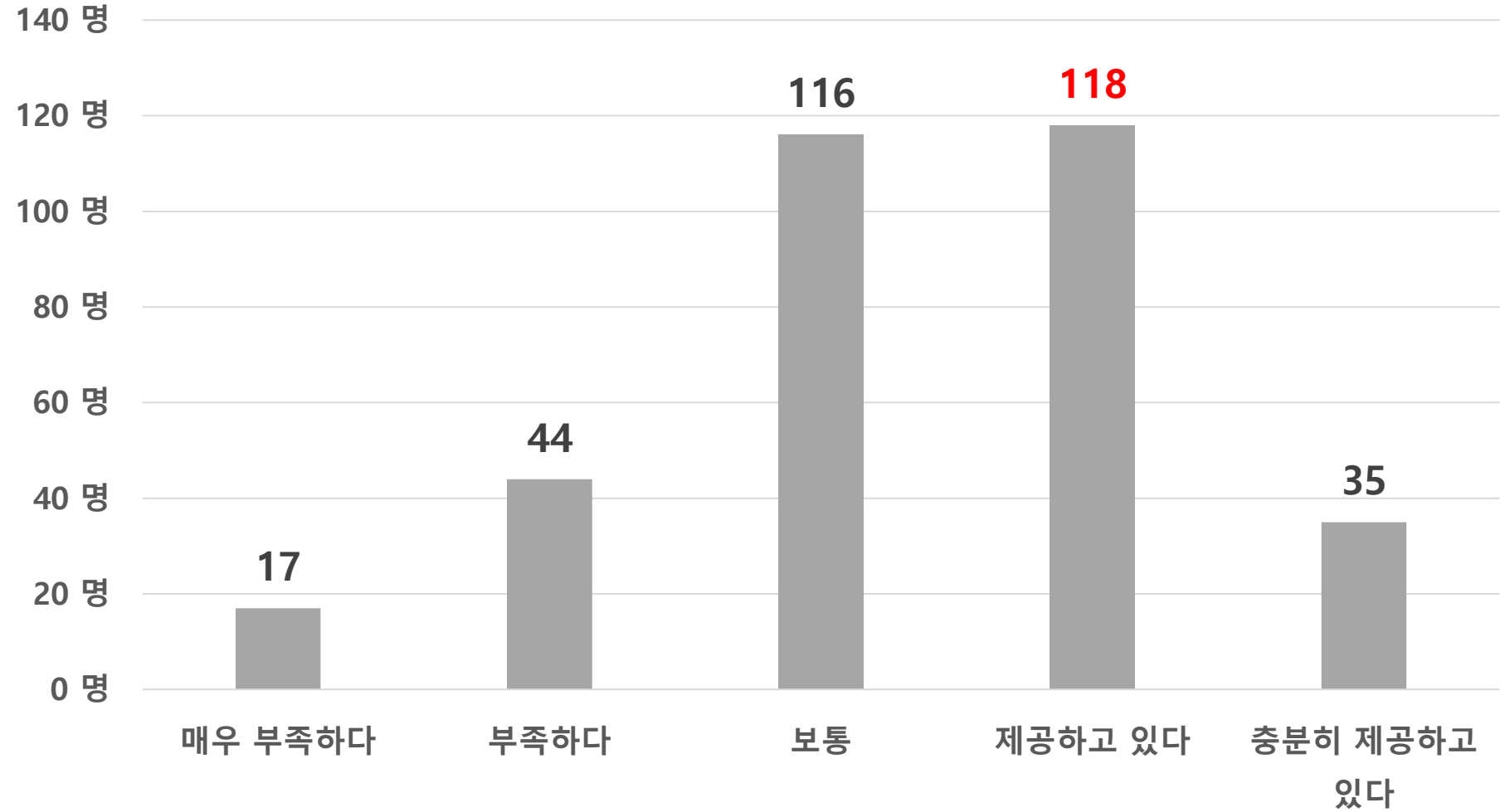
교육, 소프트웨어, 체육시설 지원 등에 관련한 설문입니다.

교육 및 LMS시스템 관련 의견이 있으면 입력해 주십시오

(좋다, 모른다, 무응답, 무관한 응답 등 제외)

- LMS 시스템 사용 불편 (11명)
 - 느리고 잦은 오류 발생
 - LMS에서 출석부 출력을 못하는 것이 불편함.
 - 가독성이 좋지 않음. 파일 업로드 시 교수님 승인 절차가 필요하여 불편함. 교수님들도 잘 사용하지 않음.
 - 서버 느림
 - 이메일 또는 폰으로 재확인 없었으면 좋겠음
 - 로그인 불편
 - 보기 불편하고 난잡함
 - 시스템 멈춤이 가끔 있음. 조교활동을 하지 않아 빨라졌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기능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어 보임.
 - 여전히 느림
 - 홈페이지 버그가 너무 많음
 - 로그인 후 구글이나 기타 LMS 접속 전 기존 페이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몇 번 있음. 재로그인 시도하면 로그인 되어있다고 나옴.
- 기존 GEL 시스템 보다 개선됨 (9명)
 - 이전 시스템보다 LMS 가 훨씬 개선되었으며, UI가 알아보기 쉽게 변경된다면 완벽함.
 - 접속 속도 개선
 - 업로드 되는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아는데 출장이나 휴강으로 인한 결강이 발생했을 때 좋은 제도인 것 같음.
 - GEL과 유사하며, 좋은 시스템.

- 원에서 양질의 강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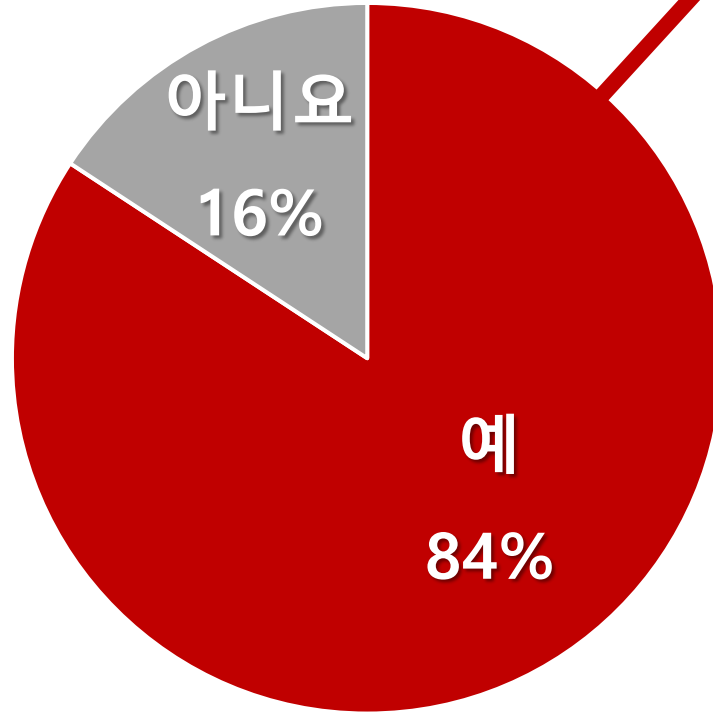
2. 체육시설 운영

교육 및 LMS시스템 관련 의견이 있으면 입력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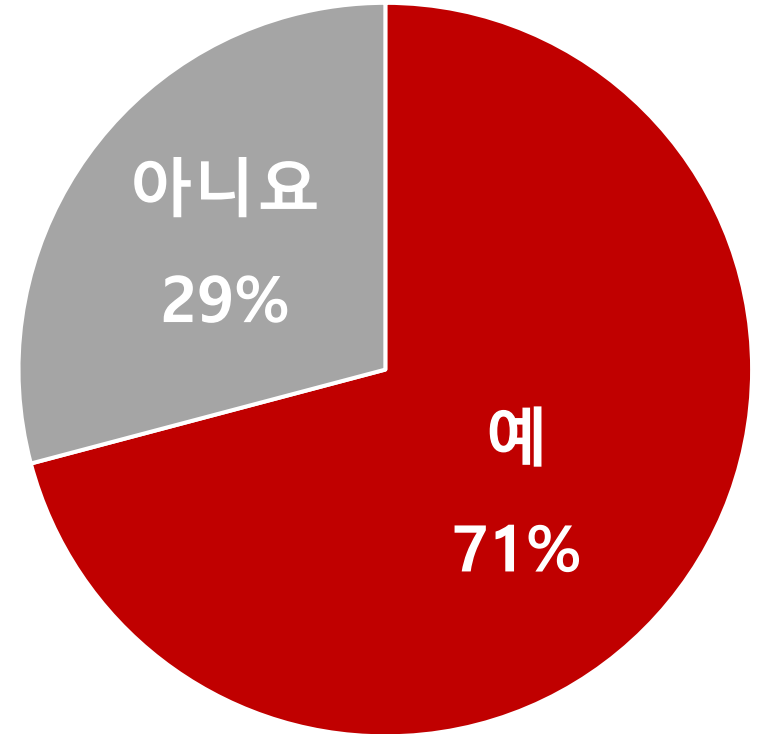
(좋다, 모른다, 무응답, 무관한 응답 등 제외)

- LMS 도입 효용성 의문 (2명)
 - 기존 GEL 시스템이 있었는데 도입한 이유 잘 모름. 딱히 불편하진 않음
 - LMS 시스템으로 바꾼 이유를 잘 모름. 모든 강의가 한 포탈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
- 사이트 미관이 개선됨. 하지만 대학원생이라 크게 쓸 일이 없으며, 다른 학교처럼 ZEUS에서 성적, 학점 등 학업과 관련된 일부 기능도 LMS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LMS 기능이 많지만 대학원생 나이 대 젊은 교수님들이 아니면 기능들을 완벽히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음. 필요한 기능만 모아서 보기 편하게 하면 좋을 듯
- LMS 내 공지가 자동적으로 메일로 함께 보내졌으면 함. 가끔 놓치게 되는 공지사항이 있음.
- 시스템이 문제 보다 양질의 과목 개설이 우선되어야 함. 다른 학교들에 비해 기초 과목이 부족함.
- 시스템은 좋으나, 아직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들이 계심. 교수님들께서 LMS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아직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정보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교수님들께서 LMS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도록 권장 부탁.
- 제우스 포탈 로그인 시 2차 인증 없애야 함.

- 원내 체육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헬스장, 풋살장,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농구장 등)



- ['예'로 응답한 경우] 체육시설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

2. 체육시설 운영

체육시설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없음, 무응답 등 제외)

- 체육관 개선 요청 (51명)
 - 전반적 노후 시설 개선 (10명)
 - 헬스장 노후 기구 교체 (11명)
 - 런닝머신 (1명)
 - 헬스장 다양한 기구 보충 (9명)
 - 프리웨이트 장비 (1명)
 - 헬스장 관리 개선 (2명)
 - 냉난방시스템 개선 (9명)
 - 농구코트 에어컨 설치 필요
 - 사용 인원 대비 좁은 공간 (9명)
 - 동아리 인원 대비 강당 규모 작음
 - 헬스장 공간 확장 필요
 - 관리 방식 개선 (2명)
 - 헬스장 등록 시스템 자동화/체계화
 - 농구코트 환기시설 설치 (2명)
 - 수년간 시설 수리 및 관리 공간확보 등이 유지되거나 악화됨
 - 체육 공간을 늘려 배드민턴 코트와 농구 코트 분리 필요
 - GIST대학 배드민턴 수업을 연구실 퇴근 후 황금 시간대 풀코트로 배정하여 다른 사람들 이용 불편

체육시설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없음, 무응답 등 제외)

- 체육관 개선 요청 (51명)
 - 농구코트 바닥 왁스 칠 필요
 - 샤워시설 확보
 - 헬스장 리모델링
 - 와이파이 개선
 - 탁구장 공간 확보 및 개선
- 시설 이용 안내 개선 (4명)
 - 사용 어려움
 - 헬스장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설명 부족
- 테니스장 시설 개선 요청 (3명)
 - 테니스장 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음. 코트가 깨져 있으며 조명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 많음.
- 제2학생회관 체육시설 사용시간 연장 (2명)
- 제2학생회관 체육시설 이용시간 연장 (2명)
 - 헬스장 무제한 이용
- 당구장 필요 (2명)
 - 다양한 체육시설 희망하며, 체육시설 도입 시 학생 의견청취 희망. 암벽등반장은 왜 생겼고, 이용자가 있는지 궁금함.

체육시설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없음, 무응답 등 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사용 제한 많아서 불편 (2명)
- 시설운영팀 시설 방치 개선 필요
- 학생들의 요구사항 반영 안됨
- 체육 시설 퀄리티 증진. 증축이나 프로그램 증설 등 활성화 희망
- 노후 체육관 및 헬스장, 이용료가 비싼 수영장,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
- 실내 족구장 필요
-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수영장 이용하여 좋으며, 강습 훌륭함.
- 체육시설 이용비 지원 요청
- 활용도가 낮은 시설 다수
- 학교 춤 동아리 연습 공간 확보 필요. 제2학생회관 지하 1층 요가실은 사용 시 시간, 청소, 연습화 착용 금지로 맨발로 이용 등 제한이 많고, 일부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요가실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함.
- 수영장 제외 나머지 시설 미흡.
- 요가의 경우 강좌 대비 신청자가 많아 대기하는 동안 외부 시설을 이용함. 이미 외부에서 운동 진행중인 상태에 등록가능 하다고 하여 포기 함.
- 수영장 운영 시간 연장 요청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는 비용으로 기숙사 침대 커버 구매하는 방식은 부적절함

- 1인실 증가 요청 (7명)
 -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1~7동을 현재 주거비를 1.2배로 납부하면 1인실이 가득 찰 것 같음. 2인실에서 룸메이트와 싸우는 경우가 많으며, 1인실 선호
- 생활관 시설 낙후 문제 해결 (6명)
 - 가구
 - 전수조사 희망
 - 학부생 기숙사과 비교됨
- 생활관 거주 비용 인하 요청 (2명)
 - 생활관 요금을 2022년으로 동결한다고 이전 회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왜 내년에 기숙사 요금을 올리는지 모름. 정말로 그만큼 비용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납득할 것 같음. 이렇게 계속 요금을 올린다면 생활관 매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생각함.
- 구관 1~7동 개선 요청 (2명)
 - 벽지, 화장실
- 에어컨 온도제한 해제 요청. 학생들이 종료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시간에 중앙제어로 종료하면 되는데 온도 제한까지 설정하여 시원하지도 않고 계속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삶의 질 떨어짐. 여름만 되면 퇴사하고 싶음.
- 화장실 리모델링 필요
- 공용 샤워실 체중계 설치 필요
- 대학원 구 기숙사 전반적인 건물 보수 희망

- 이전과 같이 외부 청소 업체를 통해 분기 단위 주기적 청소 희망. 주기적 세탁기 및 건조기 청소 희망.
- 9동 기숙사 1층 에어컨 자주 고장.
- 1-7동 2인실의 1인실 체제 언제 바뀌는지 궁금함. 공용 화장실의 경우, 주말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며, 불청결함. 이는 화장실 수압과 관련 있음. 화장실 휴지를 많이 버려 변기가 막힌다며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라고 함. 하지만 한 번에 휴지를 많이 써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수압이 전체적으로 매우 약함. 연구실 건물들에 비하면 생활관 변기는 수압이 약하고, 휴지를 단 한 장, 한 칸만 버려도 물 자체가 없어서 내려가지 않음. 그래서 학생들도 휴지를 모두 휴지통에 버림. 대부분 규칙을 잘 지키지만 휴지통에 휴지가 넘쳐나고 화장실에 갈때마다 심한 악취때문에 연구실 건물 화장실을 최대한 이용함. 생활관 청소 아주머니들도 휴지통이 넘치는 문제에 대해 힘들어함. 수압 문제를 해결하여,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만들고 생활관 삶의 질 상승 희망함.
- 조리공간 부족, 조리도구 사용 범위 증가 필요
- The dormitory fee is doubled since I enter the school, but the facilities remained same!
- 쓰레기장 이용 교육 요청. 특히 분리배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교육 희망.
- 기혼자 아파트 바퀴벌레 나오기 때문에 소독 희망. 노후 기혼자 아파트는 층간 소음 매우 심함.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직원들의 관심은 거의 없음. 기혼자 아파트 담당 자리가 매우 기피되는 자리라고 함. 관련 부서 직원을 월 몇 회 이상 공실에 거주하도록 조치 희망. 내국인들은 불만이 많으며 외국인 혐오도 생길 것 같음.

- 커튼이 너무 불편하고 곰팡이 및 악취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교체 희망
- 전체적인 환경 개선 및 아파트 쓰레기장 이용 관리 필요
- 의자 수리 맡기면 조립식 의자를 전달해 줌. 취침 시간도 부족한 대학원생들에게 의자 조립할 시간 없음.
- 에어컨 가동시간 제한은 기숙사비도 인상했는데 불합리 하다고 생각함
- 세탁기나 건조기가 부족하며, 잦은 고장 및 위생 문제로 인해 관리 미흡함. 또한 잦은 호실 개방 및 여름철 강제 호실 개방으로 인해 벌레 등이 방에 들어와서 피해가 발생함. 생활관 외부 방역 미흡으로 호실 내 피해 발생. 탄소감소를 위한 녹색 정책에서 예외적인 시설임에도 에어컨 온도제한이 설정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생활관에 거주하는 시간은 잠을 잘 때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의 에어컨 온도제한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궁금하며, 학생들이 받는 피해로 인해 연구수행능력 감소로 이루어짐. 따라서 정책상에서 예외가 가능한 생활관 온도제한은 해제 되어야 함.
- 기혼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함. 그에 비해 사감선생님이 아닌 행정직원들의 대처가 너무 안일함. 말 뿐이고 신경 안 쓰는 것 같음.
- 생활관 내 와이파이 망 접속 제한되는 곳이 너무 많음. 쓸데없는 제재 때문에 연구 효율이 나지 않음.
- 기숙사는 엄연히 개인 공간인데 허락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음. 무엇인가 일 처리 할 때 일이 사전에 미리 공지하고 개인의 스케줄을 신경 써야 한다고 봄.
- 생활관 벌점제도와 벌금이 매우 과함. 벌금이 50만원 정도이니 박사 최저 보상 임금의 절반임. 또한 벌점의 경우 3년에 한 번 소멸되는데, 학생의 생활 지도 목적으로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봄. 이는 자칫 학생에게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 생활관이 학생 편의를 위해 설립되었다는 목적을 고려할 때 매우 개선이 필요한 제도임.

- Adobe 지원 필요 (23건)
 - Acrobat PDF
 - 프리미어 프로
 - 포토샵
- Matlab 지원 개선 필요 (8건)
 - 라이선스 개수 증가
 - 최신 버전 도입 필요: 구버전 사용함수 제한으로 연구수행 불편
 - Toolbox 지원 확대 필요
 - 설치 시 학부(과) 사무실에 물어보아야 하는 불편함 있음
 - 에너지융합대학원 Matlab 지원 요청
 - 현재 GIST의 Matlab 소프트웨어 지원이 미흡함. 기존에 Matlab을 사용하는 학부/과, 연구실에서 지속적인 개선 건의가 있었고, 학교 당국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음. Matlab 캠퍼스 라이선스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비용'이라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음. GIST는 정부 출연기관이면서 연구중심 대학임. 연구에 매우 도움되고 강력한 기능,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임은 이미 검증이 되었음에도 비용문제로 Matlab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음. 학생 수가 5천 명이 안되고 사용하는 학생이 2천 명도 안되는 작은 사립 대학교도 굉장히 많은 Toolbox를 지원하는 라이선스를 구매함. 우리 원보다 예산 규모도 훨씬 작지만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해 구매함. 또한, 4대 과기원 중 Matlab 라이선스를 구비하지 않는 과기원은 우리가 유일함. 다른 과학기술원 학생들은 양질의 소프트웨어로 연구 환경을 구성하고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 원만 비용 문제로 연구실 별로 구매하면서 이용한다면 연구비 수주에 부담이 지워질 것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도 제한이 생겨 연구 역량의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까 심히 우려됨.

- 3D CAD 소프트웨어 지원 희망 (4건)
 - Solidworks
 - CAD 프로그램들은 각 연구실 별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기계공학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음. 하지만 특정 상황의 경우 다른 과에서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한데, 혹시 CAD의 경우 소프트웨어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Mac OS 소프트웨어 지원 필요 (4건)
 - 한글 등
- Graphpad Prism 지원 필요 (4건)
- Windows 지원 희망 (3건)
 - Windows 10
 - Windows 11
 - Windows 11 에듀케이션
- 최신버전 업데이트 희망 (2건) 및 라이선스 개수 증가 희망
-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 희망 (2건)
 - 라이선스 수 부족

- Mendeley 지원 희망 (2건)
- BioRender 지원 필요 (2건)
- 조금 더 많은 소프트웨어 지원 희망 (2건)
- Office 365 라이선스 필요
-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의지 없음
- MetaCyc 지원 필요
- Microsoft visio 지원 필요
- Labview의 최신 버전 지원 필요
- 원격 접속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가격인상 때문이지만 지원이 많이 감소해서 아쉬움
- 학부 전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학부 차원에서 계약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음.
- 소프트웨어의 숫자 부족. 구독 취소된 것들을 개인 사비로 구독하여 사용 중
- 부족함. 소프트웨어를 전부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실 소프트웨어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삭제 요청하는 점이 이해 불가.
- 라이선스 관리가 잘 안된다는 느낌이 강하고, 사실상 각 랩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운영체제, 한글, 오피스, 백신 등 기본 소프트웨어 위주로 잘 관리하면 될 듯함.
- Some of the student licensed software does not accept the international student email as it is @gm.gist.ac.kr instead of @gist.ac.kr, and they regard it as not educational email, so we cannot have this licenses, please consider this point

- 기기 운용 담당자(오퍼레이터) 지원 역량 부족 (10건)
 - 전문 인력 총원 필요 (4건)
 - 분석 지연 및 분석 정확도 저하
 - 일부 장비 오퍼레이터들이 장비 활용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전문적이지도 않음. 이에, 원내 장비 스펙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늦은 샘플 분석, 데이터 처리에서의 반복되는 실수, 샘플 오염 등 오퍼레이터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아직도 전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전남대 KBSI, 카이스트 분석실험실 등을 사용하고 있음. 장비 도입보다 제대로 된 오퍼레이터 고용이 시급하고, 장비당 한 명씩 배정할 것이 아니라, 오퍼레이터 여러 명을 채용할 필요가 있음.
 - 기기센터가 운영된 이후로 많은 원내 학생들이 공용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공용장비를 사용한 경험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비에 비해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담당 선생님들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전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장비들이 해당 장비의 전문가가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음.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에 입장에서는 측정 시 담당 선생님과 토론을 통하여 장비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측정하여 나온 데이터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중앙연구기기센터 기기는 좋습니다만, 특히 주사탐침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의 경우 담당자들이 장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내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며 항상 비싼 돈 내고 외부에서 측정함. 기기마다 실력있는 담당자가 필요함. 한 담당자가 여러 장비 담당하는 게 문제임.
 - 오퍼레이터 인건비 개선 필요
 - 집속 이온 빔 (Focused Ion Beam) 담당자가 없어서 한동안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측정이 힘들었는데, 담당자를 빨리 채용해 주길 희망함.

- 이용료 감면 필요 (5건)
 - 내부이용자 대상
- 이용시간 개선 필요 (4건)
 - 잦은 출장으로 실질적인 사용시간 제약
 - 장비가 조금 더 구축되었으면 좋겠고,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장비 담당자가 자주 바빠서 이를 활용할 시간이 없다는 점
 - 셀프 유저로서 라도 주말 이용 희망. 장비 고장 시 신속히 수리하고, 오퍼레이터 신속한 채용 희망
- 사용 안내 개선 필요 (4건)
 -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 희망(2건)
 - 연락 어렵고 기기 정보 업데이트 미흡
-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부족 (2건)
 - DGIST처럼 클린룸 설비 필요
- 더 높은 수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 필요 (2건)
- 기기 이용 교육 개선 필요 (2건)
 - 교육 횟수 증가 필요
 - 공동장비교육을 연구실별 운영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 희망

- 대체적으로 친절하시고 구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함. 분산 되어있던 기존 연구장비를 한 곳에 모은 것은 정말 좋은 추진이었으며, 앞으로 연구장비의 업그레이드나 추가가 된다면 호남지방 연구인프라를 돕는데 크게 기여하는 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예약 시스템이 비효율적. 어떤 기기 같은 경우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예열 및 준비하는 시간만 3시간 이상 걸리지만 정작 sample을 촬영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됨. 그런데 한 번 예약할 때 4시간씩 예약을 해야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하면 하루에 2명만 예약 가능함. 차라리 오전 9시 ~ 오후 6 사이 예약시스템에서 오전 기기 준비 시간을 제외하고 sample 개수 별 30분 ~ 1시간 씩 예약 가능하길 희망함.
- 학생들의 유동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정보 알림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신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분야별로 최고의 장비를 꾸리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대여/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길 희망. 지금은 별도로 타 기관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실제 반영 및 연구환경 개선 기대 (13건)
 - 학교 주인은 학생임. 다양한 사항에 대해 조사한만큼 현재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의 공무원식 상투적인 답변 대신 실질적 대답 및 개선 청취 희망
 - 문제가 있는 연구실을 파악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이 있어야 함. 교수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가 반드시 필요함.
 -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는데 연구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함
 - 교수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연구실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함
 - 그동안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지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항상 없었음
 - 설문조사 결과가 교수님들께 잘 전달되길 희망
 -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된 의견 중 실제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공지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야 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설문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며 점차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설문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경품 지급으로 인해 의미 없는 설문 응답을 유도하는 것보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응답자에게 실제 생활이 눈에 띄게 개선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함.

- 주기적 설문 조사 요청 (6건)
 - 매년 설문 실시 필요
 - 분기 또는 반기 설문 실시 필요. 학생 불만을 서로 이야기만 하고 학교에 전달할 수 없으니 익명 설문조사가 많아야 학교 발전에 도움 됨
 - GIST에서 9년 동안 지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문제가 있음. 여기는 폐쇄적이고 정체되어 있음. 학교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추진력이 약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 및 조직이 부재함. 변화를 이야기하는 교수님, 학생, 직원분들은 2~3년이 지나면 학교를 떠나거나 체념하게 됨. 그나마 예전에는 우리 학교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선하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조차 학교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음. 보통 그러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눈총을 받다가 마음이 꺾이거나 포기하고 더 좋은 곳으로 장소를 옮겼음. 그래서 이러한 연구환경 실태조사가 더 활발하게, 내년에도 꼭 제대로 이루어지길 희망함. 원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필요한데, 1년에 한번이라도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데이터로 정리가 되어 전달되길 희망. 이번 학생회처럼 변화를 요구하는 누군가가 또 나타나면 쌓여 있는 데이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음.

- 철저한 익명성 보장 필요 (3건)
 -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걱정됨. 이전 신소재공학부에서 랩 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 때문에 신뢰 가지 않음. 학교는 학생의 연구환경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지 의문임
 - 메일에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적어 놓은 것과 달리 연차, 소속 등 개인 신상정보를 응답하는 설문지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함. 학과, 출생연도, 연차, 지스트 체류 기간 등을 모두 교집합으로 두면 인물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정보를 수집하는 했으면 함.
- 설문조사 결과 대학원생에게 공유 희망
 - 질문의 세밀함에 상당히 놀랐음.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사라는 것이 느껴졌음. 그래서 더 성실히 답변함. 설문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의 응답들이 공지를 통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응답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왜 반영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공지가 되었으면 좋겠음. 학생들이 피드백을 듣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른다면 불만만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

- 설문조사 회의론
 - 어차피 학계를 떠날 것이 아니면, 이 좁은 바닥에서 누구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함. 인권문제 개선 시도는 실질적으로 의미 없으며,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료 소프트웨어 지원 및 전자저널 구독 숫자 증가 요청. 현재 논문 열람이 안되어 연구를 못함.
- 다수 애매한 설문문항 확인
 - 연구실 업무목적, 업무 외적 거주 시간을 질문한 후 연구실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시간을 반복하여 질문하기 때문에 이것이 두 경우를 포함시킨 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함
- 현재와 같이 과학기술원을 운영한다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음. 노예와 같이 굴리는데 인건비도 제대로 안 주며 정도 다 떨어짐. 연구실 분위기 안 좋았으면 여기 떠나고도 남았음.
- 지도교수님 대상으로 유사 질문 실태조사 희망
-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을 더 생각해 주길 희망

2022 G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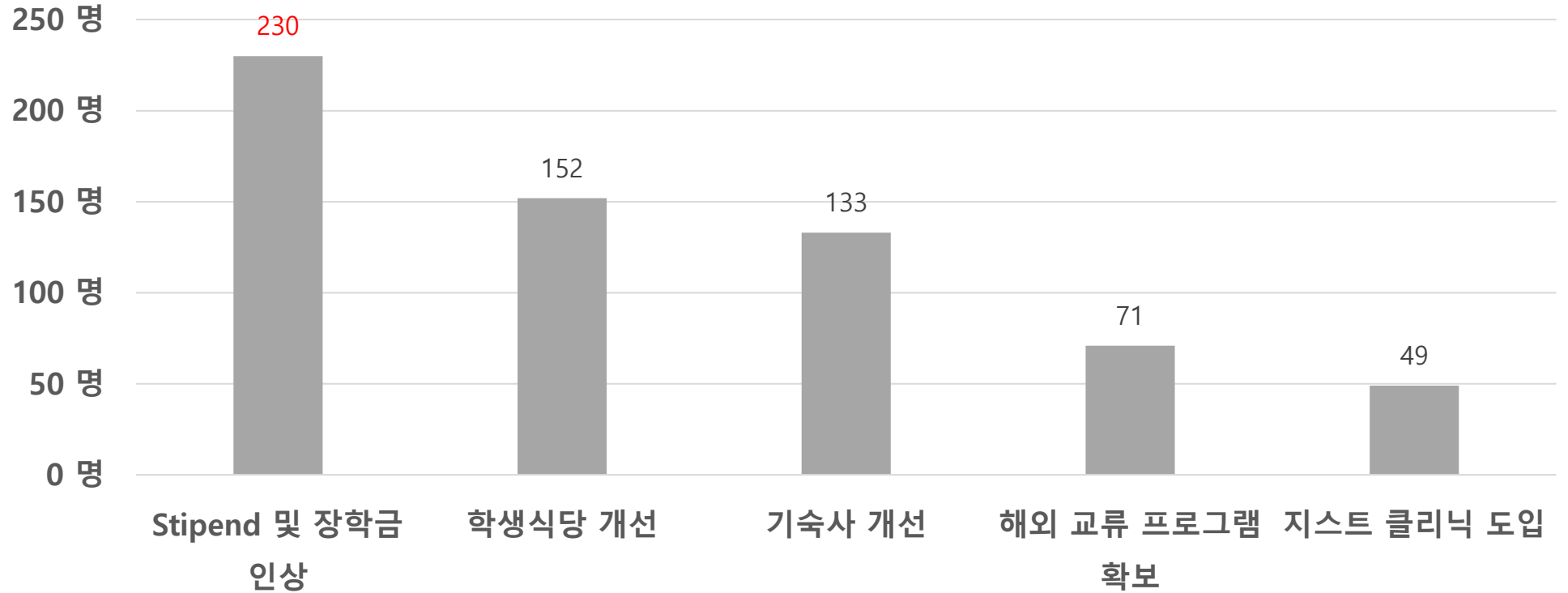
연구환경 실태조사 2부

(연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안)

조사목적

GIST 대학원생들의 정확한 요구사항 파악을 통한 행정부의 예산 및 행정력 집행 효율 증진 기대

- 연구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안을 1가지 이상 고르시오.
[필수 응답, 복수 응답 가능]



- 학생 인건비도 부족, Caltech 결연 종료, 기숙사 고품격이 존재.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생들이 GIST 대학원에 지원을 할 메리트가 전혀 없음. 가뜰이나 풍토가 대학원 안 가는 추세이며 인구수도 적는데, 대학원생을 위한 실질적인 금전적 복지와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한 학생 수가 줄어 GIST가 자체적으로 소멸할까 우려됨
- 기숙사 룸메이트와 너무 맞지 않음. 인건비 등에 어려움이 있음.
- 학생식당 선택지가 제한적이며, 장학금 보장이 더 증가했으면 함, 그리고 기숙사 시설 굉장히 노후 되어 있음.
- 더 많은 인건비 필요, 학생식당 메뉴 불만족
- 기숙사 시설 노후. 학생식당 음식의 질이 좋지 않음
- 외국인 학생으로서 스타이펜드와 장학금이 반드시 증가되어야 함. 연구실에 가는 특정 시간대가 있음. 기숙사 개인실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외국인 학생들은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이주 후 우울해짐. 따라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상담센터가 반드시 영어로 운영되어야 함 (영어 답변)
- 학생식당 음식 품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됨. 예를 들어 뷔페식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던 닭 요리 음식이 지금은 특식 형태로 나와서 자율적인 배식도 힘들어진 상황임.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대부분 연구실에서 학생 인건비는 동결됨. 현재 스타이펜드 기준을 맞춘다고 하여도 한달 동안 살아가는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낮은 기숙사 개선과 넉넉한 장학금은 학생입장에서 좋을 것 같음.
- 학생식당 식단 품질 및 기숙사 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원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해지고 있음.
- GIST에서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클리닉 활성화 필요, 기숙사 노후화 개선 필요, 타대학교 인건비 상한액 인상 등 고려하여 인건비 향상 필요

- 지스트 클리닉: 병원 한 번 다녀오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 내 있으면 매우 편리할 것 같음
학생식당: 메뉴가 다소 한정적
- 교내 대학원생 대부분이 90년대 중반에 지어진 대학원 생활관의 좁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음. 이를 보완할 대책 필요
- 대학원 기숙사는 너무 노후화되고 좁음. Stipend는 물가 상승 비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
- 맛있는 밥 먹고 구매하고 싶은 것 적당히 살 수 있기를 희망
- 학생식당의 경우 가격이 오르기 전과 후의 품질 차이를 잘 모르겠음. 기숙사는 점차 노후 되는데, 매년 거주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음. 또한 기숙사 거주비는 상승하는데 비해 학생 인건비는 유지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움. Stipend의 경우 물가가 많이 상승한 지금 기준 너무 적음. 학생식당도 한끼 식사비 4,800원 이기 때문에 1일 아침, 점심, 저녁을 학생식당에서 식사하면 12,400원이며, 한 달 기준 약 37만원 임. 따라서 60만원 중 8만원은 기숙사비로 나가고 52만원이 남는데, 52만원 중 한달 내내 학생식당에서 식사하면, 15만원만 남음. 이 돈으로 식비를 제외한 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힘듬. 따라서 Stipend 및 장학금 인상은 매우 필요한 사항.
- 학생식당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지원 필요. 노후 된 기숙사 수리 필요. 물가 상승에 따른 기숙사비 증가는 납득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기숙사 시설 개선은 체감되지 않음. 불편사항들이 적시에 고쳐지지 않음.
- 학생식당: 메뉴와 가격의 선택지가 좁음. Stipend 및 장학금 인상: 생활비 부족
- 월급으로는 부족하니 장학금 인상해주면 좋겠음. 또한 대학원생의 해외교류 프로그램도 해외 출장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음.
- 클리닉 부재, 학생식당 및 기숙사 부실, 장학금 인상 필요
- 월급이 적음. 기숙사가 매우 좁음.
- 다쳤을 때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지스트 클리닉 필요, 점심 및 저녁 식사 품질 향상 희망, 장학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생식당 질적 하락, 물가 상승으로 인한 stipend 및 장학금 인상 필요, 해외 교류 적음.
-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생식당, 교내 카페 등 모든 가격이 상승함. 상승하지 않은 것은 오직 대학원생 인건비임.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대학원생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
- DGIST에 비해 장학금이 적음. 최근 학생식당 식사 맛이 떨어짐.
-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장학금 인상이 필요하며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을 기회가 대학원생에게도 주어져야 함.
- - 학생식당 운영시간 연장: 항시 운영하는 부스가 있으면 좋겠음.
- - 라면 판매: 지스트는 주변에 가게들이 멀어서 심야까지 연구/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언가를 먹기가 불편함. 좁은 공간에서 라면 단일 메뉴라도 먹을 것을 파는 곳이 있으면 학생들이 굶지 않고 연구할 수 있을 것.
- - 지스트 클리닉: 학업 및 연구 등으로 인해 우울증 및 분노를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 심리 상담 및 육체적으로 아픈 학생들을 위한 클리닉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함. 코로나 상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보건실은 선생님이 항시 오피스에 있지 않고 전화를 하면 1층에서 올라와서 진료를 봐주는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보건실이 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픈데도 그냥 돌아 감
- - 대학원 기숙사: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안 좋음. 학부 기숙사와 비교 시 더욱 심각한 수준. 대학원 기숙사를 새롭게 지어야 함.
- - 해외 교류 프로그램: 말만 거창하고 최근에 칼텍과 교류가 끊어지는 등 더 이상 입시하는 고등학생들이 지스트에 올 메리트를 못 느끼는 듯 함. 일부만 뽑아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가능 것이 아니라 입학생 모두를 무조건 보내준다고 하면 입시 실적도 좋아질 것.
- 학식 식단 다양성 부족. 최근 기숙사 입구 앞 흡연으로 인해 연기가 창문을 통해 실내로 유입됨. 기숙사 화장실 부적절한 이용 등 공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모습이 자주 보임.
- 학생식당 메뉴 개선 및 기숙사 시설 노후화 해결 필요
- 클리닉 시설 부재로 인해 원외로 나가서 진료를 보기가 번거로움. 대학원생에게는 해외교류 기회가 없음.

- 학생식당의 경우 다른 대학과 비교 시 가격대비 품질이 떨어짐, 기숙사의 경우 호실 내 노후 시설들 개선 필요. 적은 학생 인건비로 인해 생활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기숙사 노후화 개선 및 생활 최저 임금 필요
- 주거시설이 편리해야 일에 집중이 잘되고, 돈 걱정이 없어야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음.
- 타 학교 대비 식단가에 대비 식단 품질 및 재료가 매우 부실하며, 인건비도 철저히 보장되지 않으면서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밥이 맛 없음. 인건비 부족. (2명)
- 매주 유사한 식단. 최저 임금에 비해 부족한 장학금
- 모든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기숙사 시설 개선과 장학금 인상이라 생각함. 의료시설은 학교 주변에도 많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교내 지스트 클리닉을 이용할 뿐 전체 재학생의 연구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효과가 없다고 봄
- 기숙사비는 인상되나 상태는 안 좋아짐, 돈 부족함
- 식단이 단조롭다고 생각됨. 또한 장학금이 약간 인상되면 학생들의 공부 동기가 더 생길 것으로 예상.
- 학생 식당 퀄리티를 생각할 때, 별로 방문하고 싶지 않음. 생활비 부족.
- 대학원 기숙사의 경우 시설 노후화 및 공용 이용시설이 많아 코로나 이후 위생 문제에 취약한 상황이며 개선이 필요함. 해외 연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함.
- 학생식당의 메뉴 다양화 및 실 지급 인건비 상승 희망.
- 의식주에 신경 쓰는 시간 및 에너지 줄일 수 있길 희망함.

- 기숙사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 희망. 학생식당은 기존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에 비해 식단 품질이 낮고 가격은 높기 때문에 개선 필요.
- 오르는 기숙사 주거비 비해 부족한 시설관리, Stipend 인상 희망, 해외 여러 프로그램 방문 희망.
- 학생 인건비 향상이 제일 중요하며, 학생식당도 한끼 때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먹으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곳이었으면 함.
- GIST는 타 대학에 비해 학생들의 생활시설 불편이 많음.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기숙사 및 학생식당, 학생 인건비 개선 필요.
- 외부 병원 들릴 시간 없기 때문에 지스트 클리닉 도입 필요, 학생식당 식단 개선 필요, 인건비 상승 요청
- 장학금 인상: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해외 교류 프로그램 확보: 연구 지식 및 성과 성장을 위해
- 지스트 내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고, 학생식당 메뉴 조합이 가끔 이상할 때가 있었음. 물가는 오르는데 stipend는 그대로임.
- 학생 식당은 가격을 상승시키더라도 조금 더 맛이 개선되길 희망함. 전체적으로 급여 수준이 오른다면 학생 식당 가격 인상에 대해 반발이 적을 수 있고, 학생 식당 개선에 도움됨.
- 대학원 구 기숙사 건물 노후화로 인해 호실 내 곰팡이 발생 및 난방이 안되는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함. stipend 및 장학금 인상은 물가를 고려하여 학생입장에서 인상이 되었으면 함. 물론 기숙사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인상을 하고 있음. stipend 및 장학금 인상 인상도 필요함.
- 현재 받고 있는 장학금으로는 한 달을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함. 학생 식당의 질이 더 좋아진다면 식비에 의한 생활비 부족 부담을 덜 수 있음. 학생식당 가격과 기숙사 거부지가 비싸며, 스타이펜드 너무 낮음
- 시설이용료는 올라가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은 보이질 않고, 연구실 인건비 지원은 항상 그대로 임. 즉 수입은 멈춰 있는데, 지출은 증가하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 개선이 없어, 대학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 학교의 고립된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학생들의 의료시설 및 편의시설의 환경 개선 필요. 또한 물가 인상을 고려한 stipend 및 장학금 인상 필요
- 지스트 클리닉은 필요해 보이지 않음, 학생식당이나 기숙사 개선은 학생들이 체감하기 어려움
- 학생식당 만족도 상당히 떨어져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달이용. 학생들의 기본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수님들이 학생 인건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니 학교 차원에서 기본적인 금액을 보장하는 방법 필요
-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
- 물가는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데 학생 인건비와 장학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연구실 사람들과 외식하거나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부담됨
- 기숙사 1인실 수 부족. 지급받는 인건비에 비해 대학원생들에게 맡겨지는 연구 프로젝트 관련 업무 및 실적 부담이 큼
- 학생 생활 전반적인 개선 필요
- 학생식당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늘 있었음. 프랜차이즈 도입 등 다른 방식으로 식사 품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숙사 1인실을 늘리고 조리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음. 또한 최저시급의 인상 및 다양한 장학금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느낄 필요가 있음. 특히 글로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고 기존 학생들에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I visited KAIST recently for a business trip and I was amazed by their cafeteria options. They even had a separate Halal cafeteria and Halal menu in the main cafeteria. After the overdue period, scholarships are stopped but the stipend is not raised proportionally, also I know some cases where students are not receiving the minimum amount mentioned in the guideline. So I think this should be monitored.
- 최근 의료비 증가 때문에 지스트 클리닉 도입 필요, 학생식당 채소류 증가 필요, 기숙사 청결 및 안전 검사 회수 감소, 최근 생활비 증가 때문에 stipend 및 장학금 인상 필요, 해외 교류 프로그램 필요

- 기숙사 개선: 대학원 생활관(이하 기숙사)에 소음 및 방음 문제가 심각함. 1-7동 기숙사에서 약 1년 정도 거주하면서 느낀 바로는, 근처 호실에서 소리를 크게 내면 방음이 되지 않고 소음 발생 인원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면을 취하기 시작할 시간인 10~11시에 굉장히 큰 소음을 내는 인원이 있다는 것임.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으며 소음 발생원을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일부 외국인 학생들도 자신이 큰 소음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오후 10시 ~ 오전 6시와 같은 야간 특정 시간에 학생들이 소음을 발생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수칙의 제정과 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위반 시 징계를 분명히 해야함.

Stipend 및 장학금 인상: 최근 지속적 물가 상승으로 stipend 기준 계상 시점과 많은 차이 발생함. 또한 원내의 기숙사비의 인상과 학생식당 식권 가격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생활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음. 우리 원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대학원생들의 최소 생활 여건 보장 취지인 stipend의 기준 재계상 필요함.

-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맛이 없음. 기숙사는 호실 별 습도 조절 필요
- 학생식당 식단가가 이전보다 상승하였지만, 맛은 더 이상함. 생활비 부족, 해외 참여 기회 증가 희망
- 의식주 해결이 미흡
- 학생식당 음식 품질이 가격을 인상한 것 대비 부족함. 실질적인 연구 수행 시간에 비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학금 인상 필요
- 학생 인건비 기본 보장 금액 향상 희망. 학부생에 비해 대학원생 해외 교류 부족
- 기숙사 개선을 통한 기숙사 거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거비용 개선. 그리고 stipend 및 장학금 인상을 통하여 생활비 문제 해결. 해외교류를 통한 인재양성
- 물가는 상승하지만 학생 인건비 불변. 학생식당 가격도 상승하였는데 영양불균형이 심하며, 식단 품질이 미흡함. 기혼자 아파트 베란다, 복도 샷시 노후화, 장마철 비 세는 문제, 베란다 타일 노후화 등이 있음
- 기숙사 화장실 개선 필요, 교수님께서 작게 설정된 기본 장학금에 비해 많이 지급하는 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함.

- 생활비 다소 부족. 학생식당에서 소시지, 햄, 만두와 같은 즉석조리 식품 위주를 제공하며 개선 필요
- 최근 식비 및 물가가 많이 상승함. 지스트 클리닉 도입이 구성원 복지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지스트 클리닉 도입을 통해 응급대응이 가능한 기본진료소 필요.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외부 경제 활동 금지로 알고 있지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음. 한 달 동안 학생식당에서 식사만 하여도 석사학생들은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음. 국립대 학비 기준 과외 등 외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생활적 측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함. 대학원생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음
- 기숙사 생활 개선 필요. 장학금 지급으로 부족한 인건비 충당 필요.
- 대학원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학원 기숙사 리모델링 및 학생 인건비 인상이 시급함
- 이전에는 학생 식당 식단 품질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조금씩 저하되며 재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Stipend는 박사과정 100만원이 현재 최저 금액입니다만, 여기에 맞추어 주는 연구실의 경우 오르는 기본 물가나 상황에 비해 인건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준 최저 금액이 120만원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해외 교류 프로그램은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필요함.
- 기숙사 시설 노후로 개선 필요, 대부분 석사생들의 월급으론 한 달 생활비 부족하기 때문에 장학금 인상 필요
- 제1학생회관 학생식당이 주말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기숙사에 거주자들은 주말 외식을 해야 함. 이번 폭설에는 외식하지도 못하고 별도 배달 주문도 불가 하였음. 운영업체 손익 문제를 따지기 전 기본적으로 학생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기숙사 거주 비용도 다른 과학기술원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2배를 올려놓고, 1인실은 거의 두 배를 받음. 1인실이라고 2배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 수가 반절이니 그만큼 지불하라는 것은 납득되지 않음. 그런 이유라면 3-4인실은 반절만 받아야함. GIST에서 BK장학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큼. 하지만 GIST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음. 당시 홍보 글에는 BK장학금 관련 내용이 있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GIST에서 고려해야 하였음.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맡아 놓은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 의식주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평균적으로 학생 식당 음식의 맛 상향 희망. 대학원 기숙사 환기 개선 요청
- 학생식당 개선: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 식사 희망, 기숙사 개선: 1인실 거주 희망, Stipend 및 장학금 인상희망
- 학생식당이 매년 동일메뉴 반복하며 맛 없음. 물가 인상에도 학생 인건비는 10년 넘게 유지됨. 대학원생은 노예라는 인식이 대중에게 각인되었고, 학생 수 감소와 겹쳐 대학원 신입생이 지난 몇 년간 거의 끊기다시피 함. 우수인력이 유입을 위해 기본적 처우 개선 필요
- 기숙사 거주 비용 및 학생식당 식사 가격은 매해 상승하지만, 학생들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음.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활 환경 개선 희망.
- 학생식당 음식 품질이 낮음. 업체 측에서 계속 적자라고 하지만 맛없고 학생은 더 적게 오는 악순환 반복. GIST에서 지원 비용을 조금 올리고 가격 인상을 해서라도 품질을 상승시키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연차초과자의 경우 지원혜택이 급감하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함. 졸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인 경우가 많은데 비용 문제가 크게 다가옴. 연차 초과자를 배려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 확충 필요
- 오래된 기숙사 시설 개선 필요
- 기숙사 호실 내 화장실 보유 희망.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장학금 인상 희망. 짧은 석사 기간이지만,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은 기회로 생각함.
- 응급 상황 대비 지스트 클리닉 필요. 기숙사의 경우 외부 및 화장실 쓰레기통 문제 해결 필요
- 학생식당 메뉴 이름만 다른 비슷한 메뉴 반복으로 물림. 학생 인건비 부족.
- 9동을 제외한 대학원생 기숙사는 매우 습하고 1층은 창문 환기도 어려워 생활이 쾌적하지 않음. 장학금 자체가 인상이 되어야 연구실에서 주어지는 기본 급여 인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숙사 이용료 및 식대는 매년 상승 중이며 특히 최근 폭증함. 그러나 Stipend의 경우 제정 이후 매년 동일하게 유지중. 지스트는 국외 경쟁을 지향하지만, 학부생을 제외한 대학원생 입장에서 해외 교류프로그램을 들어본 적 없음.

- 연구실 장비와 달리 생활시설과 학생 인건비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임. GIST 대학원 기숙사비는 인상되었지만, 낙후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체감하기 어려움. 올해 학생식당 가격도 소폭 상승했는데 학생 인건비는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음. 학교 차원에서 Stipend와 장학금 인상, 생활시설 투자 증가 필요.
- 학생식당 식사가 만족스럽지 않았으며, Stipend 금액이 최소한 생활을 유지하기 빠듯한 금액임
- 지스트 클리닉 도입보다는 학생식당과 기숙사 환경 개선이 더 와닿을 것 같음
- 학생식당 및 기숙사 등 생활 필수 요소에서 매일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면 연구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지스트 내에서 생활하는 만큼 의식주 대한 개선 희망.
- 잠자는 곳과 생활하는 비용이 제일 중요함.
- 주변 상권과 공원 하나를 사이에 두기 때문에 식당이 맘에 들지 않으면 15분 이상 외부로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힘듦. 학생들 인건비가 최저 임금 수준으로 상승 희망. 대학원생도 해외에 다양하게 나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음
- 학생식당 메뉴 다변화 및 해외 교류 프로그램 지원 증가 필요.
- 제1학생회관 학생식당의 경우 일반적인 저녁식사시간인 18:00에 출발하여 식당에 18:05~18:10쯤에 도착하면, 음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음. 스타이펜드는 매년 조정 필요
- 맛과 품질에 비해 학생식당 가격이 비쌌음, 기숙사 노후 개선 필요
- 학생 식당 푸드코트 및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도입 희망, 그리고 1인실을 추가적으로 증편하면 연구에 훨씬 도움됨. 그리고 좀 더 시야를 확장 시키기 위해 해외 교류필요

- 연구의욕 저하 및 대학원 퇴학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학생복지와 학생 인건비. 최소보장임금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야 함. 학생 복지 증진 효과가 가장 큰 것이 학생식당 개선임
- 연차 초과자 장학금 미지급 폐지, 인건비 인상, 휴가 보장.
- 학생식당 메뉴 다양화, 장학금 인상 필요
- 좋은 연구를 위한 지원 필요
- 의식주 측면에서 '식'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 외식 및 배달음식 이용이 줄도록 학생식당이 개선 되거나 식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stipend가 인상되는게 맞다고 봄.

- 충분한 경제적 지원 희망 (24건)
 - 다른 사안보다 생활에 필수적인 돈이 중요 (2건)
 - 겸업이 불가능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매우 적음
 - 장학금 부족
 - 물리광과학과의 경우 타 학부(과) 대비 심각하게 인건비가 적음
 - 생활 개선보다 인건비 인상 선호
 - 석사과정 1년 차 최저 인건비가 낮음
 - 연구실 별 인건비 차이가 너무 심함
 - 다양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학교를 다니길 희망
 - 학생 인건비가 사회(직장)인들과 너무 비교 시 너무 적음
 - 현재 stipend 책정 금액은 학생식당에서만 식사하고, 저축하지 않으며, 본가를 가지 않으면서 교통비를 아끼고, 여가활동 없이 최소한 생활을 할 경우에만 충분하다고 생각함. 졸업 후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 박사후 과정을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 할 때 필요한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stipend 및 장학금 인상 필요
 - 충분한 경제적 지원 시 연구 동기부여 가능
 - 연구실 별 인건비 담합, 4대 과학기술원 중 최저 수준 학생 인건비, 물가 인상
 - 연구 및 과제 수행 업무에 비해 임금 적음

- 충분한 경제적 지원 희망 (24건)
 - 금전적 문제 없을 경우 연구에 집중 가능
 - 첨단동 식사 한 끼가 최소 8천 원, 보통 1만 3천 ~ 6천 원을 배회하는데, 대학원생 박사과정 기준으로, 식비보조비는 십 몇 년 째 10만 원으로 제자리이며, 국비보조비는 몇 년 째 동결인 상태임. 코로나 시대와 우-러 전쟁을 겪으면서 식비는 물론, 생활비와 교통비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박사과정 인건비 상한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함. 연봉에 상한선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는가. STIPEND는 유지하되, 상한선 철폐를 주장함.
 - 월급이 많으면 보다 생활이 현재보다 윤택할 것 예상
 - 장학금이 인상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 학생 인건비 향상을 위한 스타이펜드 인상 필요
 - 실험 및 인맥으로 다양한 경험이 필수라고 생각함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학교에서 가장 도움 줄 수 있는 것임
 - 수주 과제나 하는 일 그리고 나이대를 고려한 경제적 상황을 볼 때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함.

- 물가상승률 대비 부족한 학생 인건비 (19건)
 -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른 stipend 인상 필요 (4건)
 - 최근 밥 한 끼 사 먹는 것조차 부담. 대학원생이 돈 벌기 위해 학위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 고려 필요
 - 코로나19 이후 큰 물가 상승 대비 인건비 부분 인상이 없었고 앞으로 인상 계획조차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움.
 - 최저임금 및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대학원생 인건비는 계속 제자리인지 모르겠음. 학생식당에서 식사만하고, 기숙사에 거주해야 저축,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 즐길 수 있음
 - Stipend와 현실 물가 사이에 괴리감 느낌
 - 물가 상승률 대비 실질 인건비가 제한적이어서 생활 어려움
 - 인건비 동결
 -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장학금이 인상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좋을 것
 -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움
 - 장학금 기준은 20-30년 전 물가를 반영하여 책정이 된 것인데, 바뀌고 있지 않음. 석사과정 동안 기숙사를 살아도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며, 지금 박사 과정을 진입해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대학원의 길을 들어서기에 고민 이상으로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함.

- 생활비 부족 (14건)
 - 기혼자에게 불충분함 (영어 답변)
 - 신생 연구실 학생으로써 생활이 불가능 한 장학금 수준
 - 근로시간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에 비해 장학금이 적다
 - 인건비만으로는 생활 어려움
 - 학생 연구자 생활환경 유지 필요
 - 석사과정 stipend 책정 금액 적기 때문에 생활 어려움
 - 타 연구실 친구들이 최저 stipend 금액만 지급 받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 목격
 - 대학원생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생활고 겪는 사례 존재
 - 생활하기에 월급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월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지급 희망 (3건)
- Stipend 제도 개선 필요 (2건)
 - 현재 Stipend 금액이 최소 인건비가 아닌 인건비 지급 기준이 됨.
 - 교수 능력 부족으로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랩의 학생들을 위해 다른 랩에서 돈을 거두어 뿌리는 제도는 바보 같음. 물론 초임교수에게는 이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만, 중년교수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또 스타이펜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악질 학생에 대한 대처 전략이 필요함.

- 산학연 대학원생들을 위한 장학금 신설 희망
- GIST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생 인건비 상승 필요
 - 서울 일반 대학원 일부/타 과기특성화대학 보다 인건비가 작음.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 상승 필요
- 근무 시간 대비 인건비 부족
- 연구는 학생 노동력이 필요하며, 학생 유도하는 요인임 (영어 답변)

- 식단 품질 개선 필요 (30건)
 - 맛있는 식사 희망 (10건)
 - 맛에 비해 가격이 비쌘
 - 맛이 없어서 안 먹게 되었음.
 - 제1학생회관 및 제2학생회관 식당 음식 업체가 동일하여 맛이 같고 선택사항이 감소됨. 식당이 개선된다면 배달음식을 시키거나 외부로 나가지 않고 식사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개선 기대
 - 학생식당의 메뉴가 가격 대비 맛이 떨어지고 운영도 미흡함
 - 학생식당이 맛있으면 외부로 잘 나가지 않고 원내 다른 시설도 잘 이용하게 됨. 학생식당이 미흡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 체육시설 등을 한 번에 이용하고 있음. 의식주 기본적인 3가지 해결 필요
 - 다양한 메뉴 제공 필요 (2건)
 - 중복 메뉴를 제공하며, 간이 안 맞음
 - 동일 메뉴 제공으로 인해 오래 먹으면 질림. 추가 선택지 확보 희망
 - 가격대비 부실한 식단 품질 (2건)
 -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데 가격은 계속 인상됨.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 있음.
 - 가격은 상승하였는데 퀄리티는 낮아짐

- 식단 품질 개선 필요 (30건)
 - 식단 영양 개선 필요 (2건)
 - 제2학생회관 1층 학생식당 식단 단백질 부족
 -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단 편성 요청. 대체적으로 탄수화물 과다 식단으로 편성됨. 주로 육 가공 제품과 같은 저렴한 식자재 사용
 - 석식 불만족 (2건)
 - 제1학생회관 1층 학생식당 석식 특히 부실함. 식단 품질 매우 저하됨
 - 시간이 지날수록 메뉴가 유사해지며, 영양성분이 탄수화물 위주이고 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식단 품질은 저하됨. 특히 고기 품질이 낮으며, 매일 튀겨진 냉동식품 제공
 - 신선한 쌀 사용 필요
 -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멀리 나갈 수 없고 직접 조리해서 식사하기도 힘든 상황임. 매일 이용해야 하는 학생 식당이 개선되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밥은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임 (2명)
- 습도 저하 등 식당 위생 개선 필요
- 학생식당 가격 인하 필요
- 자유로운 학생식당 이용시간 확대 필요
- 원내 음식 선택 폭 확대 필요
- 학생식당이 할랄(Halal) 음식 선택지를 제공해야 함. (영어 답변)

- 미흡한 주거 환경 및 노후화 시설 개선 필요 (18건)
 - 구관(1-7동) 개선 필요
 - 리모델링 (2건)
 - 1동 (2건)
 - 1-7동
 - 현재 개선 대비책 부재
 - 건강 개선을 위해 기숙사 개선 필요
 - 주기적 점검 필요
 - 미흡한 거주환경으로 인해 3개월 정도 지낸 후 현재 외부 거주 중
 - 청결하지 못하며, 노후 된 시설 및 수질 개선 필요
 - 화장실 시설 개선 필요
- 1인실 추가 확보 필요 (4건)
 - 대학원생에게 룸메이트와 같이 생활하는 환경이 불편
- 청결 유지 필요 (4건)
 - 화장실 곰팡이 제거 필요
 - 기숙사 모든 호실 내 곰팡이 존재. 20년 사용했다면 주기적 관리 필요함. 담당 직원들이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필요
 - 우수한 연구 환경 뿐만 아니라, 설문 응답한 다른 요소들도 중요함. 외국인 학생들은 기숙사와 연구실이 집이며,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 기숙사 세면장 관리가 안되고 있음. (영어 답변)

- 지속적 기숙사비 인상에 따른 합당한 대우 제공 요청 (3건)
 - 기숙사비 인상률 대비 낙후된 시설 개선 필요
 - 여름 철 에어컨 온도 제어 제약 완화 필요
- 냉난방 통제 방식 개선 필요 (3건)
 - 개별 난방 시스템 도입 필요 (2건)
 - 겨울 난방 개선 필요
 - 중앙 난방 시스템으로는 누구의 요구도 맞출 수 없음
- 1-7동(구관) 좁은 공간 개선 필요 (2건)
 - 2인실이 닭장 혹은 고시원 같음
- 기숙사비 인상률 완화 필요 (2건)
 - 노후 된 시설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스타이펜드(최저임금제) 대비 기숙사비 인상율이 지나치게 높음
 - 학교 측의 기숙사비 인상 논리에 비약이 있음. 관심 부족으로 인해 기숙사비를 인상하지 않았으면서,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았으니 매년 인상하겠다는 이상한 논리 주장. 최근 2인실을 혼자 사용할 경우 비용을 2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제도를 이야기 했는데, 구관의 경우 누가 2배를 지불하고 거주하고 싶겠는지 의견 제시한 분이 직접 거주해 볼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원 중 학생 기숙사가 가장 좋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9동 신관만 게시해 놓고 기숙사 좋은 것 처럼 홍보하는 상황을 볼 때 학교 측에서도 구관 기숙사가 미흡한 상황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함.

- 1층에만 있는 전자레인지 추가 설치 필요
- 1인실 1년에 한 번씩 추첨 후 호실 변경하는 제도 불편하며 개선 필요
- 생활관 1~8동 변기 배수 문제 개선 필요
- 9동 1층 에어컨 수리 필요
- 기숙사 관리 제도 마련 요청
 - 현재 기숙사 관리 제도가 부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입사생이 약 2년 단위 주기적 퇴실 후 호실 대청소, 필요시 도배 및 시설 교체와 같은 정리 정돈 후 새 인원을 입사 시켜야 함. 박사과정도 번거롭지만 2년 단위로 호실을 이동하거나, 혹은 룸메이트와 협의하여 해당 시스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함. 이 제도가 다소 강제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쾌적한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다른 학교 기숙사의 경우 모든 학생이 6개월~1년 단위로 주기적인 퇴실이 이루어짐. 대학원 기숙사의 경우 6개월~1년 단위는 어렵더라도 정규 석사과정 기간인 2년 단위의 주기적인 퇴실 및 정리정돈 필요. 현 상태에서는 10년 이상 같은 벽지, 매트리스를 사용하게 됨.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 한 호실에서 5~6년 이상 거주하는데 해당 호실들의 상태를 보장할 수 없음. 석사과정의 경우 2년 단위 퇴실 사이클이 있을 테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학원생 대상 해외 교류 프로그램 도입 필요 (14건)
 - 학부생과 비교 시 해외 교류 프로그램 부족 (2건)
 -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 우수 학교 및 기관과 교류 기회 증진 필요. 교수님들과 연구 시설은 이미 국내 최상위급
 - 연구실 별 국제 교류 관심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차원 해외 연구소, 학회 등 국제 교류 기회 확보 필요
 - 해외 문화 습득 가능 (영어 답변)
 - 최신 기술 경쟁력 확보 가능
 - 지스트 위상 저하로 인해 기존 대비 해외교류 프로그램 많이 폐지됨
 - GIST 대학생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학문적, 인성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음
 - 해외 학회 참석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음

- 지스트 클리닉 도입 필요 (9건)
 - 대학원생이 외부 병원을 다녀올 만한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GIST 클리닉이 도입된다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 예상 (2건)
 - 학생 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 필요
 - 지스트 내 가정의학과 및 약국 도입 희망
 -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적 정신적 시스템 강화 예상
 - 현재 의료 시설 부족
 - 지스트 클리닉이 도입되어 일과 시간 중 몸 아플 때 방문 희망
 - 학교에서 대학원생 건강을 챙겨준다면, 정말 고마움을 느낄 것
 - 접근성 향상
- 지스트 클리닉 도입 필요성 의문 (3건)
 - GIST는 타 과기원과 다르게 지리적으로 여러 1-2차 병원이 인접함. 지스트 클리닉 필요성 공감 불가. (2건)
 - 차선책으로 KAIST 학생의료상조회 유사 제도 시행하면 해결 가능. 특정 교수가 도입을 주도하는 상황에 대해 거부감 있음
- 지스트 클리닉 도입 공지 후 지연되는 상황 안내 필요 (3건)
 - 도서관 카페 내부 약국 공간 개설 후 공실로 남아 있음 (2건)
 - 내외국인 의료 복지 중요
- 신속하게 상비약을 얻을 수 있는 환경 필요
- 학교에서 약국까지 거리가 있고 도서관 내 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운영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공간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 아쉬움

- 연구수준 향상 (2건)
- GIST 내 편의 시설 확충 (2건)
- GIST에서 전자저널 구독 증가를 우선시해야 함. 현재 저널 구독을 감소시켜서 열람 불가능한 논문들이 많음
- 연구장비 투자 필요
- Language clinic 운영 및 홍보 개선 필요
- 다양한 강의 편성 필요
- 출장비 인상 필요
- 학교에서 해외 학회 참가 지원 필요
- 대학원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채용설명회 다수 개최 필요
- 현재보다 개선되고 안정적인 기본생활 보장 환경 필요
- 대학원생 여러 처우개선 필요
-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연구 외적인 과도한 업무 줄여야 함
- 학교 내 여가활동 및 휴식 공간 확충 필요
-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불합리한 대학원생 처우 개선 필요
- 적극적 인력 양성 필요 (졸업 후 고려)

- 교수님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간섭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 불이익, 처벌 필요
- 지도교수 인식변화 필요
- 다른 시급한 문제 많음
- 현 상황 만족

THE END

문의 및 건의사항

대학원총학생회 홈페이지 <https://gistgsa.co.kr/>

2022 GIST 연구환경 실태조사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